

기록물로 보는 전주



전주역사박물관
JEONJU HISTORICAL
MUSEUM

기록물로 보는 전주

2008년 9월 1일 인쇄

2008년 9월 4일 펴냄

발행인 _ 이동희

기 획 _ 장택진, 최우중, 박종철, 정 훈

발행처 _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T. 063-228-6485~6 F. 063-228-6484

www.jeonjumuseum.org

펴낸곳 _ 퓨전디자인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02

T. 063-244-2443 F. 063-244-2428

ISBN 978-89-961576-0-1 93900

- 이책의 제작비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제7기 전주역사박물관 아카데미

기록물로 보는 전주

제 7기 전주역사박물관 아카데미

기록물로 보는 전주

|| 강좌개요 ||

- 주 제 : “기록물로 보는 전주”
 ○강좌기간 : 2008년 9월 첫째 주 ~ 11월 첫째 주 (강의 8회 / 답사 1회)
 ○강좌일시 : 매주 금요일 14:00~16:00(답사 1회는 9월 넷째 주 토요일)
 ○장 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지하 1층)
 ○주 관 : 전주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 세부일정 ||

구분	일 정	주 제	강 사
1주	9월	5일 고지도로 본 전주경관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2주		12일 지명에 담긴 전주이야기	김규남 (전주대 책임객원교수)
3주		19일 옛 사진 속의 전주 백년	홍성덕 (전북대 박물관 학예사)
4주		26일 전주권 유적 답사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5주	10월	10일 민속으로 본 전주문화	송화섭 (전주대 교수)
6주		17일 문학작품 속의 전주	김병용 (전주교대 겸임교수, 소설가)
7주		24일 완산지에 나타난 전주	변주승 (전주대 교수)
8주		31일 소리에 나타난 전주	유장영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9주	11월	7일 한옥마을에 서린 선비문화	함한희 (전북대 교수)

목 차

고지도로 본 전주경관		이동희	7
지명에 담긴 전주 이야기		김규남	39
옛 사진 속의 전주 백년		홍성덕	85
민속으로 보는 전주문화		송화섭	115
문학작품속의 전주		김병용	141
완산지에 나타난 전주		변주승	159
소리에 나타난 전주		유장영	177
한옥마을에 서린 선비문화		함한희	205

고지도로 본 전주경관

이동희 || 전주역사박물관장

〈목 차〉

- I. 머 리 말
- II. 전주부성의 관아건물
 - 1. 전주성곽과 풍남문
 - 2. 전주객사와 도시구조
 - 3.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 4. 경기전·조경묘와 전주사고
- III. 부성외곽의 전주풍경
 - 1. 중진영과 남고산성 일원
 - 2. 향교와 승암산 일원
 - 3. 사직단과 다가산 일원
 - 4. 덕진연못과 건지산 일원
- IV. 맺 음 말

* 이 글은 필자의 「고지도로 본 조선시대의 전주」(『지도로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의 도시형성과 공간구조의 변화』, 전주역사박물관, 2004)를 축약하고,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현존하는 대표적인 전주 고지도로는 18세기와 1872년경에 각각 그려진 규장각소장본,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북대박물관 소장 4폭병풍도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십곡병풍도 등이 있다.¹⁾

18세기 전주고지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주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복사꽃이 만발한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872년경의 전주고지도는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1871년 읍지를 전국적으로 제작한 후 그 이듬해 전국의 지도를 제작 수합한 것이다.

전북대박물관 소장본과 국립전주박물관 소장본은 병풍형의 대형 지도로 조선말의 전주 모습을 상세히 담고 있다.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80호인 ‘전주부지도’는 4폭 병풍의 전북대박물관 소장본은 낡아 판독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도 제작이 치밀해 당시의 전주를 살펴볼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보존상태가 좋으면서 전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십곡병풍도’이다.

고지도는 당시 모습을 회화풍으로 그려놓고 있음으로, 도시경관을 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글은 고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전주의 모습을 읽어보고자 작성하였다. 완산십곡병풍도와 4폭병풍도를 주 자료로 하여, 주부성안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보고, 성밖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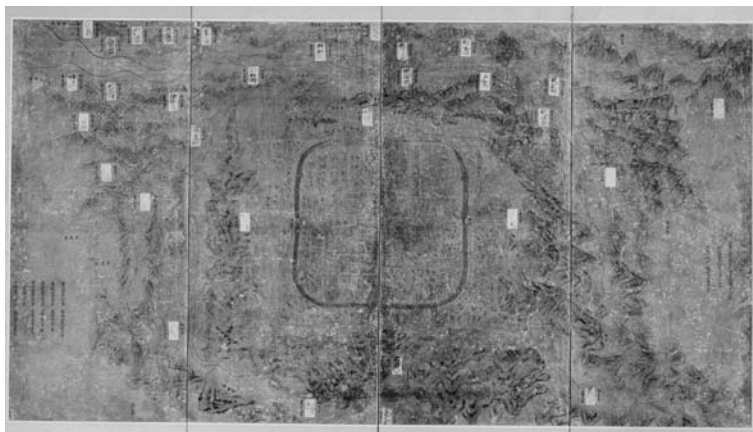
1) 4폭병풍도는 1840년경, 완산십곡병풍도는 1870년경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4) 완산십곡병풍도는 전주시립박물관에서 소장해 오던 것으로, 1990년경 경기전에 있던 전주시립박물관이 철거되면서 다른 소장품들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에 기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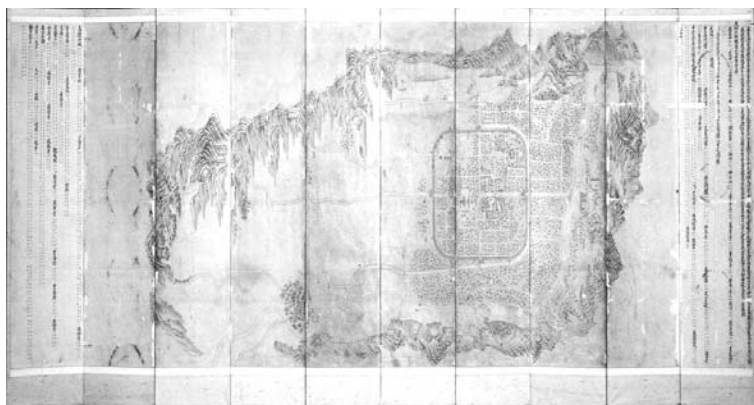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전주지도
(규장각 소장, 絹本彩色 150×90cm)〉



〈그림 2. 1872년경 전주지도
(규장각 소장, 126×75cm)〉



〈그림 3. 19세기 전주부 지도(전북대박물관 소장 4폭 병풍도, 137×235cm,
전라북도유형문화재 80호)〉



〈그림 4. 19세기 전주부지도(국립전주박물관 소장 완산십곡병풍도, 紙本淡彩, 170×529cm)〉

Ⅱ. 전주부성의 관아건물

1. 전주성곽과 풍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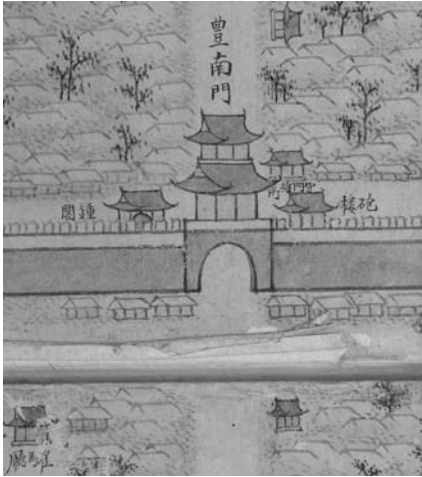
〈그림 5. 전주부성(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전주부성의 총면적은 18만평정도 되었다. 이러한 전주성은 삼남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²⁾ 부성의 4대문 위치는 서문은 현재의 다가동 파출소 근처, 동문은 동문사 거리, 북문은 오거리쯤 된다. 성문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는 빗돌이 세워져 있다.

전주부성이 언제 처음 축조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고려말에는 이미 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성 수축에 관한 확실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1734년(영조 10)이다. 이 때 전라감사 조현명이 부성을 크게 개축하고, 4대문을 다시 쌓았다. 남문은 성문 내외를 아치형의 홍예문(무지개문)으로 쌓았으며, 성문 위에 3층의 문루를 세워 「명건루」라 이름하였다.

1767년(영조 43) 전주에 큰 불이 나서(丁亥大火), 민가 1천여호와 함께 문루가 소실되자 전라감사 홍낙인이 남문과 서문을 복구하고, 그 이름을 건국자의 본향을 뜻하는 「풍패」에서 한자씩 따서 각

2) 장명수, 앞의 책, 序文.



각 남문을 풍남문, 서문을 패서문으로 바꾸었다.

전주성의 철거는 일제에 의해 저질러졌다. 1909년 전주부성의 서쪽 성벽이 철거되었으며, 1911년에 동쪽 성벽과, 동문·서문·북문이 철거되어 풍남문을 제외하고 성벽과 성문들이 다 철거되고 말았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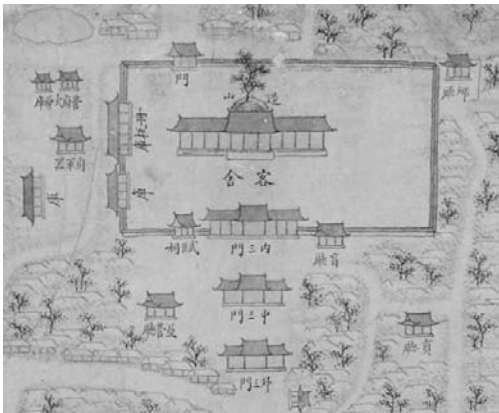
〈그림 6. 풍남문(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현재의 풍남문(보물 308호)은 1978년에서 1980년에 걸쳐 보수한 것이다. 중앙의 문루만 남아 있었는데, 양쪽의 날개 문루를 복원했으며, 이 때 웅성도 복원하였다. 웅성은 적의 공략으로부터 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 바깥 주변을 둘러싼 성이다. 조선말의 사진이나 지도 등에 풍남문이 웅성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18세기 『해동지도』에 4대문이 모두 웅성으로 그려져 있으며, 조현명이 전주성을 수축하면서 기록한 일지인

3) 1911년에 전주성 동벽이 철거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전주성 서벽 철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찾지 못한채 1907년에 전군도로가 개설되면서 철거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장명수, 앞의 책, 214~224쪽). 그런데 1911년 9월에 全州鄉老齋에서 중간한 『完山誌』 邑城조에 “隆熙三年己酉 城毀 明治四十四年辛亥 并毀東西北三門”이라고 하여, 1909년에 전주성 성벽이 훼손되었고, 1911년에 동문·서문·북문 3문이 철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전주부지도에 서벽과 동서북문 3문은 철거되고, 동벽과 풍남문만 남아 있다. 이런 『완산지』의 기록으로 볼 때, 전군도로가 1907년에 개설공사에 들어갔지만 전주성 서쪽 성벽은 1909년에 철거되었고, 이어 1911년에 동·서·북 3문이 철거되고 이어 동벽이 철거된 것으로 생각된다.

『축성계초(築城啓草)』에도 웅성으로 나와 있다.

중앙 문루 양쪽에 나지막한 문루를 붙여 성문을 오르내리게 하였는데, 이중 서편의 작은 문루가 종각으로 여기에서 종을 쳐서 성문의 개폐를 알렸다. 지도에 보이는 우편의 누각은 수문장소(守門將所)이자 포루이다.

2. 전주객사와 도시구조



〈그림 7. 전주 객사(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현재 충경로변에 있는 전주객사(全州客舍, 보물 583호)는 성안에서 가장 컸던 건물로, '풍패지관(豐沛之館)'이라 하였다. 풍패지관이란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의미이다. 객사는 왕권을 상징하

는 읍성 내 건물 배치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중앙의 주관에서는 지방의 신하들이 임금을 향해 배례하는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고, 좌우 익현에서는 중앙의 관리 등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접대하였다.

고지도를 통해 성안의 간선도로를 보면, 풍남문에서 반듯하게 북쪽으로 길이 나 있고, 이 길이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도로와 만나 전체적으로 'T'자형 가로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 'T'자형 가로 위에

약간 좌편으로 기울어 객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풍남문에서 객사로 난 주작대로 좌편(서편)에 전라감영, 우편(동편)에 전주부영이 위치했다.

남문과 북문 사이 성벽쪽으로는 경기전과 조경묘가 조성되었다. 객사 우편, 즉 동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부성 동북편 구역에는 청수정(淸水亭)과 진북정(鎭北亭)이 위치하였으며, 그 우편 성벽 가까이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 있었다. 진북정 북편 100보정도 거리에 현무지(玄武池)가 있었다. 현무지는 북쪽이 허한 전주의 지기를 보완하기 위해 1796년(정조 20) 판관 윤광수(尹光垂)가 조성한 둘레 100m 정도의 연못이다.

객사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있었다. 완산십곡병풍도를 보면 객사 앞으로 내삼문, 중삼문, 외삼문 등 3개의 문이 있었으며, 내삼문 담을 타고 양 옆에는 무신사(武臣祠)와 맹청(盲廳)이 있었다. 객사 좌편 담쪽으로는 책판고(冊版庫)가 있었고, 담 너머로 군기고와 화약고 등이 있었다. 객사 뒤편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조산(造山)이 있다.

객사주변 건물로는 중삼문 왼편에 도사(都事)의 집무처인 아영청(亞營廳) 즉 현도관(玄都館)이 있었고, 우편에는 진상품을 취급하는 공청(貢廳)이 있었다. 도사는 관찰사의 부관으로, 아감사(亞監司, 亞使)로서 한 도를 규찰하고 감사가 유고일때는 감사직을 대행하였으며 감사가 순력할 때에는 감사와 소관지역을 나누어 순찰하기도 하였다.

객사 우편으로 한참 떨어져 부사(府司)가 있는데 이는 호장 근무처다. 호장이란 향리 즉 아전의 제일 우두머리를 말한다. 한편, 객사 우편 담 끝자락에 이어져 향청(鄉廳)이 위치했다. 향청은 죄수, 별

감 등 본래는 그 지역의 양반들이 거처하면서 수령을 도와 지역통치를 담당하던 곳이다.

3.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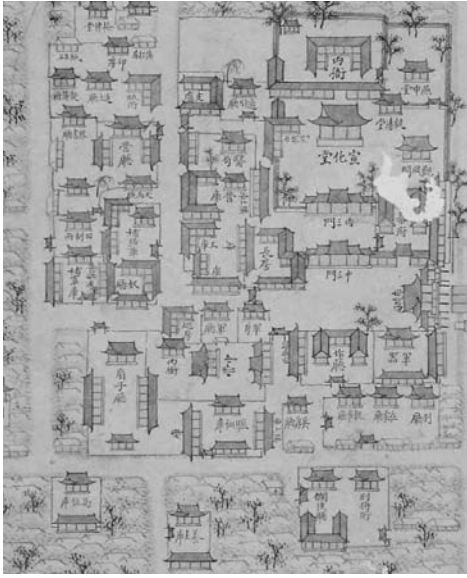
현재의 도청에 해당하는 전라감영의 전체면적은 1만 2천평 정도 되었다.⁴⁾ 전라감영은 구 전북도청 자리에 있었으며 그 중심 건물은 선화당(宣化堂)이다. 선화당은 전라감사(전라도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政廳)으로서 객사 다음으로 그 규모가 커 5칸 집에 건평이 78평이었다.⁵⁾ 선화당이란 이름은 ‘宣上德而化下民’, 즉 ‘임금의 덕을 베풀으로써 백성을 교화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조선 몰락후 1921년 선화당을 비워둔 채 그 앞 대지에 새로 도청사를 건립하였는데 1951년 화재로 도청본관과 함께 선화당도 소실되고 말았다.

감영의 정문 포정루(布政樓)는 남북대로변에 위치하였다. 선화당 뒤편에는 감사 가족들이 사는 내아(內衙), 우편에는 감영의 누각인 관풍각(觀風閣), 뒤편 서북쪽으로 비껴서 감사 심부름꾼 급사들의 대기소인 통인청(通人廳),⁶⁾ 앞쪽으로 사령청(使令廳)과 비장청(裨將廳)이 있다. 내아 좌편에는 감사 처소인 연신당(燕申堂), 앞쪽으로 선화당과 내아 사이에 감사가족을 돌보는 예방비장(내아 사

4) 장명수, 앞의 책, 256쪽.

5) 『전주부사』(1942), 810쪽 ; 장명수, 앞의 책, 150쪽. 선화당과 포정루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6) 전주대사습사에 나오는 통인청이다. 조선말에 전라감사, 육방, 통인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 전한다(전주역사박물관, 『옛 사진 속의 전주 전주사람들』, 2007, 164쪽. 이 사진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다).



무)실 응청당(凝淸堂)이 딸려 있다. 포정루를 지나 좌편, 즉 선화당 중삼문 앞에는 아전들의 집무처인 작정(作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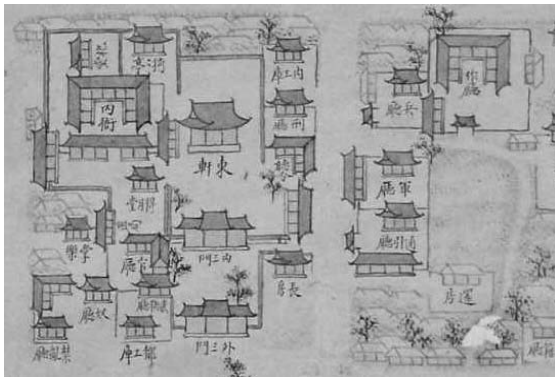
선화당 좌편 끝자락 위쪽부터 보면 약재를 다루는 심약당(審藥堂)과 법률을 다루는 검율당(檢律堂)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진상

〈그림 8. 전라감영(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청(進上廳)이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한지(韓紙)를 만들고 인출하는 일을 관장하는 지소(紙所)와 인출방(印出房)이 배치되었다. 더 아래로(남쪽방향) 내려오면 진상할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扇子廳)이 매우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전주가 한지와 부채의 고장임이 감영의 구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감영 주변의 건물로는, 4폭병풍도에 내아 뒷담 너머 양사재(養士齋)가 위치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양사재는 이후 이전되어, 완산십곡병풍도에 현재의 위치인 오목대 밑에 나타나 있다.

전주부영(全州府營)은 전주부를 관장하는 관아로 남북대로 우편에 위치했다. 즉 풍남문에서 시내를 향한 도로를 따라 가다 우편이 전주부영이 있던 자리이다. 전주부영, 즉 이아(貳衙) 면적은 7천여 평 정도였다.⁷⁾ 그 중심 건물은 판관(부윤)의 집무처인 동헌(東軒)

으로 현 중소기업은행자리이다. 이 건물은 풍낙헌(豐樂憲)이라고 하는데, 18세기 정조말의 읍지에는 음순당(飲醇堂)이라고 나오며, 또 남아 있는 조선말의 동헌 사진에도 ‘飲醇堂’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조선이 몰락한 후 전주군청으로 쓰이다가 1934년 매각되어 구이면 덕천리(舊 태실리)의 전주유씨 제각으로 이전 건립되었으며,⁸⁾ 2007년 전주향교 옆으로 이전되어 현재 동헌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림 9. 전주부영(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동헌으로 들어오는 문은 풍남문에서 객사 쪽으로 뻗은 남북대로에서 동편쪽으로 들어와 북쪽으로 외삼문, 내삼문이 동헌과 일직선

상에 놓여 있었다. 동헌 서편에 판관 가족들의 거처인 내아(內衙)가 있는데 이를 서헌(西軒)이라고도 했다. 현 산업은행 자리가 내아가 있던 곳이다.

내아 앞뒤로 각각 판관의 휴식처인 득월당(得月堂)과 연회장소인 의의정(猗猗亭)이 있었다. 내아 뒤에는 사당(祠堂)도 있었다. 득월당 앞에 교방(敎坊)이 있어 관청을 드나드는 기생들에게 가무음곡을 가르쳤으며, 그 서편에는 또 재인들을 관장하는 장악청(掌

7) 이철수, 『전주야사』, 269쪽.

8) 『전주부사』(1943), 814쪽.

樂廳)이 있었다.

작청(作廳)은 동헌 우편에 자리했는데 현 팔달로 건너 전북은행 자리에 있었다. 작청건물은 시청 분관으로 사용되다 1960년대 말 철거되고 전북은행이 신축되었다.⁹⁾ 판관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통인청은 작청 아래에 내삼문과 가까운 쪽에 있었으며 현 팔달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위치했다.

4. 경기전 · 조경묘와 전주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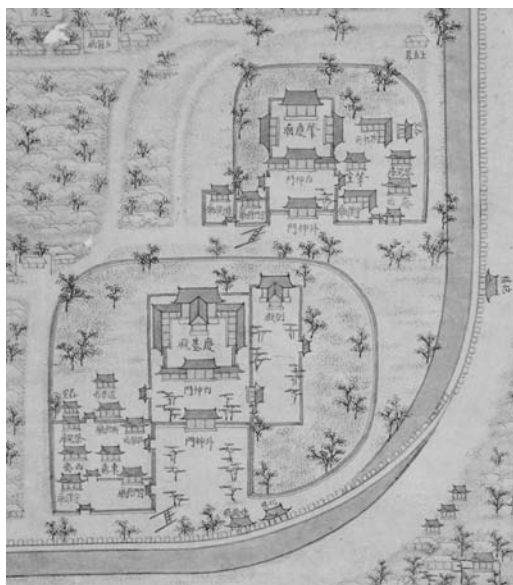
경기전(慶基殿, 사적 339호)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이다. 전주에 태조어진이 봉안되기 시작한 것은 태종 10년(1410)의 일이다. 경기전 태조어진은 현존하는 유일한 태조어진이다.¹⁰⁾ 조경묘(肇慶廟, 지방유형문화재 16호)는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李翰)과 시조비 경주 김씨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1771년(영조 47)에 건립하였다.

전주사고(全州史庫)는 조선전기 4대사고의 하나로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등 국가중요서적을 보관하였던 곳이다. 세종 27년 처음으로 전주성내의 승의사(僧義寺)에 실록을 보관하기 시작하여 객사 후원의 진남루로 실록을 옮겼다가, 1473년(성종 4) 경기전 동편에 사고를 건립하여 실록을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중 경기전 참봉 오희길(吳希吉), 태인(泰

9) 장명수, 앞의 책, 257쪽.

10) 한편, 영흥 준원전의 태조어진이 사진으로 전하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사진으로 1911년에 촬영한 것이다. 경기전의 어진은 수염이 하얀 노년의 모습이고, 준원전의 어진은 수염이 검은 젊은 날의 모습이다.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임금 중 현존하는 어진은 태조, 영조, 철종어진 단 3점이다.

仁)의 선비 손홍록(孫弘祿)·안의(安義) 등에 의해 태조 어진과 함께 내장산으로 이안되어 화를 면했다. 그리하여 왜란 중 전주사고 본 실록만이 유일하게 보존되었으며,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완산십곡병풍도에 보면 경기전과 조경묘는 부성의 동남편 한켠에 있는데, 들어가는 길의 방향이 지금과 다르다. 지금은 건물 정면에서 바로 들어가지만 조선 시대에는 좌편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홍살문도 건물의 방향과 다르게 서쪽을 향

〈그림 10. 경기전과 조경묘(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해 서있다. 경기전과 조경묘에 들어가는 길도 각각 따로 있다. 경기전은 그 영역이 담으로 둘러 쳐져 있어 한 건물군을 이루었으며, 조경묘도 그 건물군 전체가 한 담으로 둘러 쳐져 있어 묘역 밖과 구분이 되었다.

경기전은 외신문(外神門), 내신문(內外門) 진전(眞殿)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으며, 그 좌편으로 부속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진전 우편에는 별전(別殿)이 건립되어 있는데, 진전과 같은 ‘丁’자형 건물 형태이다. 별전이 있는 구역은 조선전기 전주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임진왜란 후 사고가 폐지되면서 별전이 세워졌다. 별전은 진전에 일

이 있을 때 임시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전 좌측의 부속건물로는 문 옆의 수문장청(守門將廳), 그 옆의 수복청(守僕廳), 그리고 그 위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 개복청(改服廳), 전사청(典祀廳), 제기고(祭器庫), 용실(春室), 조과소(造果所) 등이 있었다. 일제때 이들 부속건물들이 철거되고 중앙초등학교를 세웠는데, 근래에 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옛 건물들을 복원하였다. 홍살문 너머 성벽쪽으로 경기전을 지키는 시위청(侍衛廳)이 있었다.

조선말에 그려진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과¹¹⁾ 일제 강점기에 필사된 『경기전의(慶基殿儀)』에는 군막(軍幕)과 어정(御井, 우물)이 나와 있다.¹²⁾ 4폭병풍도나 완산십곡병풍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선말에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조경묘는 외신문과 내신문이 사당과 일직선상에 있으며, 그 좌우로 부속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수문장청, 그리고 그 옆에 시위청이 있었다. 우편에 수복청, 재실, 제기고, 연실(輦室), 전사소(典祀所), 용실(春室) 등 부속건물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따라서 밖과 통하는 문도 이쪽으로 나있다. 이 우편의 부속건물은 조선의 마지막 황녀 이문용여사가 말년을 의탁한 곳이기도 하다.

11) 「조경묘경기전도형(肇慶廟慶基殿圖形)」(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이 지도는 1899년 조경단을 건립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경단비각재실도형」을 제작하면서 같이 그려졌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지 않으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정혜·이예성·양보경, 『조선왕실의 행사그림과 옛지도』, 민속원, 2005, 214쪽 및 218쪽)

12), 『慶基殿儀』(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일제강점기 寫本.

Ⅲ. 부성 외곽의 전주풍경

1. 중진영과 남고산성 일원

1) 중진영과 남천교



〈그림 11. 중진영과 남천교
(19세기, 완산십국병풍도)〉

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전주를 비롯해 김제·고부·진안·임실·금구·만경·부안 등의 지방군을 총괄하였다.

전주에 설치된 중진영은 부성과 전주천 사이, 남천교 부근에 있었다. 지금의 강암서예관이 있는 자리가 중진영 자리이다. 중진영의 정문은 2층으로 된 호경루(護慶樓)이다. 정문 서편의 간검당(看檢

조선시대 전주를 지키는 군사시설로 남문밖의 중진영(中鎭營), 남천교 건너의 남고산성, 전주부성 동방 40리 지점에 위치한 위봉산성 등 삼진(三鎭)이 있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후인 1627년(인조 5) 지방군제도를 영장제(營將制)로 개편하여, 각 도에 전·후·좌·후·중 5 진영을 두고 영장을 배치해 지방군을 관할하였다. 전주는 전라도 5진영 중 중진영

堂)은 영장(營將, 武, 정3품)의 청사이고, 제남정(濟南亭)은 집회소이다. 간검당 위에는 책실(冊室), 내아(內衙) 등이 있다. 제남정 윗편으로 치안을 다루는 포도청(捕盜廳)이 있으며, 군사청(軍士廳)은 호경루 우편에 있다. 그 군사청 위로 군기고, 집사청(執事廳), 장방(長房), 형리청(刑吏廳) 등이 차례로 배치되었다.

중진영과 남고산성을 잇는 교량이 남천교(南川橋)이다. 전주부성에서 남원을 가려면 이 남천교를 건너야만 되었다. 1791년(정조 15) 개건된 남천교는 5간의 무지개 다리(五虹橋)로서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또 다섯 개의 창으로 인해 일명 안경다리라고도 하였다. 남천교 개건비가 전주교대 정문근처로 옮겨져 있다. 남천교는 이후 유실되어 1901년 평교로 개축했고, 1907년 홍수로 유실되어 다시 축조되었으나 3년 후 유실된 후 1950년대에 다시 건립되었다.

2) 남고산성과 만마관

남고산성(南固山城, 사적 294)은 고덕산과 천경대, 만경대, 역경대로 불리는 봉우리를 둘러 쌓은 포곡식 산성이다. 남고산성의 본래 명칭은 고덕산성(高德山城)이며, 견훤성으로도 불렸다.



〈그림 12. 남고산성도(1871년 『호남읍지』)〉

옛 성터에 산성이 다시 축조된 것은 19세기 초의 일이다. 순조 11년(1811) 관찰사 이상황(李相璜)이 증축을 시작하여 이듬해 박윤수(朴崙壽)가 관찰사로 부임하여 완성하고 그 이름을 남고산성이

라 하였다. 서문 앞에는 1846년(헌종 12)에 건립한, 명필 창암 이삼만(蒼岩 李三晩)이 쓴 남고진 사적비(南固鎭事蹟碑)가 세워져 있다.

산성에는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 포루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휘소인 남장대(南將臺)와 북장대가 성의 앞뒤에 세워져 있었으며, 별장청사, 내아(內衙), 장청(將廳), 이청(吏廳), 화약고, 군기고 등이 있었다. 서문과 남고사 사이에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도 있었다.



〈그림 13. 만마관과 지소
(19세기, 4폭병풍도)〉

남고산성(남고진) 관내에 남관진(南關鎭)과 만마관을 두었다. 고종 8년(1871)에 전라관찰사 이호준(李鎬俊)이 설치하였는데, 그 유래를 담고 있는 남관진비가 완주군 상관면, 전주~ 남원간 도로변에 서있다. 만마관(萬馬關, 萬冥關)은 여기에서 5리정도 더 남원 쪽으로 가서 슬치재 못미처 이리저리 굽어드는 길에 관문을 세운 것으로 천군만마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전주성의 함곡관이었다. 만

마관 가는 길가 좌편으로 신원(新院) 못미처 상관면에 종이를 만드는 지소(紙所)가 있었다. 만마관 근처에는 슬치재를 넘나드는 길손들이 묵던 노구바우 역관이 있었다.

2. 향교와 승암산 일원

1) 오목대와 이목대

오목대(梧木臺, 지방기념물 16호)는 경기전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거리에 나지막하게 솟은 평퍼짐한 언덕반이를 말한다. 고려 말 1380년(우왕 6) 9월 태조 이성계가 황산대첩(荒山大捷)을 거두고, 돌아가는 길에 잔치를 벌인 곳으로, 1900년(광무 4)에 세운 고종 친필의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蹕遺址)』라는 비와 비각이 있다. 전동성당이 처음에는 여기에 들어서려 했다고 한다.

이목대(梨木臺, 지방기념물 16호)는 목조 이안사가 전주를 떠나기 전에 살았던 구거지로 발산 중턱에 있다. 발산은 승암산(중바위)에서 뻗어 나와 이목대, 오목대 등으로 이어지는 산으로, 목조가 이 발산 아래에 있는 자만동(滋滿洞)에서 살았다. 그래서 발산을 이씨왕조가 일어난 산이라고 하여 발이산(發李山)이라고도 하며, ‘梨木臺’를 ‘李木臺’라고도 한다. 조경단을 조성한 그 이듬해인 1900년(광무 4), 목조 구거지로 전해지고 있는 자리에 고종이 친필로 쓴 『목조대왕구거유지(穆祖大王舊居遺址)』라는 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했다.

그런데 고지도에 오목대와 이목대의 한자표현이 각기 다르다. 이름이 명기된 가장 빠른 지도인 18세기 해동지도에는 吳穆臺, 李穆臺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4폭 병풍지도에는 五木臺, 1872년경 지도에는 梧木臺로 쓰여 있고, 두 지도 모두 이목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에는 梧木臺, 二木臺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 『완산지』에는 梧木臺로 표기되어 있고, 이목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¹³⁾ 1911년 전라북도 전주군 부서면도(府西面

圖)에는 梧木臺, 李木臺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14. 오목대, 향교, 한벽당(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2) 전주향교와 한벽당

전주향교(全州鄉校, 사적 379호)는 오목대 밑자락, 현재의 기린로변 서편에 있다. 설립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려 공민왕 3년(1354)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래의 위치는 풍남동(경기전 북편)에 있었는데, 경기전이 들어선 뒤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지금의 화산 신흥학교 부근으로 옮겼다. 임진왜란 후 1603년(선조 36)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법도에 어긋난다하여 부성밖 동편인 지금의 자리로 다시 이전하였다. 아마도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옮겨 중건한 것으로 짐작된다.

13) 목조 이안사에 관한 장군수(將軍樹)와 호운석(虎隕石)에 관한 설화는 18세기말의 『완산지』에 등장하고 있다.

고지도에 나타나는 향교는 조선후기의 향교이다. 지도에서 보듯이, 만화루(萬化樓)가 지금과 달리 홍살문 옆, 전주천변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운치 있는 위치다. 공자와 그 제자 4성의 부친 위패를 모신 계성사(啓聖祠)도 지금과 달리 향교 동편에 있었다. 현재는 계성사가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1929년 철도가 건설되면서, 계성사를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향교좌측으로 오목대 아래 오대서원(梧臺書院)이 있고, 우측으로 한벽당 못 미쳐 한계서원(寒溪書院)이 위치했다.

한벽당(寒碧堂,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호)은 승암산 기슭인 발산 머리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으로 조선초 최담이 건립했다고 전한다. 슬치에서 시작된 상관계곡의 물은 이곳 한벽당 바윗돌에 부딪쳐 흰 옥처럼 물살이 부서지면서 우회하게 된다. 한벽루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한벽청연(寒碧晴烟)이라 하여 전주팔경의 하나로 꼽았다.

지도에서 보듯이 한벽루(寒碧樓)는 본래는 단을 따라 누각이 층층이 건립되어 있었으며, 그 앞에는 한벽루로 들어가는 문까지 있었다. 한벽루(寒碧樓)란 이름은 ‘한벽옥류(碧玉寒流)’에서 따온 것으로, 월당 최담 유허비에는 월당루(月塘樓)라 기록되어 있다. 한벽루 옆의 요월대(邀月臺)는 달과 노리는 누각이라는 뜻으로 일제 때 건립된 것이다.

3) 동고산성과 위봉산성

동고산성(東固山城, 도기념물 44호)은 옛 부터 후백제 견훤성(甄萱城)으로 알려져 왔다. 1980년 동고산성발굴조사에서 ‘전주성(全州城)’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나말여초(羅末麗初) 형식의 기와

가 출토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산성의 형태는 서쪽으로 승암산의 규암(珪岩) 절벽에 의지하여, 서북방에 수구(水口)가 뚫려 있는 삼태기형의 골짜기를 감은 포곡산성으로, 날개모양의 익성(翼城)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성곽의 둘레는 1,588m이다.

위봉산성(威鳳山城, 사적 471호)은 행궁을 설치하여 유사시 경기전의 이성계 영정과 조경묘의 위패를 피신시키기 위해 숙종 원년(1675)에 축조하였다. 석축둘레는 6,400m에 이른다. 서문 쪽에 진장청사가 있었고 동남방 높은 지대에 장대가 있었다. 위봉산성 안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행궁이 서문 좌편에 있으며 그 위쪽으로 위봉사가 자리했다. 위봉사는 산성과 행궁을 수직하는 승도들을 위하여 지은 사찰이다. 동학농민전쟁 때 경기전 어진과 조경묘 위판이 이곳에 안치되었으나, 행궁이 퇴락해 위봉사 법당에 모셨다.

4) 성황사, 간납대, 인봉제

문묘, 사직단, 여단, 성황사는 고려조 이래 국가가 직접 제사를 집행하였다. 즉 그 지방의 관장이 매년 정기적으로 제사를 받들었다. 성황사(城隍祠)는 전주부성을 수호하는 성황신을 모신 사당으로, 동고산성내 전현의 왕궁터라고도 이야기되는 건물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성황사에서 시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옛 전주공전 자리(현 천주교 전주교구)가 나오는데 이 일대가 간납대(諫納臺)이다. 속칭 낙수정골이라고 한다. 간납대란 이름은 전주팔현의 하나인 운암형제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것이다. 운암(雲岩)은 이흥발의 호이다. 전의 이씨인 흥발(李興勃), 기발(李起勃), 생발(李生勃) 삼

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생발은 일찍 요절했고, 홍발과 기발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사를 모아 남한산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했다고 하자 되돌아 와 이곳 간납대 일대에서 평생을 은거하였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간납대이다. 홍발과 기발이 사간원 헌납을 지낸 까닭으로 간자와 납자를 따서 간납대라고 하였다고 한다. 해동지도에는 가락대(嘉樂臺)로 표기되어 있다.

인봉제(麟峯堤)는 현재 문화촌으로 불리는 중노송동에 있던 방죽으로 기린봉을 타고 흘러내린 물을 막아 농수로 활용하였다. 지도에서 보듯이 방죽 한가운데 섬에 육일정(六一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1940년까지만 해도 기린봉을 타고 흘러내린 계곡물이 흥건하게 고였으며 주변에는 오래된 정자나무들이 듽성듬성 서 있어 여름철 피서객들이 모여드는 도시중심의 유일한 유원지였다. 1949년에 인봉지를 메워 상단은 경마장 하단은 공설운동장을 만들었는데, 주로 하단쪽이 인봉리 방죽자리이다.¹⁴⁾ 70년대에 들어와 택지로 개발되어 현재는 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3. 사직단과 다가산 일원

1) 서천교와 천양정

전주부성에서 서쪽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서천교를 건너야 한다. 현 서천교 서편에 1847년(헌종 13)에 세운 서천교개건비(西川橋改建碑)가 서있다. 본래 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였는데 1833년(순조 33) 석교로 건립하였다. 철종 5년 무너져 부민들이 손으로 보수하였으나, 또 다시 무너져 1896년 승지(承旨) 김창석(金昌錫)이 개축하

14) 『전주시사』 (1986), 127쪽.

였으며, 오래지 않아 또 무너져 1932년 박기순(朴基順)이 이곳에 다시 나무다리를 가설하였다. 그래서 서천교를 박참판 다리라고도 한다. 1936년 대홍수로 유실되었다가 근래 다시 건립되었다.

지도에 서문 근처 사마교가 보이는데 지금의 다가교 위편에 있었다. 신흥학교자리에 있던 사마재가 이미 교동 향교쪽으로 이견되었으나 조선말까지도 여전히 사마교라고 불렀다. 19세기 후반 고지도에는 三河橋라고 표기되고 징검다리 형태로 그려져 있다. 1910년대 사진에 목교로 나오는데, 1920년 대홍수로 유실되자 박기순이 교각은 콘크리트로 상판은 목조로 개축하였다가 1935년 상판까지 콘크리트로 개축하였다. 1936년 홍수로 2/3정도가 유실되어 1937년 개축하였다.¹⁵⁾

사마교를 건너 좌편 다가산 아래 다가정(多佳亭)과 천양정(穿陽亭, 도문화재자료 6호)이 있다. 다가산은 옛날부터 서쪽 ‘안산(案山)’이라 하여 풍치를 보호, 묘를 쓰는 것과, 나뭇꾼 등의 입산을 금했다.¹⁶⁾ 다가정과 천양정의 정경은 다가사후(多佳射候)라 하여 부성팔경의 하나다. 지도에 보면 다가정과 천양정이 다가산 아래 모여 있는데, 북풍을 거슬러 쏘는 다가정은 젊은 한량들이 이용하였고, 남향하여 아늑한 골짜기를 향해 쏘는 천양정은 주로 노인층이 이용하였다. 천양정의 ‘천양(穿陽)’은 버들잎을 화살로 꿰뚫는다는 뜻이다. 1911년 군자정, 다가정, 읍양정 3정의 사원과 천양정 사원

15) 전주천 제방공사도 1932년에 착공하여 1936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1936년 완공직전 대홍수를 만나 이듬해인 1937년에 완공되었다.

16) 이철수, 『완산승경』, 108쪽.

전원이 천양정의 사원이 되었다가, 1918년 다른 射亭들은 모두 폐하고 전주천양사정회로 통합되었다.



〈그림 15. 서천교, 다가정, 천양정, 희현당(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2) 희현당과 화산서원

지도에 다가정 우편으로 희현당(希顯堂) 건물과 문이 보인다. 희현당은 현 신흥학교 자리에 세운 사립학교로, 관찰사 김시걸(金時傑)이 인재양성을 위해 수천냥을 희사, 옛 사마재(司馬齋)가 있던 터에 1701년(숙종 27)에 건립하였다. 6,7간의 학사(學舍)에 공부하는 강당과 침식하는 방이 있었으며, 비(婢) 2명과 전답을 두었다. 희현당이라는 이름은 희현희성(希顯希聖)으로 성인(聖人)이 되고 현인(賢人)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의 희자(希字)와,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이현기부모(以顯其父母)하라는, 즉 출세하여 부모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뜻의 현자(顯字)를 취한 것이다. 희현당 사적비(希顯堂事蹟碑)와 희현당 중수 사적비(希顯堂重修事蹟碑)가 신흥

학교 교정에 서있다. 희헌당은 1896년경에 폐교되었다.

화산서원(華山書院)은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과 문충공(文忠公) 송인수(宋麟壽)를 배향한 곳으로, 구(舊) 향교지(鄉校址)에¹⁷⁾ 1578년(선조 11)에 건립되었다. 이언적은 1538년(선조 33)에 전주 부윤, 송인수는 1543년(중종 38)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역임하였다. 이런 연유로 전주부성 근처에 서원을 건립하고 이들을 합향하였다. 1662년(현종 3)에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으며, 1869년(고종 6)에 훼손되었다. 전주 예수병원 넘어 근영여고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화산서원비가 있다. 1664년(현종 5)에 세워졌으며, 이언적과 송인수의 성덕대행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짓고, 송준길(宋浚吉)이 글씨를 썼으며, 전자(篆字)는 송광식(宋光弼)이 썼다.

3) 사직단과 외지소

사직단(社稷壇)은 성황사(城隍祠), 여단(厲壇)과 함께 3사(三祠)라하여 고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곳으로 어느 마을에나 갖추어져 있었다. 마을의 동쪽에는 성황사, 서쪽에는 사직단, 북쪽에는 여단이 배치되었고 관에서 제사를 주관하였다..

‘사직’이란 땅과 곡식을 의미한다. 즉 ‘사(社)’는 국토를 수호하는 신이며, ‘직(稷)’은 곡식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다. 지도에 사마교를 건너 우편에 사직단이 보인다. 1870년경 지도에 보면 홍살문이 양쪽으로 2개 있고, 그 가운데 집이 한 채 있는 형태이다. 사직단에 남면한 방형의 두개의 토단과 제기고(祭器庫)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집이 제기고일 것 같다. 『동국여지승람』에 부의 서쪽 3리에

17) 『전주부사』 (1943), 484쪽.

사직단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의 기전여고 건물 동편의 작은 산봉우리를 말하는데,¹⁸⁾ 현재 사직단의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직단 북쪽 도토리골 천변가에는 종이를 만드는 외지소(外紙所)가 있었다. 1870년경 지도에 보면 황학대(黃鶴臺) 아래 산으로 둘러싸여 앞면이 열려 전주천에 접하고 있고, 그 안에 기와집들이 3채 보인다. 마을 앞에는 전주천을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었다. 외지소가 있던 도토리골은 구 진북교 건너에 있는 마을로 북쪽으로 이웃해 해 있는 마을이 유연대 어은골이다.



〈그림 16. 사직단과 외지소(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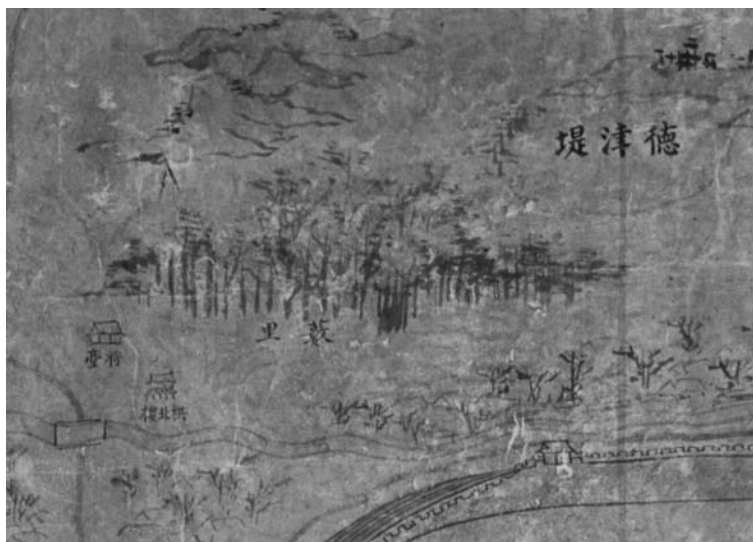
4. 덕진연못과 건지산 일원

전부북방의 건지산(乾止山)과 가련산(可連山)이 이어질 듯 이어질 듯 하면서도 끝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 원광대한방병원인 있는 가련산(可連山)이란 말 그대로 가히 이어질 수 있는 산이라는

18) 『전주시사』 (1986), 557쪽.

뜻이다. 건지산과 가련산이 연결되지 못해 전주 서북방이 열려 있는 형세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숲정이 진북사, 덕진연못 등 여러 풍수적 장치를 하였다.

덕진(德眞, 德津) 연못은 제언을 쌓아 건지산과 가련산 자락을 인위적으로 연결해 기가 북쪽으로 새어나감을 막고, 거기에 물을 가두어 기를 못 빠져나가게 한다는 의미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를 흩트리는 것이요, 물은 기를 모으는 의미가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부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둘레가 9천 73자라고 하였다.



〈그림 17. 덕진연못, 숲정, 공북루, 장대(19세기, 4폭병풍도)〉

숲정이 조성도 그렇다. 도학의 대가인 전라감사 강산 이서구(薑山 李書九)가 북녘의 허한 기운은 보완하고 북풍한설 겨울추위를 막아 내기 위해 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지도에는 수리(藪里)로 표기되어 있다. 숲정이란 숲머리란 의미로 숲이 칙칙하게 우거져 있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¹⁹⁾ 진북사를 기점으로 하여 금암동 복치봉(伏雉峰) 부리, 즉 불거진 암괴 벼랑까지 이어졌다. 조선시대 관찰사가 조경단에 참배할 때 복치봉 아래부터 건지산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한다.²⁰⁾ 1899년 건지산에는 전주이씨의 시조 김한 공의 묘역인 조경단이 설치되고 고종 친필로 쓴 조경단비가 세워졌다.

숲정이 주위 옛 해성고등학교자리(현 동국아파트)는 완산동 초록바위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처형장이었으며 천주교의 많은 신자들이 이곳에서 순교했다.

공북루(拱北樓)는 해성학교 가로변, 구 태평동 파출소 뒤편 일대에 있었다. 이 자리는 서울에서 전주로 접어드는 길목이었다. 지도에 보면 그 아래로 전주천 지류가 흘렀으며 다리가 있었다. 전주부성에서 나와 이 다리를 건너면 공북루이다. 공북루는 성주가 왕가의 무궁한 태평연월을 기원하던 누각으로, 공북(拱北)이란 말은 북쪽을 향해 손을 모은다는 뜻으로 한양 이남의 고을 북쪽에 세워진 건물명에 붙여진다. 조정의 어명을 받들거나,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부윤은 막하의 관리들을 이끌고 이곳 공북루에 와서 의관을 가다듬고 예를 갖추었다. 공북루 위의 숲정이 부근의 장대(將臺)는 군지휘소로 춘추로 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수행하였다.²¹⁾ 지도에 장대 건물 2채가 그려져 있다.

도토리골 외지소를 지나 진북동 어은터널과 서신교 사이의 가파른 산자락에 전주 사고사찰의 하나인 진북사(鎭北寺, 北固寺)가 자리하고 있다.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가 그 터를 잡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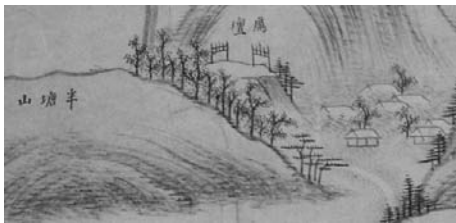
19) 『전주시사』(1986), 124쪽.

20) 이철수, 『완산승경』, 120쪽.

21) 『호남읍지』(1790년대), 전주부 누정.

다는 산신각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여기에 석불이 봉안되어 있었다. 진북사(鎭北寺)란 뜻은 북쪽을 누른다는 것으로, 전주북방의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진북동(眞北洞)이라는 동이름도 결국은 그런 뜻이다. 북고사(北固寺)라 하면 사고사찰의 의미로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와 함께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축의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천교를 건너, 부(府)의 서쪽 10리, 현재의 만성동 황방산(黃方山, 黃龍山) 자락에는 4고사찰의 하나인 서고사가 위치했다. 그리고 그 위로 한해를 건너 삼례역과 비비정이 있었다. 삼례역은 전라도에 들어오는 길목으로 호남에서 가장 큰 역이었다. 삼례역 좌편 비비정(飛飛亭)은 지금 삼례읍 서편 한내 [大川] 를 굽어보는 언덕에 자리하였다. 이곳은 예부터 기러기가 쉬어가는 곳이라고 하여 비비낙안(飛飛樂雁)이라 하였고 전주 팔경의 하나로 손꼽혀 내려왔다.



〈그림 18. 여단(19세기, 완산십곡병풍도)〉

한편 구 교도소와 동국민학교를 연결하는, 부성의 북쪽 5리 반대산(盤坮山)에는 여단을 설치하였다. 여단(厲壇)은 미혼남녀의 죽은 귀신이나 사손

이 없어서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는 무주신(無主神), 즉 신이 의탁할 주가 없는 자들을 위해 관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곳으로 사직단의 위치와 정반대인 고을 관부의 북쪽,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릉 같은 곳에 설치되었다. 국토의 평안이나 농사의 풍작 기우제 등은 주로 사직단에 제를 지냈으며, 여단에서는 주로 돌림병에 대한 액땀을 목적으로 제를 올렸다.

Ⅳ. 맺음말

전주부성은 18만평의 규모로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 객사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에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이 배치되었으며, 동남편 한적한 곳에는 경기전과 조경묘 등이 조성되었고, 동북쪽 빈 땅에는 현무지(玄武池), 감옥 등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전주부성 근처 오목대와 이목대에 비를 세우고 건지산에 조경단을 조성해 발산과 건지산을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성역화하였다.

전주부성 남문 밖으로는 중진영이 자리하고 남천교 건너 남고산성이 수축되어 전란을 대비한 읍성과 산성 이중 구조를 갖추었다. 부성과 멀리 떨어져 동쪽으로 위봉산성을 쌓아 유사시 태조어진과 조경묘의 위패를 이안하는 채비도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원에서 슬치재를 넘어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관문인 만마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북쪽 숲정이에 장대를 두고 군사를 조련했다.

교육기관으로 향교가 부성 승암산 자락 동남방에 있었고, 서편에는 희현당과 화산서원 등이 들어섰다. 성안에는 양사재가 19세기 중반까지도 감영뒤에 있었다. 관에서 제사를 받드는 3사(祠)는 각각, 성황당은 동쪽 승암산 동고산성 안에, 사직단은 서쪽 황학대 자락에, 여단은 서북쪽 반대봉에 배치되었다.

동서남북 사방에 사고사찰을 두어 전주를 방호하였으며, 서북쪽이 허한 지세를 보완하기 위해 숲정이, 진북사, 덕진제방 등을 마련하였다. 전주성 안에는 또 동북쪽에 현무지를 수축하고 객사 뒤에 조산을 만들었다.

다가산의 천양정과 다가정, 곤지산의 읍양정, 완산의 군자정 등 사정(射亭)들이 있어 심신을 단련하였으며, 전주천변을 따라 발산

아래 한벽당에서 삼례 비비정까지 누정들이 건립되었고, 남천교, 서천교, 사마교, 추천교 등의 교량이 가설되었다. 또한 종이의 고장답게 지소들이 전주성안에 인출방, 선자청과 함께 자리했고, 천변을 따라 지소들이 운영되었다. 남고산성안에도 지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덕진연못과 함께 여단 아래, 기린봉을 타고 내리는 물을 받아 인봉제를 수축하고 이 일대의 농수로 활용하였다.

지명에 담긴 전주이야기

김규남 || 전주대 책임객원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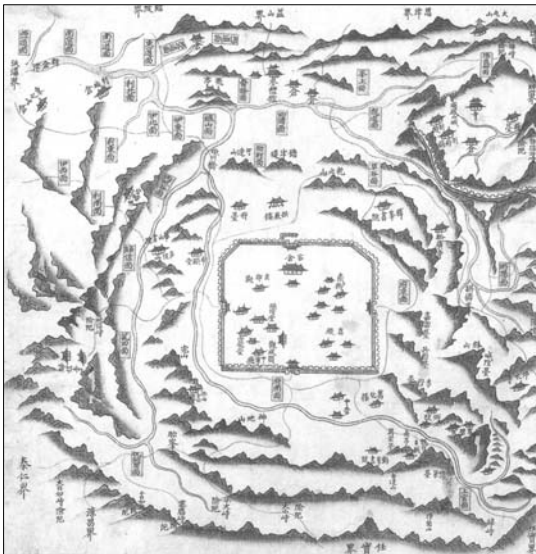
1. 들어가기
2. 지명 속 백 년 전의 전주
 - 1) 전주부성과 근교
 - 2)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
 - 3)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
3. 행정 명칭의 변화와 전주의 확장
 - 1) 전주성의 파괴와 식민 시대
 - 2) 해방과 동란 직후
 - 3) 1960년대 이후
4. 나오며

1. 들어가기

후백제의 도읍이었으며, 조선 건국조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고, 조선시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 전체를 관장하던 주요 도시였던 전주는 이제 예향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방 중소 도시로 그 위세가 축소되었다.

여느 도시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변모되어 왔던 것처럼 전주 또한 이미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당시에 세워진 식민도시로의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이미 세워진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훼손된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이 그 방증이다.

전주는 그런 점에서 다른 도시에 비해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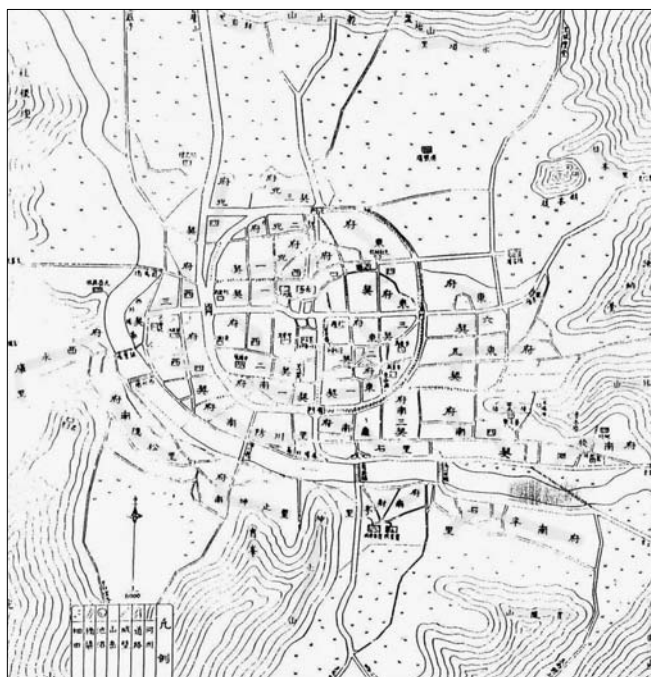


〈그림 1. 18세기 후반, 전라남북여지도의 전주〉

곳 중 하나였다고 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전주가 건국조의 관향이였으며 그와 관련된 주요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어서 전주는 가히 조선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시였다. 왜인들이 전주를 훼손하는 데는 명백

하게 그런 속셈이 숨겨져 있었으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전주의 식민 도시화는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했다.

조선시대 전주의 지명을 살피는 일은 조선 시대 전주의 원형을 가늠해 보고, 그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백여 년 전 전주의 배경을 이루는 산과 물길 등의 자연적 조건과 관련된 지명들을 살피고, 이런 자연적 배경을 중심으로 전주의 사회적 삶과 문화적 토양이 그 위에 수놓인 전주의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살피게 될 것이다.



〈그림 2. 부산면도, 구한말 전주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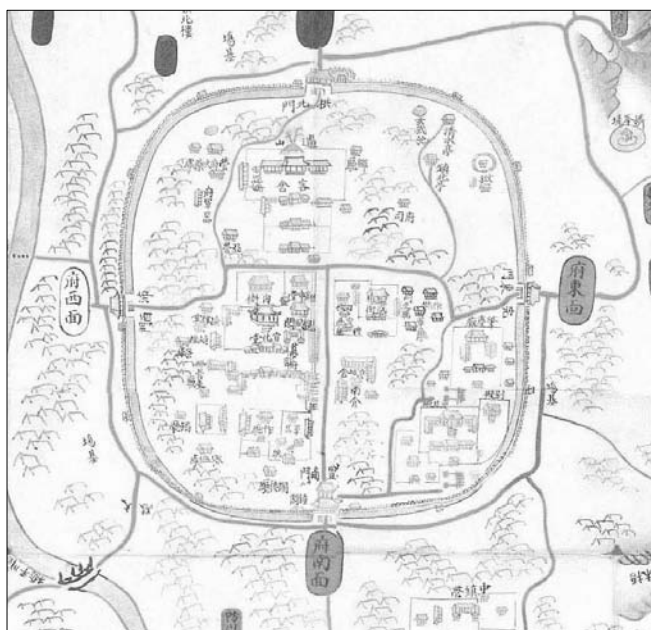
2. 지명 속 백 년 전의 전주

1) 전주부성과 근교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당시 전주의 행정구역을 좇아 전주성과 근교가 어떻게 구획되었는지 살펴보자. 경성제국대학부속도서관 소장, 조선 말기 전부와 근교를 그려놓은 부사면도(府四面圖)에 표시되어 있는 행정 구역을 보면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중심부는 서문에서 동문, 남문에서 북문에 이르는 십자형 도로를 중심으로 부북면, 부동면, 부서면, 부남면으로 나뉜다. 즉 동문에서 서문을 관통하는 도로 위는 부북면과 부동면, 도로 아래는 부남면과 부서면으로 나뉘며, 다시 남문과 북문을 중심으로 동편은 부동면과 부남면, 서편은 부북면과 부서면으로 나뉜다. 부북면은 부북 일계, 이계, 삼계, 사계로 표시되어 있으며, 부동면은 남문, 북문간 도로의 동편 전체를 가리키는데, 남문에서 동문에 이르는 성벽 안쪽에서부터 부동일계, 이계, 삼계, 사계로 나뉘고 성벽 밖으로 부동오계와 부동육계가 나뉘어 있다. 부서면은 동서문 도로의 남쪽, 남북문 도로 서쪽 일대로 부서일계, 이계, 성 밖으로 부서삼계, 사계 그리고 전주천 넘어 빙고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부남면 가운데 성문 안에 있는 구역은 부남일계로 남문에서 서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안쪽 지역이 이에 속한다. 부남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동네 이름들을 갖는다. 부남 방천리는 남문 밖에서 전주천에 이르는 서쪽 지역, 구석리는 남문 밖에서 전주천에 이르는 동쪽 지대, 부남 삼계는 구석리 동편, 부남사계는 오목대 주변, 향교 주변은 교동, 전주천을 넘어 지금의 서완산동 부근은 은송리, 동완산동 부

근은 곤지리, 서학동 부근은 사정리, 동서학동 부근은 반석리로 표시되어 있다.

전주부성 안에는 객사와 전라감영, 전주부영이 중심부에 있었으며 주변은 상인이나 평민들의 거주 지역들이 북문에서 서문을 거쳐 남문으로 이어지는 성벽 안쪽에 동네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에 이 동네들에 대한 지명이 있었을 것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전 자료조차 남아 있지 않다.



위 지도는 19세기 전주의 부성과 인근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주부성 내의 주요 건물들은 그 자체로 지명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객사, 한벽루, 향교, 경기전 등이 지금도 그 건물 명칭이 지명처럼 사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

을 것이다. 우선 조선시대 도시 형성에 있어서 부성의 부속 건물로 1묘, 1사, 2단 조성이 관례화 되어 있어서, 향교의 문묘, 성황사(동고 산성터), 사직단(현 신흥고등학교 자리), 여단(동초등학교 뒷산) 등이 배치되어 있었고, 당시 부성과 관련 건물들로 객사, 선화당, 중진영, 경기전, 향교 등을 비롯하여 인근의 화산서원(1578년), 한 벽당(1400년), 공복루(1461년 이전으로 추정), 군자정(1677년), 회현당(1700년), 다가정(1712년), 읍양정(1766년), 청운정, 백운정(19세기 말) 등은 전주부성과 인근에 위치한 주요 건물들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처럼 사용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이다.

부성의 부속 건물들과 더불어, 사방에 세워진 네 문은 그 자체가 지명이다. 동문(完東門), 서문(沛西門), 남문(豐南門), 북문(拱北門)이 그것이며 이 네 문은 특히 장이 형성되어 인근의 백성들이 물물교환이나 상업적 교류를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893년 경 전주의 주요 장으로는 동문밖장, 서문밖장, 남문밖장, 북문밖장이 있었다. 동문밖장은 한약재와 특용작물을, 북문밖장은 포목과 잡곡을 주로 거래하였다고 한다. 특히 남문밖장을 위시하여 전주천변은 천을 따라 온갖 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곳이다. 싸전다리 밑의 싸전, 매곡교 부근의 쇠전, 설대전, 은송리에서 초록바위까지의 나무전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지명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림 4. 이 그림은 1900년 전후의 것이다.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중 바위, 전주천을 중심으로 왼편은 향교와 남문시장, 오른편은 천변으로 형성된 장옥의 모습이다.〈전주국립박물관 1998〉〉

전주천변은 특히 전주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생활공간 중 하나이다. 한벽루에서는 유생들이 풍류를 즐기고, 각시바우, 서방바우에서는 아이들이 고기잡고 먹감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남천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기도 하고 빨래를 삶아 널기도 하는 장관은 남천표모라 하여 완산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싸전다리, 매곡교, 서천교 등에서는 온갖 장이 열리는 장터로 상용 전주천변은 사람이 끊일 날이 없었다.

전주천은, 전주부성을 기준으로 부성의 남쪽을 흐르는 천은 남천, 서북진하며 방향을 튼 부근을 서천으로 불린다. 그 외에도 각각의 다리와 인근의 장 이름이 전주천의 부분 부분을 나누어 명명하는 지명으로 사용된다. 남천에는 예전부터 다리가 있었는데, 영조 때 다리가 유실되어 정조 15년에 다시 놓았는데 다섯간의 홍예교였다.

이를 줄여 통상 홍교라 불렀다고 한다. 그후 광무 5년 관찰사 조한국이 개축하여 평교를 만들었으나 다시 수해를 만나 유실되고 1907년 부내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 수축하였다고 한다. 그 많은 곡절만큼이나 남천교의 이름 역시 남천석교, 새다리, 안경다리 등등의 이름을 거쳐 지금의 남천교에 이른다.

남천은 싸전다리를 지나 초록바위 앞에서, 흑석골에서 흘러내린 공수내와 만나 세를 불린다. 전주천을 중심으로 부성 편과 그 반대편에 천변이 만들어 놓은 공간을 이용하여 양쪽 모두에 장시 서 있었다. 싸전다리를 시작으로, 매곡교를 건너 맏골 앞으로는 쇠전이 있어서 쇠전강변으로 불렸으며, 매곡교에 담배를 파는 장사들이 좌판을 벌인 데서 매곡교를 연죽교, 설대전다리로 부르기도 했다. 특히, 매곡교에서 서천교 사이에 책방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책방거리는 전주천변에 제방이 쌓이기 전에 있었으며 전주천 물길에 가장 가깝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이 바로 춘향전, 홍부전, 숙영낭자전 등이 출판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한국고대소설 출판 본거지였던 셈이다. 이곳을 지나면 소금전이다. 지금의 완산교 자리는 예전에 소금전이 있어서 염전교 혹은 소금전다리라 불렀다. 소금전을 끝으로 천변의 시장은 끝나고 서문에서 천변을 건너 천양정, 화산서원 등으로 통하는 사마교가 있었다. ‘사마교’는 지금의 신흥학교 부지에 사직과 향교 그리고 생원과 진사들의 집회소인 사마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마교를 지난 서천은 도토리곶, 어은곶, 구석뜸, 청수코टे기 등의 생활용수로 쓰이고 특히 도토리곶 앞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기를 내어 장곶들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을 이용하여 물방아를 돌렸다는 물방앗골, 쌍물방앗골, 비석거리, 숲정이를 지나 ‘모래내’에서 흘러내린 ‘검암천’에 합수된다.

2)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

전주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전주 중앙동 부근의 건물 위에 올라서 보면 전주는 남쪽으로 높은 산줄기에서부터 북진하는 산줄기가 동서 방향으로 뻗어 내리는 형상이다. 현재는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산줄기의 원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지만, 응당 자연적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알맞게 어울려 살아온 선조들의 삶의 태도로 본다면 이 지형적 조건이야말로 전주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었음에 틀림없다.

주변의 자연적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중요한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던 시대 즉 지금부터 약 백년쯤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전주 부성은 바로 그 길고 두툼한 산줄기들의 사위에 포근하게 안겨 있는 모습이다. 전주의 고지도들을 통해서 보면 그 양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되는데, 좌우로 두른 산세는, 동쪽이 그 폭과 산세가 훨씬 품이 넓고 크며 서쪽은 그에 비해 다소 짧고 뭉뚱한 편이다. 어떻게 북을 향해 동서로 뻗은 산줄기 덕분에 그 안의 평야부는 전주부성이 남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평야부가 가련산까지 계속 된다.

조선시대 혹은 이미 그 이전 시기 즉 풍수를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던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지산(乾止山)에서부터 곤지산(坤止山)에 이르는 선은 전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건지산은 현재의 전북대 병원 뒷산을 가리키며 곤지산은 전주소서관 자리, 초록바위 뒷산, 이팝나무 군락지의

봉우리를 가리키는데, 이 두 산의 이름이 바로 주역에서 태극을 중심으로 하는 건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웅당 전주의 간산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건·곤지산의 축을 중심으로 보면 전주의 북서방향에 뚫려 있다. 바로 이 자리가 풍수상으로는 빈곤한 지역이라고 여겨 왔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명이 '진북(鎭北)'이다. 건지산 줄기가 덕진제 앞에서 끝나고 그 맞은편에 솟은 가련산(可連山) 또한 북쪽이 허한 점을 막아보려는 비보풍수적 차원에서 건지산과 이어져야 마땅한 산이라는 의미로 명명된 것이다.

어떻든 세간에서 전주의 지형을 배가 가는 모습(行舟形)이라고 하는 까닭도 그런 지형적 조건에 대한 상상력을 동원한 해석에서 비롯된 일이다. 인간이 이미 자연 위에 군림한 지 오랜 까닭에 산자락 하나쯤이야 맘만 먹으면 잘라내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이미 자연과 조응하는 문화는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로 하대를 받지만, 산자락 하나하나에 부여한 전주 사람들의 상상력은 현대인의 자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 매력이 있다.

우선 중바위에서 출발하여 전주부성의 동쪽을 감싸 안은 산자락의 중심에 기린봉이 있다. 기린봉은 봉우리의 모양이 기린의 등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산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역시 기린의 상서로움을 감안한 것이 틀림없다. 즉 동양에서의 기린은 서양 기린과 달리 상상의 동물이다. 즉 성군이 나서 왕도가 행하여지면 나타나는 상서로운 동물인데 생초를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는다 하여 그 성품이 자애롭고 인자함을 상징하며 그 모양은 사슴 같고 이마는 이리, 꼬리는 소, 굽은 말과 같고, 머리 위에 뿔 한 개가 있다고 한다. 바로 그 상서로운 기린이 전주부성을 감싸 안은 까닭은 이곳이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는 것이 전주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으뜸으로 쳐 기린토월(麒麟吐月)이라 불린다.

중바위에서 오목대에 이르는 산줄기를 발산, 발리산이라고 부른다. 발산(鉢山)과 발리산(發李山)은, 하나는 중바위와 관련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목대, 오목대와 관련된다. 발산이 중바위와 관련되는 것은 발(鉢)이 중들이 사용하는 밥그릇 즉 바리때라는 뜻으로 산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상상하는 데는 그 주봉이 중바위(僧岩山)²²⁾인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발리산은 말 그대로 이씨들이 발원한 산이란 뜻으로 태조 이성계의 고조인 목조²³⁾가 이곳에서 성장하였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종종 이 산을 그저 이목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목대에는 예전에 호운석이나 장군수와 같이 목조의 유년기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인 듯하다.

호운석은 목조가 유년기에 아이들과 더불어 병정놀이를 하곤 하

22) 이곳은 현재 치명자산으로도 불린다. 근자에 이곳에 천주교단에서 순교자의 묘역을 조성하여 성지화하였다. 이곳에 묻힌 천주교 순교자는 유항검과 그의 처 신희, 큰아들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 둘째 아들 유문철과 제수 이육희, 조카 유중성 등 일곱사람이다. 이들은 순조1년(1801) 신유박해 때 4개월에 걸쳐 전주남문밖 전주옥과 북문밖 숲정기 등에서 처형되어 멸족되었다. 살아남은 노복들과 친지들이 은밀하게 사체를 거두어 완주 이서 제남리에 가매장하였다가 1914년 전동성당 보두네 신부와 신도들이 이곳에 이장하였다. 순교자묘는 지방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분들의 숭고한 순교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1994년 묘 아래 성당을 지었다.

23) 목조의 이름은 안사(安社)로 그는 전주의 토호이었으나 지전주사(知全州事)와 산성별감(山城別監)의 비위를 거슬려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눈치 채고 가솔과 토착인 170여 호를 거느리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삼척에 정착한 지 얼마 뒤 공교롭게도 전주 산성별감이 삼척 안렴사(安廉使)로 부임하여 다시 일행을 거느리고 의주로 옮겼다. 얼마후 의주가 원나라에 예속되고 안사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자 원나라에서는 그에게 다루가치라는 벼슬을 제수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였는데, 어느날 비가 몹시 내려서 바위 밑으로 뚫린 굴로 비를 피해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아이들을 위협했고, 그 때 아이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 호랑이 앞에 던지고 호랑이가 문 옷의 임자가 아이들을 대신하여 호랑이의 먹이가 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조의 옷을 호랑이가 물게 되었고, 목조가 먹이가 되기 위해 굴에서 나가자 그만 굴이 무너져 그만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목대에서 뻗어내린 산줄기의 끝자락에 오목대가 있다. 오목대(梧木臺)는 이성계가 고려말에 지금의 운봉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돌아오다가 승전을 자축하여 연회를 베풀었던 자리이다. 이때 이성계는 자신이 대업을 이룰 뜻을 암시했었고, 그를 간파한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지금의 남고산성 성벽의 하나인 만경대에 올라 이성계를 경계하는 글을 바위에 새겼다고 한다.

어떻든 그렇게 보면 발리산, 이목대, 오목대는 모두 조선 건국조 이성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산줄기의 끝자락에 태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경기전(慶基殿)을 세워 둔 점도 이곳이 조선 왕조의 성지 중의 으뜸가는 성지였음을 시사한다. 이 산을 중심으로 한벽루가 있다. 이곳은 임실 슬치에서 발원하여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천이 시작되는 곳이다. 예전에 물이 많던 시절에는 한벽청연(寒碧淸煙)이라 하여 한벽루 앞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서서히 사라져 가는 모습이 또한 절경이라 하였으며, 오목대 남쪽에 자리한 향교와 오목대가 또한 가까워 전주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전주천을 바라보며 풍취를 즐겼 왔던 명소였다.

그러니 조선을 제국주의의 제물로 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곳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 들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인들이

파괴를 일삼으면서도 명분은 개발이었던 것처럼 이곳 역시 철로 개설이라는 명분으로 이목대에서 오목대로 이어지는 발리산의 정기를 잘라냈던 것이다. 조용한 산자락에서 둘러 앉아 낭랑하게 글을 읽던 향교 뒤로 또 전주천을 바라보며 시를 읊던 한벽루를 떨거지로 남겨 초라하게 만든 채 일제의 철로는 조선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지나다녔을 것이다.

이때 구한말 전주의 큰 선비이었던 흠재(欽齋)²⁴⁾ 최병심 선생의 서술 퍼런 저항이 자만동, 옥류동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다. 당시 금재 선생의 집이 향교 뒤 지금의 자만동 근처였다고 한다. 이곳에 철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자락을 파헤치는 것에 분개한 선생은 부득불 철로로 끊긴 발리산의 정기를 다리로나도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차의 진행을 몸으로 막아섰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목대와 이목대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기차가 이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다가 다리가 놓이고 나서야 기차가 제대로 이곳을 다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중바위에서 기린봉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에서 곁가지로 흘러내리는 산자락 끝에 간납대라는 곳이 있다. 이는 사간과 헌납을 지낸 이기발, 이흥발 형제가 병자호란으로 청나라에 굴욕적인 조약이 맺어진 후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였다는데서 그 벼슬 명칭을 따 만들어진 이름이다.

지금의 기린봉은 마당재와 가재미²⁵⁾가 모두 개발이 된 상태이기

24) 이 지역에서는 한자음과 ‘흠재’로 불리지 않고 ‘금재’로 불린다. 이 글에서도 이후 금재로 명명하기로 한다.

25) ‘가재미’는 중세국어 ‘ㄱ’+‘-의/애’+‘뫼’가 합해진 구 구조의 단어로 판단된다. ‘ㄱ’은 ‘가장자리’라는 뜻이어서 ‘가재미’는 전주부성을 기준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산’이란 뜻이다. 그러나 속설로는 가재미의 발음을 음

때문에 치맛자락처럼 펼치던 산으로서의 기개를 잃은 지 오래다. 하지만 100년 전 기린봉은 마당재를 넘어 서낭댕이로 이어져 반대산으로 솟아오른 산자락 하나와 가재미를 지나 안골 뒷산, 도당산에서 솟아오른 사위로 그 산기운을 굽이굽이 펼쳐 그 넓고 깊은 사위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우선 기린봉을 지나 마당재를 넘어 서낭댕이, 반대산으로 뻗어내는 산줄기로 시선을 옮겨보자. 반대산 줄기에서 처음 만나는 마당재는 말 그대로 고개이다. 고개가 마당처럼 넓어서 마당재라는 이름이 붙은 셈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서 고려시대에는 야단이 설치되고 법석이 열렸다고 한다. 당시에도 기린봉 자락에 있는 선린사가 그 법회를 주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이 초파일 야단법석이 열리던 곳이었다고 하니 마당재가 그냥 마당재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마당재를 넘어가면 한배미를 거쳐 아중리 저수지, 왜망실²⁶⁾로 가는 길이다. 예전에 나무를 해서 살아가던 시절에는 마당재를 넘어 왜망실까지 나무하러 가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니, 전주 사람들에게 마당재는 이래저래 사연이 깊은 곳이겠다.

마당재에서 인봉리를 감싸고 도는 산자락은 술대백이²⁷⁾를 지나 서낭댕이로 이어진다. 서낭댕이는 전주의 동북부 지역으로 나가는 길목이다. 즉, 서낭댕이를 넘어 서면 모래내, 안골, 안덕원을 거쳐 소양, 진안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다. 지금 서낭댕이에는 굽은 소나

차하고 그에 어울리는 한자어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장피(可葬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는 묘를 쓰기에 좋은 산이라는 뜻이다.

26) ‘왜망실’은 ‘왜(倭)+ 막(幕)+ 실(谷)’의 합성어로 왜란 당시 왜인들이 그 곳에 막을 쳤던 동네라는 뜻이다.

27) ‘술대백이’는 ‘술대+ 박+ -이’의 구성으로 ‘술대’가 박혀 있는 곳이란 뜻이다. 여기서 ‘술대’는 ‘숯대’가 서 있던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 하나와 이곳이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설명비가 서 있어서 시간의 다리를 놓고 있다. 서낭당이 왼편으로 솟은 봉우리에 지금의 동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그 뒤로 솟은 봉우리가 반대산 혹은 반다뢰이다. 그곳에 여단터²⁸⁾가 남아 있다. 여단은 조선시대 도시를 형성할 때 종묘, 사직 등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국가에 극심한 가뭄과 같은 재해가 있을 때 하늘에 제를 올리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주부성과 관련된 조선시대 전주의 범위는 이 반대산 자락 안쪽까지를 전주부성 지역이라고 할 만하다.

이 반다뢰 기슭에 무랑물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주 유씨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전주부성을 인접한 동네 가운데 무랑물²⁹⁾은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남향반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적당한 정도의 농토를 확보하고 있어서 여타의 동네에 비해 마을 조성의 입지적 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다시 기린봉에서 가재미 골짜기를 따라 가보면 도당산에 이른다. 도당산은 지금의 전주역쪽으로 한 줄기를 뺏어내리고 다른 한 줄기는 서쪽으로 틀어 매봉산으로 향한다. 가재미에서 도당산 그리고 도당산에서 매봉산쪽으로 뺏은 각진 산줄기에 들어앉은 동네가 안골이다. 안골은 서낭당을 넘어 소양, 진안 방향으로 가는 길과 전주부성의 북문을 나와 진밭들을 지나 명짓골, 아리랑 고개를 지나 고산으로 가는 길 사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골짜기

28) 여단터 아래로 일제시대에 형무소가 들어선다. 여단터에 형무소를 만든 것 역시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29) ‘무랑물’은 흔히 ‘물(水)+왕(王)+물(마을의 중세국어 형)’이 합하여진 지명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발음에서 비롯된 한자식 음차지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에 들어앉은 마을이다.

한편 매봉산으로 흘러내린 도당산 줄기는 칼바우 쪽으로 한 가닥을 내리고, 다른 한 가닥은 북으로 흘러 지금의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사이를 지나 전북대 농과대학 쪽에서 마무리 된다.

한편 도당산과 매봉산 중간에 북쪽으로 산줄기가 뻗어 도천봉에 이른다. 도천봉은 동서로 한 줄기가 뻗고 북으로 다른 한줄기가 뻗어 장구봉으로 이어진다. 장구봉에서 갈미봉, 건지산을 지나 덕진연못 제방에서 기린봉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자락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백여 년 전 전주의 동부 산간을 형성하는 이 산줄기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자연부락들이 들어 서 있었다. 발리산과 간납대 사이에 낙수정, 지금은 군경묘지로 통하는 곳은 해방 후 피난민들이 들어와 정착한 마을이어서 백여 년 전에는 동네로서의 규모를 가진 주거지는 아니었던 듯하다. 다만, 발리산 줄기를 넘어 발리산 기슭에 자만동과 옥류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이렇다 할 농지를 갖지 못한 지역이어서 마을이 있었다고 해도 그 규모는 매우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납대와 마당재 사이에 참나무정이, 웃마당재, 아랫마당재라는 자연부락들이 있었다. 이곳 역시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곳들이어서 농경 중심의 조선 시대에 큰 마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마당재에서는 주로 예전에 묵을 만들어 연명했다고 한다. 마당재에서 서낭당으로 넘어가는 산록에 인봉리가 있다.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그 근방에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가재미와 안골, 큰 모래내, 작은 모래내 등은 각각 기린봉의 북쪽 산록에 형성된 마을, 한배미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모래내로 이어지며 하천 주변의 작은 다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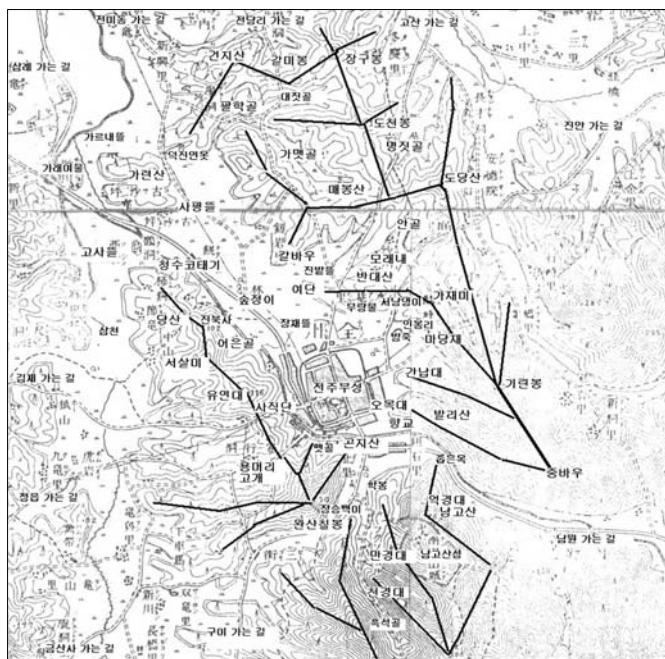
논들에 붙어 연명한 작은 마을들이 있었으며, 큰 모래내에 와서야 들다운 들 진밭들을 거느린 검암을 만나게 된다. 진밭들, 진밭다리 등은 반대산 자락 북쪽 매봉산 자락 앞쪽의 긴 골짜기 사이로 길게 흐르는 모래내를 따라 형성된 들녘으로 ‘진밭’은 ‘길-+-ㄴ’에 ‘밭’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지명으로 말 그대로 ‘긴 밭 들’ 즉 ‘길게 형성되어 있는 밭들이 모여 이루어진 들’이다.

‘검암’은 ‘앞검암’, ‘뒷검암’으로 나누어진다. 구암산 즉 지금의 KBS 방송국과 교통정보센터가 자리한 구암산(九巖山)을 중심으로, 앞검암은 진밭들을, 뒷검암은 사평들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구암산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아홉 바위가 있어서 생긴 이름인 듯하다. 지금도 그와 관련된 바위 이름들이 노년층 제보자들 사이에 회자되곤 한다.

‘검암’은 지금의 금암동이란 동 명칭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고유어로는 ‘칼바우’다. ‘칼바우’은 지금의 전주 KBS에서 기린로 쪽으로 내려선 바위를 가리키는데, 이 바위가 진복사 앞에 있었던 범바우와 마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진복사 쪽의 범바우가 그 드센 기운을 드러내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이 칼바우였다고 한다. 칼바우 끝에는 ‘배맨바우’가 있었고 ‘배맨바우’ 주변을 ‘배맨자리’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모두 기린로가 개설되고 그 자리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KBS방송국 정문 앞에 공알바우가 있었는데, 뒷검암 사람들은 이 공알바우에 떼를 입혀 두었다고 한다. 이 떼가 벗겨지면 뒷검암리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앞검암리 사람들이 자꾸 떼를 벗기는 바람에 마을 간에 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이 바위 또한 전북대 신정문 앞에서 전주고에 이르는 남북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어쨌든 ‘검

암'은 왜정시대에 들어 '금암(金巖)'으로 바뀌게 된다. 아마도 '범바우'의 기운을 막을 '검암'이 사라질 운명이 이 당시부터 예정되었던 것은 아닐까.

중바우에서 시작되어 기린봉에서부터 그 사위가 갈래를 타고 오르고 내리며 전주부성의 동부지대를 겹겹이 둘러싸던 산자락들은 네 줄기의 물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마을들이 들어서 다량다량 붙은 논배미 밭 띄기에 매달려 연명해 온 셈이다. 불과 백여 년의 세월 동안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산도 물도 자연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고 도심의 일부가 되어 세월과 콘크리트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림 5. 전주부성과 주변의 산줄기(김규남 · 이길재 2001: 28쪽)〉

3)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

중바우에서 칼바우까지가 전주의 중심부를 감싸는 동편 산줄기라고 한다면, 좁은목에서 청수코테기까지는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북진하며 전주부성을 감싸는 산줄기를 일컫는다. 전주부성의 남부 지역은 두툼한 고봉으로 막힌 듯하지만, 임실 슬치에서 발원하여 전주로 흘러들어 오는 전주천 물길이 흘러 들어오며, 중바우와 남고산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중바우 쪽의 산줄기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주의 동부지역을 감싸고, 남고산에서 시작되는 산줄기는 학봉, 완산칠봉, 다가산, 유연대를 지나 청수코테기까지 전주천의 물줄기의 방향을 인도하며 전주의 남서부 지역을 감싸고 돈다.

남고산이 한벽루를 바라보며 가파르게 내려앉은 끝자락이 ‘좁은목’이다. ‘좁은목’은 말 그대로 남원, 임실, 관촌, 상관 방향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며 가파른 산자락을 따라 휘돌아 들어서며 좁다란 길목을 형성하는 곳이다. ‘좁은목’과 더불어 남고산 기슭을 타고 들어오는 또 다른 길목으로 ‘노루목’이 있다. 이곳이 ‘노루목’이 된 까닭은 맞은 편 중바우 기슭은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형국이며, 이곳은 노루가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숨을 곳을 찾아 날뛰는 형국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전주시지 1997, 119쪽). 이는 여느 풍수지리상의 설명보다 재미나고 동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여서 흥미롭다.

노루목을 넘어서면, 전주부의 부남면 반석리이고, 노루목에서 남고산 정상을 향해 가파르게 올라서면, 남고산성을 만난다. 남고산성은 둘레가 약 5400미터에 이르며 후백제의 옛 성터라고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남고산성은 조선 순조 11년(1811년)에 관찰사 이상

황(李相璜)이 증축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종 8년 관찰사 이호준(李鎬俊)이 부남 삼리 반에 남관진(南關鎭)을 설치하여 남원에서 오는 도로를 지키게 하고, 남고산성 별감으로 하여금 겸직하여 6개월 교대로 주둔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전주를 엄호하는 주요 방어진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고종 32년 남고산성 별장과 더불어 남관진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남고산성에는 억경대, 만경대, 천경대가 있는데, 각각의 봉우리에 올라서면 억, 만, 천 가지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고산성 내에는 웃산성과 아랫산성으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이곳은 산성이라는 말마따나 난을 피해 들어오거나 세상을 등지고 들어와 살던 사람들에 형성된 마을이었다. 웃산성 안에는 관왕묘(關王廟)가 있는데, 이는 고종 34년(1895년) 전라도 관찰사 김성근과 남고별장 이신문의 발기로 각처 유지의 헌납을 받아, 관우의 제향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이라고 전한다. 아랫산성은 예전에도 불과 몇 가호에 불과한 조그마한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조선 중기 충신 이정란 선생의 사당인 충경공 사당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루목을 건너면 반석리를 만나는데 아랫산성을 내려 오면서도 반석리를 만나게 된다. 반석리는 조선말기 감영과 부영에 속한 노비들이 이곳에 수백호의 관노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는데, 신분 차별이 엄격하던 시기에 노비들이 옷과 신발을 갖추어 사인교를 타고 혼례식을 치른 것에 대해 이속들이 벌을 준 것이 도화선이 되어 1889년 이곳의 노비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성내에 췌도, 감영 앞까지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감영의 병졸들이 이들을 격퇴하고 반석리를 불태워 버렸는데, 이에 분개한 노비들은 동학군에 들어가 약탈을 자행하자, 이속들은 모두 흩어

져 도망치고, 관아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노비의 근무를 폐지하고 동족의 자제로 충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반석리를 지나면 학봉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학봉 마을은 주로 이속들이 살던 마을이었다고 하며, 남고산에서 뺏어내린 산세가 마치 쌍학이 날개짓을 하는 형국이라는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이전 시기의 학봉리는 전주천에서 산쪽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그 사이는 대부분 ‘미나리깡’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자리는 예전에 ‘사정물’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는 ‘사정(射亭)+물’로 활을 쏘는 정자가 있던 마을이었다. ‘사정물’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지금의 전주남초등학교 자리에 예전에는 소를 도살하던 ‘도수장’이 있었다. 그 길을 따라 곧장 올라가면 ‘공수내’를 만나고 ‘공수내’를 따라 올라가면 ‘흑석골’이다. 흑석골(黑石골)은 한자 뜻 그대로 검은 돌이 많아서 생긴 이름인데, 7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연탄공장들이 많았다고 하며, 물이 좋아서 한지를 만드는 공장들이 들어서기도 했다. 흑석골은 남고산과 고덕산 봉우리로 막혀 있으나 남고산성으로 넘어가는 매봉재, 고덕산을 넘어 구이 평촌, 임실 신평으로 넘어가는 보광재의 길목이었다. 즉 조선시대에 이곳은 근방의 사람들이 전주로 드나들던 주요 관문이었으며 나무꾼이 많던 시절에는 그 길이 달구지가 다닐만큼 넓은 길이었다고 한다. 한편 매봉재에서 내리는 물은 ‘베락수’라는 폭포를 거쳐 내리고, 보광재 쪽에서 내리는 물은 학두암을 지나 용천대라는 폭포를 이루어 흑석골에서 합수하게 되는데, 흑석골의 두무소³⁰⁾는 전주부성 사람

30) 두무소(杜舞沼)는 명나라 이여송의 막료 중 한 사람인 두사청(杜思廳)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에 당도하여 산세를 보다가 명나라 중원의 서주(徐州)와 흡사하다고 감탄하면서 서북쪽의 터진 곳이 있어 수적지(授敵之地)의 형세이며 천혜의 요새라고 경탄한 나머지 스

들의 피서지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두무소를 따라 내리는 물은 공수내(拱水內)가 되는데, 사람들은 공수내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발음과 유사한 데 착상하여 이 다리가 이승을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 저승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다리로 생각해 왔으나 실상, 한자의 뜻대로 예전에 이곳은 물이 많고 물살이 급하여 이곳 공수내에서 센 물살이 굽이치며 포말을 이룬 데서 비롯된 뜻이다.

한편 고덕산, 보광재를 지난 산자락은 장승백이에서 다소 완만히 내려왔는 듯하다가 완산으로 드세게 솟아오른다. 장승백이 역시 구이, 원평 쪽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며, 장승백이에서 전주쪽으로 내려 오다보면 오른편에 ‘미륵댕이’와 ‘제실뜸’을 만난다. 미륵댕이는 이두리라는 총각이 고승을 만나 발복한 후에 땅속에 묻혀 있던 미륵입상을 발견하고 당을 세운 이후 붙여진 이름이다. 제실뜸은 전주최씨의 제실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완산은 백제시대 전주를 나타내는 지명이었던 만큼 전주의 중심이 되는 산이기도 하고 그 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 또한 전주의 주요한 마을 가운데 하나였다. 마을에 들어서기에 앞서 완산의 산세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완산은 일곱 봉우리가 있어 흔히 완산칠봉이라 불리는데, 이철수(1977)에 따르면 내칠봉과 외칠봉, 좌우칠봉으로 나뉘며, 내칠봉은 수봉, 탄금봉, 매화봉, 옥녀봉, 무학봉, 백운봉, 용두봉으로 나뉘며, 외칠봉은 수봉, 검무봉, 선인봉, 목단봉, 금사봉, 도화봉, 매화봉으로 나뉜다고 한다. 각각의 봉우리가 옥녀가 거문고를 타고, 학이 나르며 하얀 구름에 걸린 용의 머리

스로 취해 춤을 추었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두사청이 자연에 취해 진중무를 추었다 하여 이곳을 두무소라 불렀다 한다(전주시지 1997, 120쪽)

가 비치는 듯하다거나 복사꽃 봉오리, 매화꽃, 모란꽃 봉오리 등으로 비유하여 신선세계나 무릉도원을 염두에 둔 명명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녀봉 꼭대기의 금송아지 바위에 얹힌 설화 등은 이곳에 넘나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선인들의 온갖 상상력의 보고이었다. 완산에 대한 소박하지만 주목할 만한 설은 완산이 기러기 형국이어서 마치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어쨌든 항공사진으로 보면 완산칠봉은 아니나 다를까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두 다리를 늘어뜨린 새의 날개짓과 흡사하니 항공사진을 보지 않았을 당시에 그런 혜안을 가졌던 선조들의 통찰력이 결코 황당한 것은 아니었다.

완산의 동남방으로 뻗은 끝 봉우리가 곤지산이다. 이는 주산 건지산과 마주하고 있는 산인데 예전에 이 산의 자락에서 이어진 바위들이 전주천변까지 뻗어 있었고 그 자리가 죄인을 효수하던 곳이어서 초록바위로 불리던 곳이다. 이런 까닭에 비라도 오는 날 저녁에 이곳을 지나려면 모골이 송연하였다고 한다. 완산동은 조선시대 은송리와 곤지리로 나뉘는데, 곤지리는 곤지산 밑 동네를, 은송리(隱松里)는 완산초등학교와 전주천변 사이의 마을을 가리킨다. 곤지리에 는 지금 맏골이라는 전래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매곡교(梅谷橋)라는 다리가 생겨났지만, 기실 맏골은 뗏골 즉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은송리는 지금의 동완산동 지역으로 골목골목이 미로처럼 좁게 형성되어 그 골목을 걷다보면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은송리에는 기령당(예전의 군자정)과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청학루, 백학루 등의 옛 지명이 남아 있어 나이드신 토박이들 사이에는 청학루 골목, 백학루 골목이라는 옛 지명이 종종 회자되기도 한다.

완산의 능선 하나가 용머리고개로 이어져 다가산, 유연대, 영골산, 청수코테기로 흐르는데, 이 또한 항공사진으로 보면 영락없는 용의 모습이다. 용머리고개는 김제, 금구로 나가는 고개이며,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설화³¹⁾가 남아있다. 용머리고개에서 다가산 줄기로 감싸여 전주천변 쪽 사이에 있는 동네는 예전에 빙고리(氷庫里) 즉 얼음 창고가 있던 동네이다. 빙고리 옆산은 다가산(多佳山)인데 다가산 너머에 천양정의 전신인 다가정이 있었다. 다가정에서 화산 공동묘지를 넘어가는 고개를 강당재라고 한다. 강당(講堂)은 대체로 유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지어진 집을 의미하므로 이전 시기에 이곳에 강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어찌이든 이곳이 강도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나 이 또한 발음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상상에 불과하다. 다가산과 유연대 사이를 건너며라 부르는 까닭은 화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연대에는 조선시대 주요 건축물인 희현당이 있었으며 구한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서양식 교육과 종교를 유포한 중심지가 되어 서양문화가 전주에 발흥하는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연대에서 어은골산으로 이어지는 산자락은 가운데 산등성이 하나를 두고 두 갈래로 에워싸는 산세를 형성한다. 그 산 아래 전주천변 쪽으로 자리잡은 동네가 도토리곶과 어은골이다. 도토리곶은 산의 지형이 마치 배의 돛대와 닮았다고 하여 ‘돛대곶’로도 불렸다.

31) 강감찬 장군이 이곳에 머물던 해, 가뭄이 몹시 심했던 어느 날 지나가는 초립둥이를 불러들여 이렇게 가뭄이 심한 데 그냥 지나서야 되겠느냐고 호통을 치며 만약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호령했다. 그리하여 다음날 비가 내렸는데, 바로 그 초립둥이는 용이 둔갑하여 사람행세를 한 것이었고 비를 내리게 한 뒤 그 용은 이곳에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강감찬은 그 용을 후히 장사지내 주었다고 한다.

어은골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들이 은둔했던 은사골로 알려진 곳이며, 숨은 잉어의 혈이 있어서 어은골(魚隱골)로 불린다고 하나, 이미 촌로들 사이에서는 전주천에 있는 고기가 숨었다가는 곳이라 하여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통한다. 어은골산은 엉골산, 서살미, 엉골뒗산, 서산 등으로 불리며, 이산 끝자락에 진북사가 있다. 진북사는 범바우 앞에 지어진 절이라 하여 범바우절이라고도 불린다. 범바우는 부엉바우라고도 불렀는데 일제시대 발파되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범바우는 특히 검암 칼바우와 서로 마주하며 세력의 균형을 맞추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허두 부분 참조). 진북사(鎭北寺)는 전주의 풍수상 북서부 지역이 허하여 지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비보풍수의 의미에서 건립된 절이다.

‘엉골뒗산’을 지난 산줄기는 ‘바구멀’, ‘잣뜸’을 지나면서 낮은 봉우리를 이루고 다시 세 가닥으로 나뉘며 고샅들을 향해 뻗어 내린다. 서남쪽으로 뻗은 자락은 메너머, 다른 하나는 전룡, 또 다른 한 줄기는 감나뭇골을 형성한다. 감나뭇골에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들 가운데 새터와 구석뜸 그리고 바구멀이 있다. 이곳에 여러 마을들이 몰려 있는 까닭은 그 앞으로 펼쳐진 고사평이 있어 농사지을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구멀은 파구리(波龜里)라고도 하였는데 거북바우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바구멀과 잣뜸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그 근처를 장고개라 불렀다. 이곳은 메너머, 전룡, 감나뭇골에서 전주부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이 서기도 하고 주막이 있기도 했던 연유로 형성된 지명이다. 바구멀을 지나 청수코테기가 용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용의 꼬리 끝자락이 되는 셈이다. 청수코테기 앞쪽에서 전주천과 모래내가 합수하여 가르내를 형성

하게 된다.

3. 행정 명칭의 변화와 전주의 확장

조선시대 말기 전주는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부성의 서남부지역에 조밀하게 형성된 주민 거주지역과 남북으로 뻗은 산자락에 기대어 형성된 크고 작은 마을들이 들어선 아름다운 고도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후부터 전주는 식민도시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그 아름다운 고도의 위용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의 도시화 과정은 시구개정과 시가지 계획에 의해 전주 부성과 그 주변이 도시화된 시기, 해방과 동란 직후의 공백기, 1960년대 이후의 도심 확장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전주성의 파괴와 식민 시대

전주부성이 그 위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사건은 우선 동학군의 전주부성 공격에서 비롯된다. 동학군은 전주부성을 함락시키기 위하여 완산칠봉, 다가산, 유연대 등의 능선에 진을 치고 서문밖장이 서는 날 완산칠봉의 야포 공격을 신호탄으로 전주부성을 공격하는데 이 때 관군과 동학군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북문에서 서문을 지나 남문에 이르는 민가뿐만 아니라 성곽의 서반부가 심하게 파괴되었다. 이때 파괴된 성곽은 1907년 전군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도 방치되었으며 을사조약 이후 식민지 수탈의 거점도시인 군산까지 양곡을 수송하기 위해 전군가도가 개설되면서 성곽의 서반부가 철거되게 된다.

성곽의 철거는 비단 그 목적만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처음 전주에 들어와 거주하게 된 곳은 서문밖, 지금의 다가동 근처 전주천변 지역이었는데, 당시 성안과 성밖은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함부로 성 안 출입을 할 수 없었다. 그로 말미암아 주거는 물론 상행위에 지장을 받게 된 일본인들은 전주부성의 서쪽 성곽을 파괴함으로써 성안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1911년에는 남문에서 동문을 거쳐 북문에 이르는 성곽의 동반부마저 철거되고 성곽 철거와 더불어 부성 내의 건물들도 철거되기 시작한다. 1921년 전주 감영은 도청본관이 신축되면서 철거되고 같은 해 비장청마저 매각되어 완산동으로 옮겨져 청학루가 된다. 부영 건물은 1934년 철거되고 그 자리에 군 청사가 들어섰다가 1961년 신축 시청사로 사용된다. 그로 말미암아 전주부성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들이 대체 되면서 천년 고도 전주는 식민도시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식민도시화의 합법적 장치는 이른바 1912년 발령된 시구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로 정비와 도로 개설이라는 명목하게 성곽 파괴가 이루어진다. 파괴된 성곽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고 개설된 도로를 따라 일본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된다. 제2차 시구개정은 1913년에서 1914년까지 두 해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전주우체국에서 북문까지의 노선과 전주우체국에서 남문까지, 서문에서 남문까지, 남문에서 경기전까지의 길들이 만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전주에서 익산간 부정규 노선인 협궤 간이철도가 개설됨으로써 1914년 이른바 경편철도가 개설되고 그 역이 지금의 전매청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14년 전라북도 고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대정정, 본정 등의 왜식 행정 명칭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대정통, 본정통 등의 일본식 지명이 횡행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왜식 행정 명칭 변경표〉

구한말	1914년	구한말	1914년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1정목	부동면 1,2,5계 일부	풍납정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2정목	부동면 4,6계 일부	화원정
부서면 1,2계 일부	대정정 3정목	부남면 곤지리 은송리 일부	완산정
부서면, 2,3,4계 일부	대정정 4정목	조촌면 상가리 일부	덕진정
부동면, 3,4계 일부	대정정 5정목	부북면 3, 4리 일부	상생정
부동면 6계 일부	대정정 6정목	부북면 노송리 일부	노송정
부동면 6계 일부	대정정 7정목	이동면 검암리 일부	검암정
부남면 2계 일부 부남면 방천리 일부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1정목	부남면 구석리, 방천리, 부남면 1계, 부동면 1계 일부	대화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2정목	이동면 인후리 일부	인후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3정목	이동면 서신리 일부	서신정
부서면 4계 일부	본정 4정목	이동면 화한리	화산정
부서면 3, 4계 일부	다가정	부북면 1,3리 일부 부남면 1계 일부	고사정
부서면 2계 일부 부서면 1계 일부	팔달정	부남면 반석리 일부 부남면 사정리 일부	서정
부남면 교동, 한계리, 구석리, 4계 일부	청수정	부북면 3,4리 일부	상생정
이동면 검암리 일부	소화정	*	*

제3차 시구개정은 1924년에서 1934년까지 시행되는데 이 때 기준 가로로 하수도 공사와 기타 시가지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된다. 이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전주역의 이전과 25m폭의 광로가 개설된 점이다. 1929년 정규철도가 개설되고 전주역이 이전됨에 따라 북문에서 전주역까지 광로가 개설되며 이 도로에서 같은 폭으로 객사 부근까지 팔달로가 개설된다. 팔달로라는 명칭은 지금의 도청

자리에 있던 팔달루에서 비롯된다. 한편, 북문에서 전주역까지의 도로로는 역전통이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1930년대를 전후하여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이 형성되는데, 오목대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전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 무렵 지금의 공원지역과 덕진광장, 전주역 광장(지금의 시청 광장) 등이 공원 지역과 광장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제시대에 들어 신설된 도로망을 따라 신축된 여러 건축물들은 그 자체가 지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27년 전북제사주식회사, 1928년 편창 제사방적주식회사가 진북동에 들어서게 되며, 각각 제사공장, 종방 등으로 불렸다. 지금은 그 자리에 우성아파트와 덕진구청이 들어섰다. 1902년 현 전주우체국 자리에 우편수치소가 설치되었다가 1906년 전주 우편국으로 바뀌었으며, 본정 우편국은 다가동 우체국으로 불리다가 최근 청석동 우체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어 1936년 고사동 우체국에 고사정 우편국이 설치된다. 1906년 신흥학교, 1909년 기전학교가 중화산동의 유연대 일대에 설립되고, 전주초등학교의 전신인 전라북도 공립소학교가 1897년에 교동에 세워졌다가 1914년 전주 제일보통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25년 지금의 전주초등학교 자리로 옮겼다가 1941년 전주 상생학교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다가동에는 사립학교인 양영학교가 세워졌고, 향교 명륜당에는 사립 전주 유치학교가 세워지는데, 이들이 합쳐져서 제2보통학교가 되었다가 후에 완산초등학교가 된다. 전주농고의 전신인 농림학교는 1910년 현 전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자리에 세워졌다가 같은 해 현재의 병무청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11년 전주농업학교로 개칭 194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다. 전주상고는

1937년 노송동의 현 위치에 전주공립중학교라는 명칭으로 세워졌다가 명칭만 바뀐 채 지금에 이른다. 1916년 간이공업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동에 세워졌다가 1938년 공업학교로 명칭을 바꾼 전주공업고등학교는 1950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다. 노송동의 전주고등학교 자리에는 관립 전주고등보통학교가 1919년에 세워졌다.

2) 해방과 동란 직후

해방 직후 전주는 팔달로 일부가 확장 개설되면서 그 주변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전주가 시로 승격되면서 왜식 행정 명칭이 진행되며, 진밭들이 택지지구로 개발되게 된다. 특히 민족 동란으로 말미암아 생긴 난민들을 위해 농원마을과 숙사가 조성되어 '새 동네'라는 이름으로 집단 정착하게 된다.

1946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왜식 명칭인 정(町)이 동(洞)으로 바뀌지만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의 것을 따르게 된다.

〈1946년 행정 명칭 변경표〉

1914년	1946년	1914년	1946년
대정정 1정목	망성동	회원정	회원동
대정정 2정목	선화동	완산정	동완산동
			중완산동
			서완산동
대정정 3정목	중앙동	덕진정	덕진동
대정정 4정목	문화동	상생정	동태평동
			서태평동
대정정 5정목	경동	노송정	동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서노송동
대정정 6정목	동인동	검암정	동금암동
			서금암동
			남금암동
			북금암동
대정정 7정목	관선동	대화정	남전동
			북전동
본정 1정목	남계동	인후정	인후동
본정 2정목	청석동	서신정	서신동
본정 3정목	서인동	중산정	중산동
본정 4정목	대 동	고사정	남고사동
			북고사동
다가정	다가동	서 정	서학동
팔달정	중 동	소화정	진북동
청수정	교 동	풍남정	풍남동
화산정	남화산동	*	*
	북화산동		

1957년 전주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구역 변경과 더불어 다시 한번 행정명칭이 바뀌게 된다.

〈1957년 행정 명칭 변경표〉

1946년	1957년	1946년	1957년
망성동	중앙동 1가	동태평동	태평동 1가
선화동	중앙동 2가	서태평동	태평동 2가
중앙동	중앙동 3가	동노송동	중노송동 1가
중 동	중앙동 4가	중노송동	중노송동 2가
문화동	경원동 1가	남노송동	남노송동
경 동	경원동 2가	서노송동	서노송동
화원동	경원동 3가	동완산동	동완산동 1가
동인동	풍남동 1가	중완산동	동완산동 2가
관선동	풍남동 2가	서완산동	서완산동 1가

풍남동	풍남동 3가	남완산동	서완산동 2가
남전동	전동 1가	동서학동	동서학동 1가
북전동	전동 2가	산성동	동서학동 2가
남계동	전동 3가	서서학동	서서학동
청석동	다가동 1가	북화산동	중화산동 1가
다가동	다가동 2가	중산동	중화산동 2가
서인동	다가동 3가	진북동	진북동
대동	다가동 4가	남금암동	금암동
남고사동	고사동 1가	인후동	인후동 1가
북고사동	고사동 2가	동금암동	인후동 2가
동교동	교동 1가	덕진동	덕진동 1가
서교동	교동 2가	서금암동	덕진동 2가
서신동	서신동	북금암동	덕진동 2가

두 차례에 걸친 행정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골격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왜식으로 바꾼 후의 지역 분할 방식을 큰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관행에 대한 철저한 비판 없이 사용해 온 불행한 역사의 일부인 셈이다.

한편, 동란 직후 전주에 유입된 난민의 수는 약 이만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전주시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형 주택 120호와 도시형 주택 100호를 짓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농원마을, 숙사 등으로 불렸다. 전주시내에 있는 농원마을은 세 곳이 있는데, 각각 인후동과 교동, 남송동에 있다. 인후동에는 안골 서쪽 산등성이, 교동은 군경묘지 입구 낙수정 마을 앞, 남송동은 참나무정이 옆에 각각 자생적 형태로 마을이 형성된다. 숙사 마을은 인후동에 두 곳, 덕진동에 한 곳이 있었다. 인후동 전주농업고등학교 뒷산에 구숙사가 있고 명짓골 서쪽에 신숙사가 있다. 덕진

동에는 지금의 여성회관 자리에 숙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정비되어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마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주 시내 곳곳 완산동, 인후동, 진북동, 교동 등에 정착하게 된다. 완산동은 곤지산 등성이, 인후동은 현재의 보문촌, 교동은 오목대 아래 쌍시암 주변, 진북동은 어은골의 진북사 부근에 난민들이 정착하게 되는데 이 동네들은 새동네라고 불리게 된다.

한편 구한말 전주군에 속하였다가 1957년 전주시로 편입된 전주의 외각 지역의 행정 명칭 변경은 동별로 정리하여 표만 제시하기로 한다.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우림면	꽃밭정이	전주군 우림면 석불리	구 화	완주군 우전면 석불리	전주시 평화동 1가
	네거리		묘 동		
	감나뭇골		홍 수		
전주군 난전면	만넛골	전주군 난전면 장천리	장 천	완주군 우전면 장천리	전주시 평화동 2가
	짓 골		지 시		
	구석뜸		구 석		
	매두리		상 구		
	대정리		하 구		
	산정리		대 정		
	문정리	전주군 난전면 문정리	산 정	완주군 우전면 문정리	전주시 평화동 3가
	중평리		문 정		
	부평리		중 평		
	작지리		부 평		
	용와리		작 지		
	장교리		용 와		
	상평리		장 교		
			상 평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우림면	세 내	전주군 우림면 태평리	삼천리	완주군 우전면 태평리	전주시 삼천동 1가
	용흥리		농포리		
	상거마		상거리		
	하거마		하거리		
	만수동	전주군 우림면 계용리	만세리	완주군 우전면 계용리	전주시 삼천동 2가
	우목실		우목리		
	쌍자동		쌍자리		
	함 대		함대리		
	용산리		용산리		
	비아동		가용리		
	장동리	전주군 우림면 안산리	정동리	완주군 우림면 안산리	전주시 삼천동 3가
	석산리		석산리		
	모과동		모과동		
	범안굴		호동		
	삼산리		삼산리		
	능 안		능내리		
	삼 동		도리리		
	장재울	전주군 우림면 송정리	장자동	완주군 우전면 송정리	전주시 효자동 1가
	새 터		신기리		
	송정리		송정		
	신 리		신리		
	신봉리		신봉		
	쌍룡동	전주군 우림면 효자리	쌍용	완주군 우림면 효자리	전주시 효자동 2가
	안행동		안행		
	효자리		효자		
	후곡리		후록		
	구룡리		구룡		
	한절리		한절		
	새 터		신기		
	범암리		호암		
전주군 이동면	신주리	전주군 이동면 홍산리	신주	완주군 우전면 홍산리	전주시 효자동 3가
	봉강리		봉강		
	여 매		호산		
	서우리		서우		
	서중리		서중		
	섯골		용암		
	목고실		속거		
	жат 골		척동		
	마 랫		마전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조촌면	덕촌리	전주군 조촌면 유제리	덕촌	완주군 조촌면 유제리	전주시 팔복동 3가
	감천리		감천		
	신행리		신행		
	버드랑죽		유제		
	비석날	전주군 조촌면 동곡리	예암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전주시 팔복동 2가
	가르내		구주리		
	새터				
	매화동		매화		
	반용리		반용		
	유상리		유상		
	학상리		학상		
	신복리	조촌면 신복리	신복	완주군 신복리	팔복동 1 가
	오송리	전주군 조촌면 오송리	오송	완주군 조촌면 오송리	전주시 송천동 1가
	신평리		신평		
	팔학동		팔학동		
	용소리		용리		
	붓 내	전주군 조촌면 시천리	붓내	완주군 조촌면 시천리	전주시 송천동 2가
	동역골		신동		
	버들다리		유교		
	와룡리		와룡		
	용흥리		용흥		
	용소리		용소		
전주군 회포면	진조리	전주군 회포면 전당리	진조	완주군 초포면 전당리	전주시 전미동 1가
	백석리		백석		
	신봉리		신봉		
	은평리		은평		
	연봉리		연봉		
	회룡리	전주군 회포면 미산리	회룡	완주군 초포면 미산리	전주시 전미동 2가
	주정리		주정		
	숨 멀		화리		
	진기리		진기		
	월평리		월평		

구한말		1914년		1935년	1957년
전주군 회포면	배미실	전주군 회포면 신성리	이리	완주군 초포면 신성리	전주시 호성동 1가
	텃골		신정		
	초당		정주		
	만수동		만수		
	섬뜸		행주		
	수막뜸		신주		
	동산리		동산		
전주군 소곡면	방죽안	전주군 초곡면 봉암리	제내	완주군 초포면 봉암리	전주시 호성동 2가
	봉바우		봉암		
	범바우		호암		
	화정리		화정		
	농은리		농은		
전주군 초곡면	고당리	전주군 초곡면 송전리	고당	전주군 초포면 송전리	전주시 호성동 3가
	솔밭뜸		송전		
	용흥리		서주		
	중오리		중오		
	습멸		용주		
	새터		신흥		
	오매		오산		
전주군 용진면	행나무뜸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상중	완주군 용진면 아중리	전주시 우아동 1가
	제전리		재전리		
	용계리		용계리		
	아하리		아하리		
	새터		신동리		
	갓바우		관암리		
	문수굴		무릉리		
	은행다리		인교리		
	석소리	용진면 석소리	석소리	완주군 용진면	우아동 2 가
	새터		새터		
전주군 초곡면	안덕원	초곡면 우방리	안덕리	완주군 초포면 우방리	우아동 3가
	장재리		장자리		
	반암리		반암리		
전주군 부북면	새터	부북면 석소리	신기리		
	백동리		백동리		

1957년 전주시의 행정 구역이 확장된 이래, 전주의 서부는 남고산에서 서살피로 이어지는 산자락에서 고덕산 자락과 모악산에서 황방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동부는 중바우에서 건지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중바우에서 소리갯재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그 품을 넓히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전주의 도시 확장 시기 동안에 전주는 이 지역들을 개발함으로써 대규모 인구유입과 더불어 준 광역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3) 196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 전주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주로 전주부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주의 도심이 전주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도시의 확장은 농경지대에 택지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주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농경지대로, 진밭들, 장랫들, 용산들, 사평들이 있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마을들이 사라지고 지명 역시 개발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

70년도 후반 무렵에는 전주의 동북방 산간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개발 당시에 붙여진 지명이 사용되고 있는 육지구가 그것이다. 육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전주역이 현재의 시청 자리에서 현재의 전주역 자리로 옮겨가고 전주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로 말미암아 전주의 도심 확장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즉, 전주역이 옮겨감에 따라 전주역에서 팔달로까지 백제로가 뚫리고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이 가속된다. 또한 팔달로에서 서신지구, 효자지구의 개발 역시 전주역의 이전에서 비롯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전주의 도심 확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과정을 항공사진을 통해 자연부락이 사라지고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그림을 중심으로 사라진 자연부락들을 확인해 가기로 한다.

(1) 1960년대 초 진밭들, 장젯들, 용산들, 사평들 개발

60년대 초 진밭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 되면서 택지와 상가지역으로 개발됨으로써, 진밭들이 사라지게 되고, 장젯들도 63년 이후 개발이 착수되어 60년대 말 개발이 완료된다. 당시 장젯들에는 일제시대 종방 자리에 삼양사가 들어서 있었고, 모래내와 전주천이 합류되는 지점 부근에 미군정 시대에 만들어진 비행장이 있었으며, 그 옆에 숲정이 마을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에서 모래내와 전주천이 만나는 부근에 하얗게 가려진 부분이 장젯들에 있었던 활주로이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용산들과 사평들이 건재해 있으며 용산리와 들사평, 떡정 등의 자연부락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78년의 항공사진에는 용산들과 사평들이 모두 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용산리, 떡정, 들사평과 사평 등의 자연부락들이 그 원형을 잃어 도시로 개발되어 있는 모습이 위의 그림과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 무렵 즉 60년대 중엽에서 70년대 말까지 전주의 곳곳에는 새로운 명칭을 가진 일련의 주택단지들이 조성되는데, 이른바 00촌이 그것이다. 즉, 보문촌, 기자촌, 문화촌, 진안촌, 호반촌, 남노촌 등의 주택지들이 조성되는데, 기자촌과 진안촌은 비교적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거쳐 지명으로서 택지로서 기능하게 되는 반면, 남노촌, 문

화촌, 보문촌, 반촌, 호반촌 등은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시행되면서 관 주도로 붙여진 지명이다. 기자촌은 전주고와 서낭댁이 사이 오른편 언덕 본래는 술때배기라고 불리던 마을에 60년대 이후 기자 한 사람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후에 두 명의 기자가 그에 합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진안촌은 진발다리 위쪽 매봉산 동쪽에 진안 사람들이 주로 이곳에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면서 생긴 이름이다. 또한 호반촌은 덕진동의 아랫가르내 앞쪽, 문화촌은 중노송동 공설 운동장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보문촌은 인후동 화장터가 이전된 후 난민이 정착하면서, 반촌은 형무소 이전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2) 육지구 개발과 백제로 개통

육지구라는 지명에 이미 함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1에서 5지구까지의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육지구만이 지명으로 남게 된다. 육지구는 대략 지금의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현 전주역에 이르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육지구의 개발로 말미암아 1981년 전주역이 현 시청 자리에서 현재의 전주역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 전주역의 이전은 전주의 확장에 절대적 기여를 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의 항공사진에서 우리는 육지구 개발에 따라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인후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 백제로가 가설되기 전의 명짓골과 구숙사, 신숙사 주변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육지구의 개발 이후 전주역이 이전되고 백제로가 개통된 이후 육지구와 백제로 주변은 그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다. 백제로가 뚫림에 따라 백제로 주변은 전북대

병원, 완주군청 등 각종 건축물들이 도열하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은 모두 택지로 개발되고, 전주역과 서신지구, 삼천지구, 효자지구 등을 잇는 전주의 외각 지역 개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3) 1990년대 이후 서신지구, 삼천지구, 효자지구, 아중지구 개발
육지구 개발과 백제로 개설 이후 서신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는데, 서신지구의 개발은 백제교 가설, 서신로와 서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서부우회도로에서 삼천천까지를 서신1 지구, 서부우회도로에서 전주천까지를 서신2 지구로 나누어 개발되는데, 서신 1지구는 90년대 초반, 2지구는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지역이다. 서신 1지구는 서곡지구로도 불린다.

서신지구가 개발되기 전 이곳은 한일고등학교 주변으로 재뜸, 바구멸, 구석뜸, 감나뭇골, 안터, 새터, 당산, 전용 등의 자연부락과 고삿들, 고사평의 들녘이 있어 전주 북서부 지역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신지구 개발로 말미암아 고삿들 혹은 고사평의 넓은 들녘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새터, 구석뜸도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그 원형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나머지 마을, 재뜸, 바구멸, 감나뭇골, 안터, 전용 등은 개발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형이 유지되어 있으나, 서신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원래의 모습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서신지구에는 서신중학교, 서문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E 마트, 의료보험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전주 근교의 핵심적인 신도시로 형성되기에 이른다.

근자에 들어, 서신지구가 개발되는 방식으로 효자지구, 삼천지구, 송천지구 등의 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 군락이 들어서면서 전주의 외각 도시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매우 빠른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개발이 진행된 아중지구에는 자연부락들의 원형이 89년의 항공사진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기린봉 자락에 위치한 한배미, 마당재 너머의 방중목, 무삼이 방죽, 구충목을 지나 원한배미 그리고 웃가재미, 가운뎃가재미, 아랫가재미, 진버들, 석소리(석수리), 진구령 등이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자연부락들이다. 지금은 전주시에서 2003년 재정한 길 이름에 그 옛 지명이 남아 있을 뿐 자연부락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시원스럽게 정리된 구획 도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전주의 사방 외각 지역이 비슷한 사정이다.

4. 나오며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이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가끔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원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즉 가족, 친구, 고향 등 변화하기 이전의 익숙함 그대로가 그리운 것, 우리는 전통 문화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옳다거나 그르다거나와 같은 선악, 진리와 거짓 등의 양분적 구도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편안함 나아가 내가 그의 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비로소 그 존재 가치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와 그 특성에 대해 나만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생명력 또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주의 지명과 그에 배어 있는 정신 또한 수백 년을 넘도록 전주 사람들이 삶의 공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토대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만들어 온 그 나뭇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설령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복원한다 해도 그 명명이 생명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명의 토대에 대한 근거가 남아 있거나 그에 대한 애정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는다면, 이는 역시 지명의 박제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여행은 박제화 된 지명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백 년 전의 전주는 남쪽에서부터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각각 동북, 서북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둘러놓은 산자락들이 병풍처럼 전주부성을 감싸 안고,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초가집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으며, 성 밖으로는 고샅 고샅에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들어앉은 모습이었다. 이는 후백제 시대 이후 부침을 거듭하여 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건국조의 본향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갖춘 조선조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호남을 관장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된 결과이다. 전주부성을 감싸는 산줄기들은, 마치 상서로운 짐승, 기린이 살고 있고, 쌍학과 기러기가 날며, 용이 제 몸을 길게 늘어뜨려 전주를 웅위하는 것이라고 상상한 데서 각각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전주부성을 둘러 흐르는 전주천을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낙수정에서 흘러내린 물길과 기린봉 북록에서 시작된 모래내가 인근 마을들의 물줄기 되었고, 남쪽으로는 남고산성의 물길을 모아 흐르는 산성천, 남고산, 보광재에서 흘러내린 물이 공수내를 이루어 전주천의 물길을 더하였다. 전주천은 삼천천과 만나 가르내(추천)가 되고 가르내는 고산천과 만나 한내에 이른다. 예전에는 만경강 줄기를 거슬러 전주천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쭈뼛거리며 흐르는 지금의 전주천으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배경으로, 전주는 판소리, 고대소 설을 비롯한 품위 있는 문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호남 제일의 도시로서의 규모와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전라감영과 전주부영, 객사와 경기전은 전주가 단순히 이 근방의 행정 도시일 뿐만 아니라 호남 일대를 관장하는 도시이며, 드넓은 평야 지대의 윤택한 생활 환경을 확보한 인근 지역들의 주민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사회 문화적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전주의 모습은 왜정시대 왜인들이 주도한 식민도시로의 개발과 더불어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그것이 개발인지 파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수백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전주의 옛 모습이 자취를 잃게 된 것이 그 시기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만약 조선이 건재한 상태에서 서구화의 유입에 따라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도 조선 건국초의 본향이었던 전주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개발 그 자체보다 곱절로 힘이 드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개발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점은, 일단 한번 개발이 진행되면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유산들이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레테의 강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 강을 건너가 버린 조선시대의 전주, 우리는 그 전주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박제화된 지명을 통해 들여다보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개발의 고삐를 제대로 당길 방법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전주박물관(1998), 『옛 사진 속의 전북』, 통천문화사.
- 김규남·이길재(2001),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상』, 신아출판사.
- 김규남·이길재(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하』, 신아출판사.
- 국립지리원(1987), 『지명유래집』, 거성문화인쇄사.
- 전주문화원(2000), 『우리전주 우리설화』, 신아출판사.
- 영인자료(1971), 『호구총수』,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서울대학교 출판사.
- 영인자료(1983), 『호남읍지』, 아세아문화사.
- 이철수(1971), 『완산승경』, 전주청년회의소.
- 장명수(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전주부(1943), 『전주부사』
- 전주역사박물관(2004),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신아출판사.
- 전주시(1997), 『전주시사』, 전라북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조법종 외(1999), 『전주문화유산탐구』, 신아출판사.
- 한글학회(1981), 『한국지명』

옛 사진 속의 전주 백년

홍성덕 || 전북대 박물관 학예사

〈목 차〉

1. 사진은 기록이다.
2. 사진 속 전주
3. 사진의 수집은 역사의 복원이다.

1. 사진은 기록이다.

사람들이 사진에 목말라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새롭게 재해석된다. 재해석된 내용들은 연구자와 조사자들을 통해서 활자화 할 수 있고 활자화한 자료들은 우리들의 소중한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쓰인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와는 맛과 멋이 다르다. 정사 중심의 역사교육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국가의 통치행정이 지방을 거쳐 어떻게 백성들에 전달되었고, 제도적 틀 속에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 자료는 역사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재해석의 사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사진은 더 이상 영상기록이나 예술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라는 절대적 시기구분에 있어 사진은 역사적인 사료로서 연구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진이 들어온 것이 1870년대라고 하니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적 상한은 130년 정도이다. 즉 근세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의 역사풍경을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현대의 출발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파괴된 한국의 문화와 역사문화자산들을 복원하는 데 사진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사진 속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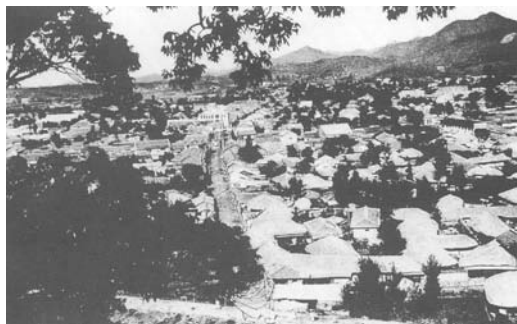
전주에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1894년 전후의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었으며, 사진 속에 나타난 전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10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옛 사진을 통해서 전주라는 도시를 읽어낼 수 있는 몇 가지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주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전주의 중심축의 변화를 읽어 볼 수 있다. 사진은 촬영할 수 있는 자에 의해 기록된다. 때문에 사진의 생산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기도 하고 촬영자에 의해 그 공간과 촬영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주라는 도시를 찍기 위해서 전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까?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곳을 생각하겠지만 현재 전주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은 중바위 꼭대기가 가장 좋을 것이다. 동고산성에서 치명자성당으로 내려가는 능선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는 바위 정상이 전주를 조망하고 이해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산불 감시 초소 옆에서 숨 고르며 내려다 본 전주는 천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곳에서 본 전주는 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전주’라는 지명이 생기고,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조선왕조의 본향지로서 전주가 시공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사진 속에 나타난 전주의 공간적 영상은 것처럼 높게 오르지 않는다. 전주를 굽어다본 수많은 사진들은 사진 지금은 산이라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언덕에서 찍은 것들이다. 다가산이 첫째이고, 초록바위가 둘째이며, 오목대가 세 번째이다. 옛 사진 기술로 담아낼 수 있는 전주의 규모가 그 정도의 높이면 충분했을 터이니 어찌

면 당연한 얘기 일 것이다. 도시가 조금씩 커져가면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그보다 높은 완산 봉우리나 기린봉, 중바위, 남고산 등으로 옮겨지지만 지근거리의 도심은 여전히 세 곳이 유효하다.

도시를 조망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



〈사진 1. 1920년대 전주 시내 모습. 중앙에 동쪽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웨딩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이다.〉



〈사진 2. 전주본정(本町通)거리〉

그중 일제강점기 이후 도심을 촬영한 모습은 주로 다가공원에서 이루어졌다. 수점의 사진들이 대부분 다가공원 정상에서 다이쇼도

오리(大正通, 현 웨딩거리)를 찍은 것들이다. 가로망의 사진은 때문에 다이쇼도오리가 중심이 된다. 그 이전에 촬영된 거리모습은 혼마치도오리(本町通, 현 차이나거리)였다. 1912년 발간된 『금난부』에 게재된 사진은 일본인들이 처음 들어와 정착했던 서문에서 남문으로 이어지는 성벽을 따라 개통된 도로의 모습(<사진 2> 참조)이었다.

<사진 1>은 다가공원에서 지금의 웨딩거리 쪽을 찍은 것이다. 사진 중앙에 위로 곧게 뻗은 길이 중앙동 우체국에서 천변으로 내려오는 길이며 길 중간에 보이는 빌딩은 위치로 보아 하카다야(博多屋, 현재 진미반점)가 있었던 건물로 여겨진다. 당시 하카다야(博多屋)이라 해서 유명한 우동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일제시대 전주부의 건물 중에 가장 크고 예쁜 건물이다.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오른쪽 상단에 도청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20년대 후반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찍힌 전주시내의 인상은 나무가 많다는 것이며, 초가집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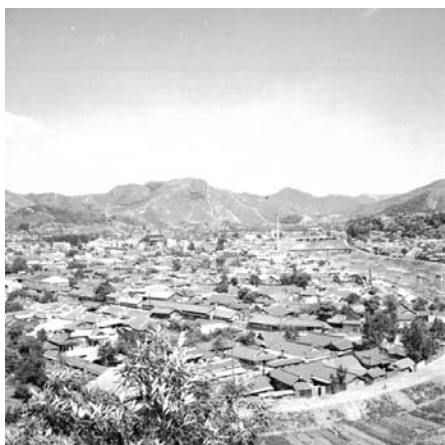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전주라는 도시가 양반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주시내에는 기와집이 많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일제시대의 전주는 초가집 투성이다. 기와집이라고는 관청(전라감영, 전주부영, 객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상인들이 살던 곳 뿐이었으며, 기와집촌을 이루고 있는 한옥마을은 1920년대 이후에서야 형성된 근대 도시 한옥들이었다. 때문에 전주시내에는 초가집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다가산 정상에서 전주천 상류 쪽을 촬영한 <사진 3> 속의 전주 집들 역시 대부분이 초가집이고 집 주위에는 나무들이



〈사진 3. 1920년대 전주 시내 모습. 다가산에서 다가동, 완산동 쪽을 찍은 사진으로 오른쪽에 있는 다리가 완산교이다. 왼쪽 멀리 전동성당이 보이고 서천교 자리는 돌다리였음을 알 수 있다.〉

빠짐없이 심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는 오른 쪽 하단의 완산교가 1922년에 세워진 콘크리트 다리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1920년대 후반의 것이다. 거의 동시대에 찍은 것으로 『일본 지리대계』에는 좌우



〈사진 4. 1970년대 전주 시내 모습.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모두 바뀌었으며 서천교를 세우기 위한 교각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은 삶의 공간을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다. 〈사진 4〉은 1970년대 중엽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진 3〉와 동일한 장소에서 약간 도심 쪽의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 일제강점기와는 달리 전부 기와집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옥 사이의 나무들은 여전히 도시의 더위를 식혀

다가산은 한 때 연인들이 올라가 전주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포토포인트였다. 1960-70년대 다가산과 오목대 정상은 정상부에 큰 나무들이 없어서 도심을 병풍삼아 사진 찍기에 딱 좋은 곳이었던 것이다.

둘째, 전주라는 도시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호남의 수부’ ‘농도’와 ‘경제적 풍요로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남문시장에서 서문시장으로 펼쳐진 전주의 시장 풍경은 전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주사람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규모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50년 낙후라는 꼬리표를 달고 반세기를 지내온 요즘 사람들에게는 먼 옛날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에는 전주를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전라도가 살기 좋은 곳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고장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현실에 대한 위안인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면은 많지 않다. 어쨌든 분명 전주가 물산이 모이는 고장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물산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인 전주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화적 향유력이 높아졌을 것이고, 문화 향유력이 소리, 음식, 서예 등등 전주의 문화적 코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나 연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시대 전주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만 있을 뿐 증거는 없는 셈이다.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고 있는 지금도 그것은 여전하다.

다만, 『전주부사』에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 특히 장터에 관한 언급에 의하면 전주에는 4개의 성문 밖에 정기적으로

장이 섰다고 한다. 남문밖 시장은 2일장으로 생활용품과 곡식을 거래하는 장터가 섰으며, 동문밖 시장은 9일장으로 한약재와 특용장물의 장터가, 서문밖 시장은 7일장으로 소금, 깨와 같은 양념과 어물이, 북문밖 시장은 4일장으로 비단 같은 포목과 잡곡을 거래하였다고 하다.



〈사진 5. 1910년대 남문 밖 반석리 시장 모습. 사진의 왼편이 교동 쪽이며, 오른쪽은 싸전다리 건너 옛 반석리에 해당한다. 천변을 사이에 두고 양쪽 천변에 남문밖 장터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에 놓인 다리를 중심으로 구별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싸전다리는 말 그대로 싸전이 중심이었고, 매곡교 부근은 쇠전 강변이라 해서 우시장이 열렸으며, 서천교는 설대전 다리라 해서 담뱃대 장수들이 좌판을 깔았고, 완산교는 소금장수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소금전다리라 불리웠다. 이외에도 성 안에는 상설 점포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거래품목들은 유기, 주석, 은제품 등이었다. 결국 성 밖의 경우 먹거리 중심의 시장이었으며, 성안

시장은 수공업품 등을 파는 상점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전주가 물류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중심이 무슨 물품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전해져 오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사실을 엿볼 수는 있다. <사진 5>은 1900년대 초엽의 남문 밖 반석리시장 모습이다. 당시의 성내 인구가 1만 명을 조금 넘었으므로 시장에 몰려나온 사람들로 볼 때 단순히 전주성내 사람들이 먹거리를 사고팔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세어 볼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다. 이런 규모의 장터가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전주의 경제력을 엿보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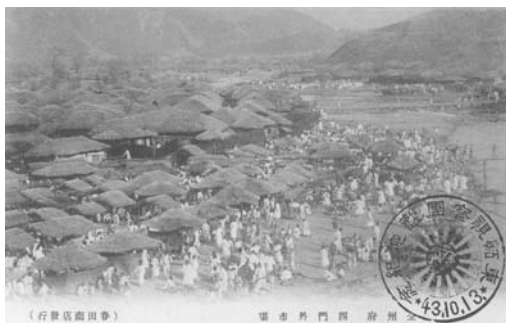


<사진 6. 1920년대 완산교 부근의 장터모습이다. 완산교 밑에 장이 선 것을 촬영한 것으로 기록에 의한다면 소금을 주로 파는 가게들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사진으로 본 전주서문교회 100년』(1994)에 실려 있는 이 사진의 설명을 보면 “멀리 기린봉이 보이고 좌측은 향교가 있는 교동부근이며, 우측의 많은 인파가 있는 곳이 현 남문시장 자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먼저 좌측(향교)과 우측(남문시장)은 천을 가운데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의 왼쪽이 교동쪽

이라면, 사진 속 우측 시장은 싸전다리 건너편으로 옛 반석리(현 전주천 좌안도로)에 해당하므로 남문밖 시장의 건너편에 해당한다. 보통 옛 사진을 볼 때에는 장소가 어디며,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몇 가지의 정황으로 보아 이 사진은 초록바위에서 한벽당쪽을 향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럴 경우 남문밖 시장 앞 전주천 건너편에도 큰 장터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6〉 역시 풍남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전주100년 풍물사진집』 1920년대 남문밖장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역시 틀린 설명이다. 이 사진은 정확하게 현 완산교 밑 시장을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 중앙에 반듯하게 보이는 선이 바로 완산교이며, 완산교 너머 낮은 다리는 매곡교이다. 오른쪽 나뭇가지 끝 부분에 연결된 산봉우리가 곤지산이며 나뭇가지에 가린 뒷 산은 투구봉에 해당된다. 사진에



있는 완산교의 모습은 1922년에 세워진 콘크리트 다리로 여겨지며, 천변에는 전주천의 제방이 쌓여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진은 1920년대 완산교 밑 시장의 풍경이다.

〈사진 7. 1900년대 서문밖 시장. 하루다상점에서 발행한 전주부 엽서로 1911년 10월 13일 동양척식주식회사 시찰단 환영 기념 스탬프가 찍혀 있다.〉

〈사진 7〉은 서문밖 장터의 모습이다. 동학농민혁명 때에 농민군이 장사치로 위장해서 전주성에 침투했다던 바로 그 시장의 모습이

다. 메이지 43년 10월 13일, 동척시찰단 환영기념 스템프가 찍힌 것으로 보아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1911년 이전으로 1900년대 전주 서문밖 시장의 모습이다. 정확하게는 서문밖에서 완산교에 인접한 곳으로 여겨진다. 우측 중앙 끝에 있는 다리가 완산교이며 상류쪽 낮은 다리가 매곡교이다. 서문밖 시장의 천변가에 있는 초가의 상점들은 가설 점포로 여겨지며 역시 제방은 쌓여있지 않다.

셋째, 전라감영의 도시로서 전주라는 공간에 대한 세세한 확인과 인식이 가능하다. 전라감영의 복원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풍락헌에 대한 발견 역시 감영복원에 맞물려 있다.



〈사진 8. 1912년 이전 객사모습〉

먼저 1911년경에 찍은 “풍패지관”의 모습을 보면 그 동안 객사(풍패지관)의 동쪽 날개 건물(동익랑)이 파괴된 시기에 대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8〉은 『금난부』에 실려 있는 것이다.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당시에만 해도 전주객사는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1907년부터 시작된 성벽철거령에 따라 전주성 성벽은 1914년까지 지속적으로 철거되었다. ‘근대적’ 도시계획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일본은 풍남문과 북문(국민은행 뒤 오거리)을 잇는 일직선의 도로를 개설하여 ‘T’자형 도시구조를 파괴하고 전주성의 가장 핵심기관인 객사의 동쪽 날개건물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금난부』의 객사 사진 역시 동쪽 날개 건물을 허문 직후

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12년 신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간한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은 아마도 191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순한 시기 추정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객사의 동쪽 날개건물을 허물었던 시점에 대한 기존 연구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객사 파괴가 동쪽 날개건물을 없애버린 것은 물론 객사 주위의 모든 부속 시설들까지 깨끗하게 지워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의 파괴와 훼손은 멈추질 않았던 것이다. 『전주부사』에

의하면 일본은 객사 마당에 벚꽃을 심고 1921년 이후 전라북도 물산진열소(〈사진 9〉, 후에 산업장려관)로 사용하는 한편 연회장으로 여러 차례 사용하기도 했다. 1937년 산업장려관이 이전한 뒤 전라북도



〈사진 10〉

도 교육참고관이 설치되었고, 그 사이에 남문의 서쪽에 있던 종각을 이전하고 정원에는 대포와 3층 석탑을 두었다고 한다.

바로 이 3층 석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사진 10) 당시 전북공립



〈사진 11〉

고등여자학교 여학생들이 놀러와서 찍은 사진을 보면 땅바닥에 시멘트로 기초를 만든 뒤 기단부를 대리석으로 덧씌우고 그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올려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3층 석

탑을 온전하게 옮긴 것도 아니고 기단부를 파괴한 채 윗 부분만 객사 앞으로 갖다 놓은 것이다. 1922년 익산 왕궁에서 옮겨온 이 탑을 지금은 덕진공원으로 옮겨져 있다.〈사진 11〉

객사의 핵심 기능은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정점에 있는 것이었다. 중앙의 관리들을 접대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궐패(闕牌)를 모시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망궐례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 조선시대의 통치지배시스템을 상징하는 의례행위였기 때문이다. 일본에 의한 객사의 파괴는 단순히 전통문화의 망실이 아닌 조선시대의 지배구조를 와해시키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999년 동쪽 날개건물의 복원은, 그것이 옛 모습 그대로의 복원은 아닐지라도(「객사서헌기(客舍西軒記)」에 의하면 서쪽 건물이 동쪽 건물에 비해 낮고 좁다고 하였다.) 우리의 전통적 대민행정의 복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감영의 복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진은 포정루(〈사진 12〉)와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사진 13〉) 정도이다. 〈사진 12〉는 현재 도청 동쪽 출입구 쪽에서 도청본관과 중부경찰서 방향

을 찍은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정면 3칸 측면 3칸 정도의 누각이 바로 포정루이고, 좌측에 있는 2층 누각은 풍남문이다. 포정루의 위치는 현 도청건물과 중부경찰서 사이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세워진 도청(<사진 14>)의 출입문이 위치해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그 자리에 홍보탑이 서 있다. 전주성의 정문인 풍남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포정루 앞을 지나 객사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의 도로가 중심 도로인 셈이다.



〈사진 12〉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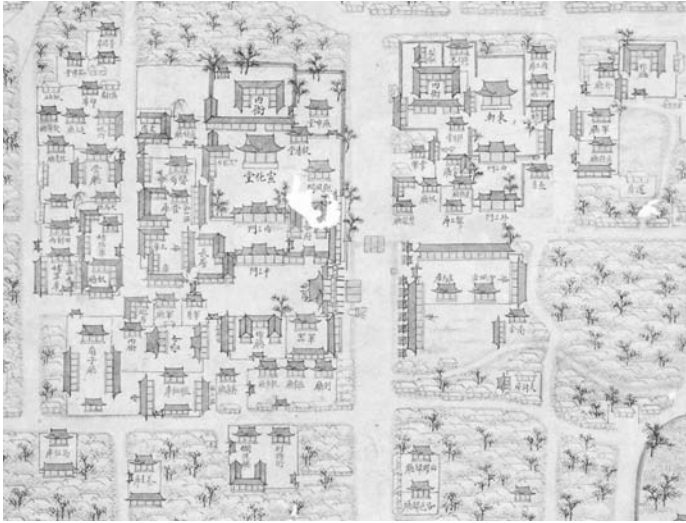
〈사진 14. 전북도청〉



〈사진 15. 다가공원 비석군〉

이 사진에서 우리가 오버랩할 수 있는 것은 포정루 앞 도로 건너편에 서 있는 비석들이다. 전주에서 비석들 하면 떠오르는 곳은 다가공원이다. 다가공원 광장 산자락 밑에 일렬로 늘어섰던 비석들, 예전에는 천변의 뚝을 따라 길게 늘어 서 있었던 비석의 원 위치가 바로 포정루 앞이었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여러 곳에 흩어진

것을 다가공원으로 모아 놓은 것은 1954년 4월의 일이다.(<사진 15>) 이 비석들은 관찰사, 별장 등의 선정비들이다.



〈지도 1. 전라감영〉

지도 1을 보면 이 선정비들에는 각각의 비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선정비들과 마주한 포정루에는 신문고를 매달아 놓았었다. 억울한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어 임금의 선덕을 기리라는 의미에서 또한 도내 수령들의 포폄(수령의 인사고과)을 사언절구로 요약해서 걸어 놓기도 했다. 백성들이 이 문을 지날 때에는 관리들의 선정(善政)을 바라는 것이었지만, 감영에서 이 문을 나갈 때에는 모든 길로 통한다는 팔달(八達)이란 편액이 붙어 있었다. 즉 모든 백성과 관리들이 이문을 지나 사방팔방으로 선정을 널리 퍼라는 의미일 것이다. 전주의 중심도로인 팔달로 역시 사통팔달이라는 보편적 의미와 함께 전라감영의 출입문이었던 이 포정루(팔달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사진 13〉은 ‘임금의 덕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한다(宣上德 而化下民)’는 선화당의 모습이다. 세간에 전라감영의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시각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면 7칸 규모로 약 78평에 달하는 큰 건물이 전주성 내에서만 따지자면 임금의 궐패(闕牌)가 모셔져 있는 객사 다음으로 큰 건물인 셈이다. 몇 차례의 화재 끝에 사진 속에 있는 건물이 세워진 것은 1804년으로 관찰사 정민시가 증건한 것이다. 1921년 11월 그 기능을 도청 건물로 물려준 선화당은 해방 이후까지도 역사의 질곡을 그대로 담아내 보여주다가 1951년 도청 무기고 폭발에 의한 화재로 없어져 버렸다.

전라감영의 복원 문제가 이야기될 때나, 전라감영에 대한 술한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 빠짐 없이 거론되었던 것이, 현존하는 건물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복원의 초점이 전라감사의 집무처였던 선화당에 집중되고 있고, 현존하는 사진자료 역시 선화당과 포정루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주판관의 집무소였던 풍락헌은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우리들이 흔히 전라감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라도를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 전라북도청 일원과 객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반면 전주부는 전주부윤이 임명되어 다스렸지만,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대부분은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칫 전주부를 다스리는 행정기관이 전라감영 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주부 통할 행정기관은 이아(貳衙)라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실제 전주부의 통치업무는 전주판관(全州判官)이 담당하곤 했다. 관찰사가 전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전라도 행정을 맡아보아야 했기 때문에 판관은 감영에서 관찰사의 공백을 메우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

기도 하고, 때로는 관찰사의 전횡을 견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라도와 같이 전라감사가 전주부윤을 겸할 경우 판관이 실질적으로 전주를 통할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공간은 현 전주우체국 사거리의 남동쪽 블록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있는 방형구역과 구 전북은행 본점이 있는 블록을 포함한 약 7천여 평이었다.



〈사진 16. 풍락헌(1910년대 전후)〉

전주판관이 근무하던 건물은 풍락헌(豊樂軒)이라 하였으며 현 중소기업은행 자리에 위치하였다.

〈사진 16〉은 바로 풍락헌 건물의 사

진이다. 이 사진에는 음순당(飲醇堂)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풍락헌은 전면 7칸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사진 17. 전주군청으로 사용된 풍락헌(1920년대)〉

이루어져 있다. 또한 좌우 1칸의 크기는 중앙 5칸에 비해 기둥 사이가 약간 좁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에는 양복을 입은 사람 1명과 하얀 두루마기 차림을 한 5명과 바지저고리 차림의 2명 등 총 8명의 모습이 보이며 1920년

대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순당이란 편액은 1901년 당시 전주 군수였던 취송(醉松) 이삼응(李參應)이 제작한 것으로 조주송이 썼다. 전주판관의 설치 때부터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풍락헌은 1758년 판관 서노수가 개건하였고, 1890년 화재로 소실된 뒤 1891년 판관 민치준이 중창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 이후 이 건물은 전주군청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모습이 <사진 17>이다. 1895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전주부가 폐지되고 전주군이 설치되면서 전주군청으로 사용될 당시의 모습이다. <사진 16>과는 달리 서남쪽 모퉁이에서 촬영된 풍락헌은 전면 7칸의 건물이며 왼쪽 처마 끝에 덧 댄 가건물이 있으며, 도로 정비에 의해 전면 부의 마당이 잘려나가고 나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주군청이 존속한 것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할 때까지이다. 즉 <사진 17>의 전주군청은 1981년 민치준이 중창한 뒤 1934년 새로운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존속했던 풍락헌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1934년 봄 풍락헌은 매각되어 구이면 덕천리(옛 태실리) 전주유씨 제각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당시 음순당 현판은 떼어 내어 옛



객사 내에 두었다고 하나 현존 유무를 할 수는 없다. 구이 태실부락으로 옮겨진 풍락헌은 1992년 1월 7일자 전북일보의 보도로 세상에

<사진 18. 구이로 옮겨진 풍락헌(전주유씨 제각)> 다시 알려지게 되었

다. 전주유씨 제각으로 현존하고 있는 풍락헌의 모습이 <사진 18>이다. 그런데 비교적 단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전주유씨 제각(풍락헌)의 모습은 앞의 <사진 16>과 <사진 17>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전면이 7칸이 아닌 6칸이라는 점이다. 좌우 끝 1칸의 크기가 중앙의 4칸 크기보다 기둥 사이가 좁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지만 중앙의 칸수가 1칸 줄어든 점이 틀리다. 기둥 초석과 초석 사이의 모양 등은 <사진 16>과 동일하다. 이러한 변화가 왜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적어도 사진으로만 본다



<사진 19. 구 전주시청(1960년대)>

면 풍락헌을 이긴하였다는 전주유씨 제각이 풍락헌의 모습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긴하면서 칸 수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934년 새로이 지어진 전주

부청사는 2층 건물로 735평의 대지에 연건평 150평의 규모였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존속하였고, 후에 전주시청(<사진 19>)으로 이전되었다.

넷째, 문헌 전주의 역사를 되찾아 볼 수 있었다. 전주신사에 대한 술한 사진들을 통해서 일제시대 30년 넘게 전주사람들을 통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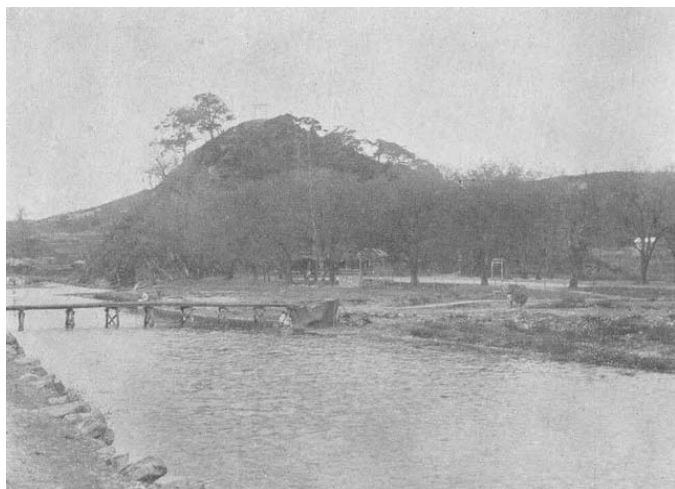
왔던 공간으로 철저히 잊혀진 전주신사의 모습과 지금도 남아 있는 일제의 잔영들에 대해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벽루의 요월대 복원이 잘못되었던 것이나 풍남문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화적 환경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지금은 잊어진 과거의 치욕이긴 하지만, 서울 남산공원이나 부산 용두산 공원 그리고 군산의 월명공원 등 도심부에 있는 공원들은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심 속 공원에다 산 정상부까지 도로가 있고 광장이 있고, 그 키워드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한 이후 일선동조(日鮮同祖), 일시동인(一視同仁)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신사(神社)’이다. 신사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공로자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우리가 술하게 다녔던 다가공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주사람들을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신사가 세워진 곳이 다가산의 정상이고 그곳에 오르는 길을 ‘참궁로(參宮路)’라 해서 잘 닦아 놓은 것이다. 일제시대 다가교를 대궁교(大宮橋)라 부른 것도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 건너는 다리였기 때문이다.

전주에 신사가 세워진 것은 언제일까? 『전주부사』에 의하면 일본의 강점 직후 몇몇 일본사람들이 목조의 도리이(鳥居)를 다가산 정상에 세우고 요배소(遙拜所)를 만들었다고 한다. 전주에 일본인이 처음 들어온 것은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직후로 1896년 경이며, 그들이 주로 거주한 곳이 바로 서문밖이었다. 따라서 다가산은 일본인들 거주지에서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요배소 설치장소로는 제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다른 도시들을 보면 신사

는 그 도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었다. 그렇다면 전주의 경우 오목대가 최적지였을 것이지만, 오목대는 이성계가 대풍가를 불렀다는 곳이고 선대 전주이씨의 세거지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사건립지로 낙점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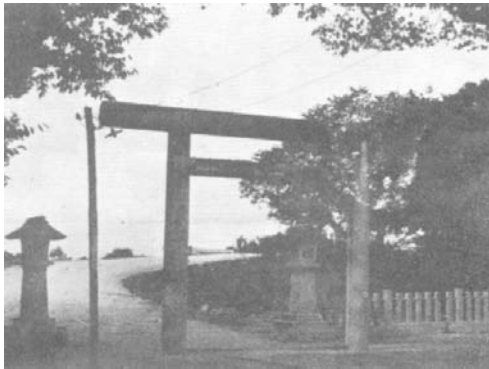


〈사진 20. 1911년경 촬영된 다가산의 전경, 산 정상부에 목조의 도리이가 보이고 있으며, 당시 촬영된 다른 산들과는 달리 숲이 울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에 보이는 다리가 바로 사마교이며 지금의 다가교 보다 약 200미터 하류에 위치해 있었다.〉

〈사진 20〉의 다가산 정상에 보이는 목조의 도리이는 바로 전주에 들어 온 일본인들이 세운 목조의 도리이 그것이다. 일본인들이 초창기 전주에서 거주했던 고사동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다. 사진에 있는 다리는 이 때까지도 사마교라 불렸을 것이다. 조선시대 선너머로 이사 간 향교에 글을 배우러 다니던 선비들이 건넌던 다리라해서 붙여진 이름은 왜란이 끝난 뒤 향교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뒤에도 여전히 선비들의 다리였다. 지금의 신흥학교 자리에 희현당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도립 학교가 있었으니 그 다리의 이름값은 여전했던 것이다.

전주신사 건립은 메이지 천황이 죽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당시 전라북도장관이 이두황을 비롯 지역 유지들이 전주신사 및 공원건설 위원으로 9천여원을 거출하였고, 다가산 부근 1만 1800평 등의 땅을 고사동의 이건호 외 3명이 기부하여 공사에 착수 1914년 10월 완공되었다. 이리하여 다가산 정상에는 신사와 사무소가 건립되고 다가산 밑 광장 현재 천양정 앞에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는 웅장한 석조 도리이(鳥居)가 세워졌다. <사진 21>에 보이는 웅장한 석조의 도리이는 일본의 조선 침략이 완공되었음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다가산 초입을 떡 하니 가로막고 서있었다.



<사진 21. 다가산 입구에 세워진 석조의 도리이로 1920년대 후반경에 촬영된 모습이다. 당시 일본인이 세운 다가교로 이어지는 도로가 보이며, 도리이 앞쪽 좌우에는 일본 석등이 놓여져 있다.>

이후 이강원, 김도흥, 이준상, 유익환, 문문교, 백인숙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전주신사강위원(全州神社講委員)이 위촉되었다.

1915년 8월 조선총독부가 신사사원규칙을 발표하여 현재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중인 신사, 요배소 등의 창립수속을 밟도록 지시에

따라 전주신사도 1916년 2월 신사창립을 출원하여 9월에 인가를

받았다. 당시 구성된 창립위원 중에는 전주지역의 유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데 김영철, 박영래, 신언태, 박기순 등이 바로 그들이다. 신사창립이후 숭경자총대회(崇敬者總代會)가 조직되고 신사를 관리운영하게 되고 인창환, 백남혁, 김봉철 등이 활동하였다.

한편, 일본은 1935년경 이후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다. 우선 각 급학교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부한 신흥학교, 기전학교를 1937년 폐교시켰다. 일본의 신사참배강요에 대해 천주교는 로마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응했으며, 기독교의 경우 역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참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남장로파 교회 146개소 신도 1만8천명이 신사참배를 시행하기로 했고, 만경 무주 금산 웅포 삼례 등의 각 교회에서도 전교도의 만장일치로 참배를 결의하기도 했다.

강제적인 신사참배가 계속되자 1939년 전주신사는 신사 확장을 위한 대규모의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총 25만868원 규모의 전주신사 확장을 위해 추가 용지 2만7천평 중 8천평을 미국예수교 남장로파 조선교회유지재단의 협조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지역유지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주신사는 3만8천6백평에 달하는 거대한 신사로 다시 태어날 예정이었으나, 일제의 패망으로 중지되었다.

한편, 한벽당 사진을 보면 요월대의 복원이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벽당을 세운 월당 최담은 오목대 남쪽에 집을 짓고 이 여덟 글자를 새겨 도의(道義)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월당 최담의 묘비명에 의하면 그가 71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 구계(九溪) 위 옥류동에 한벽당을 지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벽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1416년(태종 16)이 되지 지금부터 589년전의 일이다.

그뒤 한벽당은 월당의 자손들에 의해 대대로 보수를 해 오다가 1684년(숙종 9)에 당시 관찰사였던 이사명이 한벽당에 이어 9동의 작은 층각을 세웠다고 한다. 1733년(영조 9)에는 전주판관 윤성필이 사재를 털어 보수했으며, 1897년(광무 1)에 후손들이 출연하여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월당이 처음 세운 한벽당은 어떤 모습인지, 관찰사 이사명이 증수한 층각은 어떤 모습인지 머리 속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벽당은 정확하게 한벽당 1동의 건물과 '요월대(邀月臺)'이라 불리는 동편에 있는 조그마한 누각 뿐이다.



〈사진 22〉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벽당의 모습은 1911년의 것이다(〈사진 22〉). 1912년 일본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전북일일신문사가 발행한 금란 부라는 책에 실린 한벽

당의 모습은 서쪽으로 이어진 제방을 제외하면 아마도 조선초 월당이 세웠을 당시의 풍광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1911년의 한벽당은 중바위 자락 끝 자연 암석위에 세워진 조금은 도도한 모습이었다. 지금과는 달리 요월대는 보이지 않고, 한벽당 1체의 건물 뿐이다. 그리고 사진 속 제방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2층의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전주향교 앞에 이전 복원한 만화루(萬花樓)이다. 복원되기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무이한 만화루의 모습 일 것이다.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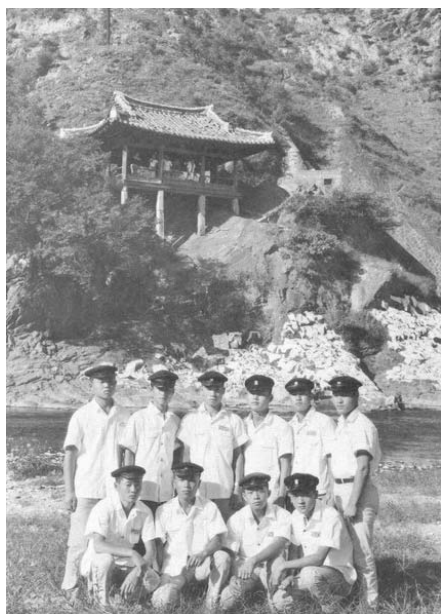


〈사진 24〉

얼마 뒤 한벽당의 동쪽에는 지금의 요월대가 나타나게 된다.(사진 23, 사진 24) 〈사진 23〉과 〈사진 24〉를 보면 한벽당 동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은 현재 요월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일제시대 당시에도 요월대라 불리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진 23〉과 〈사진 24〉를 가지고 대략이나마 추정해 본다면, 먼저 두 장의 사진 중 한벽당 주위의 나무들을 보면 〈사진 23〉이 앞서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진 23〉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사진 24〉에는 나타나고 있다. 한벽당의 동쪽에서 한벽당과 요월대 사이로 오르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래 한벽당에 오르는 길은 현재 오모가리집에서 올라가는 서쪽 길 뿐이었다. 한번쯤 한벽당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벽당의 동쪽으로 치명자산에 이르는 길이, 원래는 중바위 자락에서 바로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풍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동쪽에서 한벽당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이 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라선 철도가 놓이게 되면서 제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벽굴이 뚫렸기 때문이다.

월당이 낙향해서 도의(道義)를 세우기 위해 힘쓰려 했던 한벽당의 정기가 잘리게 된 것은 바로 〈사진 24〉에 보이는 전라선의 설치



〈사진 25〉

였다. 사진에 철도가 놓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막 터널 공사를 끝낸 뒤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전라선 철길은 이리역에서 삼례, 덕진을 거쳐 현재의 전주시청에 있던 전주역으로 지나 간납대(전 영생고자리)를 자르고 오목대-이목대-한벽굴을 지나 중바위 서쪽아래를 타고 색장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남원간의 철도가 개통된 것이 1931년 10월이 일이므로 〈사진 24〉

는 1920년대 말쯤에 촬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요월대에 세워졌던 건물은 1912년에서 1920년대 사이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벽당 동쪽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서져 버렸다고 한다. 1963년에 전주농고 학생들이 한벽당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 25〉를 보면 요월대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에 있는 한벽당 밑 암벽에는 하얀 빨래가 넓게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 언제 썬인가 찍었을 이 사진을 보면 한벽당이 몇 곳 안되는 소풍지로서 일제시대 뿐만 아니라 한동안 사랑을 받았고(사진 26), 그리고 빨래터로서의 시민들에게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벽당 옆에는 새롭게 복원된 요월대가 있다. 이 남향으로

지어진 요월대를 이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면 건물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이후 사진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요월대(邀月臺)란 달을 맞이하는 곳(건물)이라는 말이다. 때문에 방향은 당연히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는 요월대라는 이름과 맞지를 았다. 현재의 요월대가 정확히 언제 복원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월대라 이름 한 이상 건물의 방향과 어긋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요월대의 설치가 조선시대부터인지 알 수 없어서 뭐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한번쯤은 명칭과 건물방향의 부조화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일이다.

3. 사진의 수집은 역사의 복원이다.

전주의 옛 사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의 일이다. 당시 국립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 중이던 유리원판들 중에서 전라북도와 관련된 일제강점기의 사진을 모아 『옛 사진 속의 전북』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4년 뒤인 2002년 전주풍남제전위원회에서는 제44회 풍남제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출판된 전북 관련 도서에서 사진을 재정리하여 『전주의 어제와 오늘 展』을 열고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높아진 근현대 100년에 대한 관심은 『신문으로 본 전주, 전주사람들』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의 출판으로 이어졌고, 2005년도에는 전주시에 보관 중이던 행정사진 5만여 매를 정리하여 DB화하기도 하였다. 이들 사진 중 도시, 물, 길에 관한 사진들을 모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옛 사진 속 문화풍경, 전북』을 발간하였다.

또한 제5회 전국 강의 날 대회를 앞두고 대회조직위에서 개최한 ‘장릉 속 전주천 추억찾기’ 공모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전시회와 소책자로 발간하였다. 이어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숨겨진 시간을 찾아서’라는 1960년대 이전 전주관련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온고을씨가 들려주는 전주이야기” 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활발한 사진자료의 수집과 도록의 발간은 전주의 역사를 풍부하게 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이전의 단절된 역사를 시각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주성과 전라감영, 경기전, 한벽당 등의 사진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주신사에 관한 사진은 잊혀진 일제의 침탈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울러 해방 이후 특히 1950년대 이후의 전주에 관한 사진들은 급격한 사회발전 단계에서 전주라는 도시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전주사람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불과 50~60년 전의 역사이지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현대 이후 전주 도시공간의 확대와, 도심 개발의 모습, 전주천변에 있었던 판자촌의 풍경이나 새마을 운동, 문화현상들 예컨대 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퍼레이드를 비롯한 반공시위 등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운동들이 담겨져 있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해 무감각한 편이다. 옛 사진 읽기와 관련해서 시급한 것들은 여전히 ‘수집’이다. 앨범 속에 갇혀 장릉이나 벽장에 쳐 박혀 있는 사진들을 찾아 모으고, 선별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진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적으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50년대 이후의 사진을 더 찾기 힘들다. 시대적 환경이기도 하겠지만 60년대까지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대부분은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의 삶을 이해 할 수 있는 사진을 찾기는 쉽지만은 않다. 사진에 삶을 불어 넣는 것, 어쩌면 장롱을 뒤지는 행위야 말로 역사를 찾는 탐험가의 스타일을 맞볼 수 있을 것이다.

민속으로 본 전주 문화

송화섭 || 전주대 교수

〈목 차〉

- I. 서 론
- II. 전주의 역사민속 자료
 - 1. 단오절 성황제
 - 2. 단오절 덕진연못 물맞이
 - 3. 전주 덕진 용왕제
- III. 전주 민속문화의 특성
- IV. 맺음말

I. 서 론

최근 문화재청에서 전주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당을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주가 그만큼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로서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라북도도 판소리의 발상지이다. 그 중심에 전주가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가 집무하는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고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크게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전주 무형문화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사습놀이도 전주가 가진 무형문화의 품격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대사습은 향사례(鄕射禮)에서 파생된 소리놀이이다. 조선시대 소리꾼들이 향사례에서 소리를 부르게 직접적인 동기였다.

전주사람들은 예부터 ‘귀명창’이라 불려왔다. 귀명창은 창을 부르는 소리꾼이 아니라 판소리듣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관행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소리 5마당의 사설에는 사자성어로 된 한문의 문장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한마디로 사서삼경을 한번이라도 읽지 않는 사람이 판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수준높은 문장으로 구성된 판소리 5마당을 듣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전주사람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학문적 소양이 높고 품격높은 문화를 즐긴 사람들이 전주사람이었음을 말해준다.

전주문화의 품격은 후백제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00년에 전훤은 전주에 후백제를 도읍하고 왕도로서 면모를 갖춘다. 비록 36년의 역사를 가진 왕조였지만, 한국사에서 후백제의 도읍지로서 왕도를 꾸린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가 오늘날 전주전통문화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 전주의

토호세력들은 자기들의 전통생활문화를 즐기며 살아왔고, 시대변천에 따라 생활문화는 민속문화로 정착하였으며, 오늘날 전주문화의 DNA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주 민속의 역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생활문화가운데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성황제와 용왕제를 중심으로 전주의 민속문화를 언급하고자 한다.

Ⅱ. 전주의 역사민속 자료

1. 단오절 성황제

단오절(5.1-5.5) 풍속가운데 대표적인 민속이 성황제와 물맞이이다. 이러한 전통이 전주에 그대로 스며있다. 전주 성황제 기록은 1199년(신종 2년)에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말 조선초 전주성황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고 1688년(숙종14년)에 쓰여진 『전주성황사중창기』와 전주 고지도의 성황사 표시와 전주 성황목각상과 전주 동고사적기의 속전기록(俗傳記錄)과 일제시대에 편찬된 『전주부사』를 바탕으로 전주 성황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 차례로 전주 성황제의 역사기록을 살펴보자.

(가) 전주성황제신문(全州城隍祭神文)

“삼가 채소·과일과 맑은 술의 제수로써 ①성황대왕(城隍大王)의 영전에 제사지냅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나물 끼니도 제대로 계속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냥꾼이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바치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 고을에는 예부터 매월 초하루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슴 한 마리와 꿩 토끼를 바쳐 제육(祭肉)에 충당하게 하고, 그런 뒤에 ②아리(衙吏)들이 공봉(公俸)을 받아서 주찬(酒饌)을 갖춰 성황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하기에, 내가 노하여 매질하면서 꾸짖기를 ‘네가 어찌 나에게 알려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무릇 ③제 고을의 선물 꾸러미나 청탁 고기를 거절하지 않고, 산의 살찐 노루나 매끈한 토끼와 곰 발바닥 코끼리 발가락과 바다의 상어·숭어·메기·잉어와 새벽 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맛난 음식을 불러들여 수두룩 앞에 쌓는 자들이야 차마 그 진미를 홀로 다 먹을 수 없어서 대왕에게 바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어찌 나물 끼니로 가난하게 지내는 나로서 달마다 생물을 죽여 귀신을 살찌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의 죄를 더하겠는가? 그리고 귀신도 정직한 귀신이라면 나에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 하고는, 곧 아리(衙吏)들에게 훈계하여 이제부터는 다시 고기를 쓰지 않기로 하고 채소·과일과 주찬 따위의 진설은 알아 하게끔 맡겼다고. 나의 약속이 이러하니, 대왕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바라건대 너그럽게 나를 완악하여 옛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오.”

(나) 全州城隍祠重創記

州有春秋位爲而祭者三 社稷厲壇而城隍亦其一也 旣壇而祭之 則不用爲塑像而塑像之設昉於何代 蓋靈應素者 水旱疾病州之士女必禱焉 年則像亦不爲無助也 年久屋老丹碧漫漶瓦桷傾圯將有腰膂之患州之父老謨者衆而欲重修于以壇樾而僉 古基面北 槐陰覆屋 雖善楫治 末十稔又將如前 移建坐卯 卽世謂甄萱古宮墟也平臨西海 俯看

落照 奇勝敞豁 登之者可一覽而盡之棟宇既易而新之 金碧侖奐 神如有靈 將事者宜福祿而錫之 若夫海吏之行 州民之災 神在此地 神必冥佑 而將事者之姓字 恐久而有泯 遂刊干左

崇禎紀元後再戊辰閏七月 日

(다) 『조선왕조실록』의 성황신상

全州의 성황위판(城隍位版)에 ‘전주부 성황지신(全州府城隍之神)’이라 쓰고,

판위(版位) 뒤에 봉안(奉安)한 신상(神像)이 모두 5위(位)이온데, 영락(永樂) 11년 6월 일 예조의 수교(受敎)에, 성황의 신(神)은 다만 신주(神主) 1위만을 남겨 두되 목패(木牌)에 쓰며, 거기에 설치한 신상(神像)은 일체 다 철거하여 사전(祀典)을 바로잡으라 하였은 즉, 이제 이에 설치된 신상도 또한 철거하여야 합니다³²⁾.

(라) 성황대왕의 속전기록

신라 56대 경순왕의 次子인 法水王子가 출가하여 梵空이란 僧名을 얻었다. 梵空和尚은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귀부한 뒤 東固寺에 입산수도하여 亡國의 설움을 달랜다. 梵空은 新羅 宗廟 및 父王을 숭모하여 이곳 境內에 祠堂을 세운 뒤, 범공은 金傳大王과 가족일가의 塑像을 제작, 봉안하여 辰夕享祀하였는데, 神像 5위는 神壇 右측에서부터 第二夫人 崔氏, 大王, 太子(崔氏所生), 太子妹, 正后許氏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신상오위는 북쪽을 향하여 봉안되어 있었으며, 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城隍祠로 호칭하였으며 김부대왕절, 진불대왕절이라 부르기도 하였다³³⁾.

32) 『조선왕조실록』 권 49 세종 12년조

(가)(나)(다)(라)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는 고려시대 중기 전주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을 묘사하였다.

①의 내용은 전주 성황신의 성황대왕이라 하고 있다. 대왕의 존호를 붙인 것은 그만큼 신격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주의 성황신은 처음부터 성황대왕일 가능성이 크다. “성황대왕”은 전주의 성황신이 고려 중기부터 이미 성황대왕의 신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성황대왕의 신격은 중국적 유풍이지만 그만큼 전주 성황신의 위상이 높았음을 말해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고려시대 전주의 성황사가 위치한 城隍峰(현 승암산)은 全州의 鎮山이었으며, 성산이었다. 1800년대 고지도에는 城隍臺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전주 성황은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년)에 완산(完山)의 鎮山에 계국공(啓國公)의 封爵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 도읍지였던 개성의 송악신에게 내렸던 진국공(鎭國公)과 같은 공작의 작위를 전주 완산성황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그만큼 전주의 진산인 성황봉의 성황신이 지체높은 호국신이란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주 성황신의 신격은 전주의 지방세력의 정치적 위상과 품격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고려시대 내내 전주의 성황신은 김부대왕의 권위 만큼 위상이 높은 城隍大王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인 1393년(태조 2년)에 완산 성황에 가봉한 啓國公 봉작은³⁴⁾ 고려시대에 전주 지방세력의 권세와 신분적 지위가 왕도의 개성세력과 맞먹을 정도였음을 말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33) 「東固寺事蹟記」: 《全北의 傳統 寺刹》 I 권, 1997 : 《全州府史》 1943, 934쪽

34)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태조2년

②의 내용은 전주 성황제를 지내는데, 아리들이 공봉을 받아서 주찬을 갖추었다는 것인데, 이는 관아의 서리들이 월급을 받아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술과 음식을 제물로 준비하여 바쳤다는 것이다 (현재로 말한다면 전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부를 성황제비로 헌납하였다는 내용). 이 내용은 전주 성황제가 국제관사(國祭官祀)였음을 말해준다. 국제관사는 국가제사요, 관청에서 주관하는 제사였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 성황제는 국가제사였으나 조선시대에 음사로 규제를 받았으나 전주 성황은 조선시대에도 小祀의 대상이었다. 전주 성황을 음사로 규제하지 못했던 것도 전주 지방세력들의 권세를 꺾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관아의 아리들이 전주 성황제를 주도해온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부터 전주 성황대왕과 토호세력들의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례를 복원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검토해볼 일이다.

③의 내용은 전주 성황제에 바치는 제물을 주위의 여러 고을에서 청탁하는 선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 전주 향리집단들이 주관한 성황제는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규모였고 번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도호부와 주변의 군현관계는 위계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전주의 성황제에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산해진미이며, 지금도 구할 수 없는 곰발바닥과 사슴, 토끼, 코끼리발가락, 상어, 잉어, 새벽비둘기, 야생 고니 등 매우 귀한 생물을 제물로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성황제의 위상이 높고 극진하게 지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주 음식의 품격은 고려시대부터 명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전주음식의 DNA가 오늘날까지 내려온다고 보아야 한다.

전주의 성황신앙이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지방아리들이 거행하는 성황제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가)의 기록은 고려중기인 1199년(신종 2년)에 이규보(1168~1241)가 완산(현 전주)의 司錄兼掌書記로 부임해와서 겪은 내용의 제신문이다. 이규보가 부임한 이후 성황제를 지내는 광경을 목격하고 비록 성황제물의 낭비와 폐단이 심하다고 힐난하면서도 지방관은 향리들을 매질하면서 꾸짖지만 훈계하는 선에서 제의방식의 변경을 주문하는 정도이다. 지방세력과 지방관 사이에 보이는 앓는 제사권의 갈등 요인이 보이는 부분이다. 지방관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 전주 성황제는 융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고려 인종, 의종대(1122~1170)에 성황신앙이 전국 각 지방으로 확산하는 것에 편승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지방세력간에 성황제사권을 장악하려는 대립적 관계가 (가)의 내용에 스며있다. 전주 성황제가 이미 관례로 정착되었음을 고려할 때에, 고려 초기부터 전주의 강력한 토호세력, 즉 호장과 향리세력이 주도했던 지방자치적인 성황제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관도 지방세력들이 주도하는 성황제를 중단시키거나 제지할 만큼 행정력을 행사하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전주에 거주하는 지식인들은 단오제의 명성을 ‘강릉에게 빼졌어’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강릉단오제보다는 위상이 높고 웅장하였던 전주단오제를 복원하는 길이 전주의 권세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나)의 내용은 조선 숙종년간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드러난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선시대 성황제는 사직단, 여단과 더불어 三壇一廟制가 정착되어 있었고

전주 고을사람들이 춘추로 제사를 봉행하는 관행이 있었다. 둘째, 성황사에는 소상의 성황신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조선초에 전국 성황에 성황신상을 철거하고 위판으로 대체해라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전주 성황사에는 조선 후기까지 성황신상이 있었던 것이다. 셋째, 성황대왕의 영험하여 가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면 전주 고을의 덕망높은 부녀자들이 찾아와 반드시 기도하였다. 전주 부녀자들이 성황사의 성황신을 찾아가 기도하는 민속이 조선 후기에는 정착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성황신앙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향리집단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고을 수호기능에 비중이 더 컸겠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각 향촌사회의 민속신앙으로 정착하면서 부녀자들의 기도처였음을 알 수 있다. 성황신이 지역주민들에게 祈禳祈福(禱雨, 治病)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선 후기에 내려와서는 단청이 낡고 성황사가 기울어 도괴 직전에 지역주민들이 성황사를 이전하는데 합심협력하여 坐卯移建한다는 내용이다. 전주 성황사는 현재 동고사에서 견훤대왕궁터 아래로 옮겨졌음을 밝혀놓은 내용이다.

(다)의 내용은 전주 성황사에 성황신상이 5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주의 성황신은 5위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 정부의 신상 철거 지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까지 신상과 位版이 있었으며 신상은 5위였고 소상이었다. (라)의 내용에 따르면, 현전하는 전주의 성황신상은 5위의 목각상이고 속전하는 기록에 따르면, 5위의 성황신상은 신라 56대 경순왕(김부대왕)의 일가라는 점이다.

전주의 성황신은 처음부터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배향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성황제의 주도세력이 전주의 토호세력이고 이 토호세력들은 견훤정권하에서 성장한 지방세력이고 이들은 필시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추존해야 할 필연적인 인연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부대왕이 실제 대왕이었던 만큼 성황대왕의 신격으로 배향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왜 전주의 성황대왕이 김부대왕 일가나 하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전주의 토호세력들이 일치단결하여 신라 56대 마지막 임금이었던 김부대왕을 성황대왕으로 배향하는데 동의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후백제 기간에 신라 경주에 거주하였던 친견훤의 왕족과 귀족들이 신라 멸망이후 전주로 이거해와 정주하였고, 그들이 후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성황제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라)의 동고사 사적기에 전해오는 내용과 속전기록이 말해준다.

(라)의 내용은 전주 동고사 사적기의 내용 일부이다.

전주 동고사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알려졌다. 동고사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나)에 말해주듯이 성황사가 그곳에 있었고, 숙종 년간에 성황사를 현재 견훤궁터 부근으로 옮기고 있다. 그후 옛 성황사는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일제시대에 동고사가 들어섰고, 그곳에서 전해오는 속전의 내용을 정리해놓은 것이 동고사 사적기이다. 이 사적기는 현재 동고사 약수터 옆에 세워진 사적비에도 그대로 쓰여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법수왕자가 신라 멸망이후에 합천 해인사로 출가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한다. 해인사로 출가하여 얻은 법명이 범공화상이었으며, 범공화상을 모셔온 분이 견훤왕

이었고, 범궁화상이 5위의 성황신상을 봉안해놓고 신석으로 향사하였던 것이다. 견훤왕은 왜 범궁화상을 전주로 모셔온 것일까? 왜 범궁화상은 김부대왕만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5위를 봉안하였는가가 미스터리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그의 형인 마의태자(麻衣太子)를 봉안한 것이 키워드라 할 수 있다.

2. 단오절 덕진연못 물맞이

전주단오제의 두 축은 성황제와 덕진연못 물맞이였다. 성황제는 남자 중심의 향리집단들이 주도하였다면, 물맞이는 여자 중심의 부녀자들이 주도한 세시풍속이었다. 지금도 매년 단옷날에 덕진연못을 찾아가면 물맞이를 즐기는 부녀자들을 만날 수 있다. 단옷날에 굳이 인위적 축제판을 벌이지 않아도 덕진연못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불과 30여년전 만 해도 단옷날에 관습적으로 덕진연못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들도 단옷날에 덕진연못을 찾아오는게 관행이었다. 덕진연못에서 만난 어느 촌로는 “단옷날 덕진연못에 오지 않으면 단오를 안완것 같아...”는 말에 전주 단오절 물맞이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단오절(5.1-5.5)은 인위적인 축제가 아니라 세시풍속의 연중행사를 말한다. 세시풍속은 1년 24절기의 역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동안 관습적, 주기적인 생활양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천체운행의 질서와 계절에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단오는 매우 의미있는 큰 명절이었다. 단오는 계절 전환의

신호이다. 단옷날까지는 봄이지만, 단오가 지나면 여름이다. 단오를 기준으로 날씨 변화를 확연하게 실감할 수 있다. 농촌에서는 대체로 단오 이전에 모내기를 마친다. 봄 파종을 마친 후에 농민들은 잠시 틈을 타 풍년을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기며 노는 것이 전통적인 단오제의 본질이었다.

단오날에 즐기는 음주가무는 단순한 놀이문화가 아니라 통과례를 거행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봄의 문을 닫고 여름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날이 단오날이다. 여름맛이를 기념하여 사람들이 덕진연못에 나아가 물맛이를 즐겼다. 보건의료기술이 침과 단방약에 의존하던 시절에 여름철에 부스럼나지말고 건강하게 지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덕진연못을 찾아 몸씻는 일이 통과례였고, 생활관습이었다. 지금도 사오십대에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나 할머니 손에 이끌려 덕진연못에서 발가벗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덕진연못의 단오절 물맞이는 대단했다. 아마 현재 전국 도시가운데에서 물맞이 풍속이 살아서 전승되는 곳은 전주밖에 없다. 덕진연못 물맞이가 세시풍속의 관행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은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민속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전주시에서도 물맞이 문화를 더 번창시켜 전주단오제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하여 전주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대체로 단오절 풍속은 창포뿌리를 삶아서 우려낸 물로 머리를 감고, 창포뿌리를 꺾어서 다듬어 아녀자들의 머리에 꽂아 端午粧하는 풍속이 있었다. 조선후기 바깥 출입이 어렵던 집안의 부녀자들에게 세시풍속은 바깥출입을 공인받는 기회였다. 바깥출입의 기회는

삼짇날, 단오, 칠석, 백중, 추석 등 이었는데 단오절이 으뜸이었다. 단오절에 여성들은 바깥으로 나와 집안일의 고통과 힘겨움을 벗어 던지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말 그대로 해방절을 즐겼던 것이다. 부녀자들에게 단오절은 해방절이었다. 士女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아름답게 뽀내는 민속을 즐겼지만, 庶女들은 덕진연못에 가서 몸에 걸친 옷가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목욕하는 관행을 일삼았던 것이다. 단옷날 만큼은 가정주부라는 겉옷가지를 훌렁 벗어던지고 해방의 기쁨을 온몸으로 즐기며, 부정을 쫓고 죄악을 씻어내는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여름맞이 통과례를 실행하였다. 단옷날 물맞이를 하므로써, 여름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피부병과 질병을 물리치기를 소망하면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온몸에 끼얹었던 것이다. ‘물세례’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물세례는 물로 몸을 씻는데 의식으로서 물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단오날 ‘물세례’는 시간적 통과례였다. 이러한 물세례는 자신의 몸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를 부여하는 물맞이 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전주 고을 사람들은 단오절에 덕진연못으로 물러들어 물맞이를 하였을까. 전주사람들은 덕진연못이 聖池요, 그곳의 물을 聖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전주 덕진연못의 물은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샘솟듯이 땅속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땅속에서 물기둥이 솟아올라 퍼지는 모습이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연화정을 건축하면서 그 물구멍을 막았다고 한다. 물구멍이 막히고 지하수가 용출하는 곳이 막힌 뒤부터 물이 탁해졌다고 말한다. 불과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덕진연못에는 솟아오르는 청정한 물에서 몸을 씻는 물맞이

(정화의례)를 즐겼던 것이다. 지금도 관행적으로 찾아오는 노인들을 보면, 덕진연못에서 물맞이 단오난장이 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오날에 덕진연못 물맞이는 성수로서 몸을 씻는 세례의식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매년 단오절 연중행사로서 물맞이를 해오는 사람들은 덕진연못의 물이 약효가 매우 좋다고 믿어왔다. 덕진연못의 효험에 대하여 인근 덕암마을 주민들에게서 채록한 덕진연못과 관련된 영험성 및 물의 효험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마)-① 부스럼난 애들은 연못에 가서 한번만 씻어주면 일년은 그냥 간다.

② 발이 불덩이같이 뜨거워 이불속에도 넣지 못했는데, 덕진연못에 가서 발을 씻었더니 잊은 듯이 나왔다.

③ 어깨가 아파서 덕진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였는데 아픈기가 없어졌다.

④ 발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연못에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오는데, 머리결이 린스로 감은 것처럼 미끈하니 좋다.

⑤ 덕진연못에서 자라는 창포뿌리, 줄뿌리, 연뿌리가 썩어서 만들어진 약물이 덕진연못 물이다.

⑥ 눈병이 나면 덕진연못의 물을 씻으면 낫는다.

⑦ 덕진연못의 자라를 잡아다가 시장에 판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듬해에 아이를 낳았는데 자라같은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꼭 자라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16살에 죽었다고 한다³⁵⁾.

35) (J)①~⑦은 필자가 5년전인 2003년에 덕진연못 인근 덕암마을에서 채록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전주 덕진연못은 매년 단오절에 전주권의 부녀자들에게 해방의 공간이었고, 해방의 기쁨을 몸부림으로 누리는 기회였다. 혼자만 즐기지도 않았다. 자녀, 손자들의 손잡고 나와 가족단위로 물맞이를 즐기는 풍속이 크게 번성하였던 곳이다. 부녀자들은 모처럼 바깥출입을 하면서 몸을 씻고 정화시켜 단장한 다음 그네뛰기와 널뛰기를 즐기면서 해방절을 만끽하였던 민속이 아직도 덕진연못에 스며있다. 다시 덕진연못의 물을 샘솟게 하고 그곳에서 단오날 물맞이하는 풍속을 일으키는데 여성단체와 여권신장론자들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 전주권 부녀자들의 해방구를 되찾아 단오해방절을 즐기는 민속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러한 단오해방절이 자칫 난장판으로 변져 추태를 부리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민속이다.

3. 전주 덕진 용왕제

전주 덕진연못의 무늬이(북서쪽 다리밑)에 용궁각이 있다. 이 용궁각은 불과 30년전까지만 해도 용화부인이 머물면서 용왕제는 지낸 곳이다. 지금 이 용궁각은 옛날 옴팡집이라는 음식점으로 변해있다. 이곳에서 용왕제를 언제부터 지낸 것일까. 먼저 덕진연못의 역사부터 살펴보자.

『조선왕조실록』 중종 20년 8월 1일에 전주 덕진연못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가 1525년이다. 전라도 관찰사 홍경림이 전주에 거주하는 지방 선비들과 관리 5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덕진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청원서를 서면으로 올리고 있다. 청원서 내용인 즉, 전주는 다른 지역과 같은 고을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왕실이 발상한 지역

이다. 지형이 남쪽은 높고 북쪽이 허하여 바닥의 기운이 분산되기 때문에 진산을 건지산이라 하고 제방을 쌓아서 덕진이라 하였다. “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1481년(성종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실려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내용은 덕진제방이 조선 전기에 축조되었음을 말해준다. 덕진 제방은 전주의 북서쪽이 공허하여 풍수비보 차원에서 건지산과 가련산을 연결하는 토축 제방이었다. 제방은 물이 흐르는 곳에 흙으로 독을 막았다는 표현이다. 제방은 치수를 목적으로 쌓는 것인데, 덕진 제방은 흐르는 물을 가두어 땅의 기운을 보전하려는 비보풍수의 목적에서 쌓은 것이다. 덕진에 제방을 쌓을 만큼 물의 양이 많았던 것인가. 18세기 전주 고지도에는 덕진제, 덕진지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덕진제는 제방이라면, 덕진지는 덕진에 연못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연못은 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같은 곳이다.

덕진연못이 제방을 쌓아야 할 연못이었다면, 물이 솟아나는 연못이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초에 덕진제방을 쌓았으니 연못은 그 이전의 고려시기에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덕진연못은 수리시설을 목적으로 제방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전주의 북서쪽이 허하여 풍수비보 차원에서 축조한 제방이다. 제방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된 것은 이곳에서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온게 직접적인 동기였을 것이다. 용왕제는 썩은물에서 지내는 관행이 없다 항상 물이 흐르거나 깨끗한 샘물같은 곳에서 거행하는 것이 관례다.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 37권 애사제문에 “전주에서 용왕에게 올리는 기우제”라는 제신문이 전주 덕진연못을 한결 더 성지로 만들고 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A) 「한 나라의 가뭄은 조정에 있는 이들의 수치요, 한 지방의 가뭄은 고을을 지키는 자의 죄라. 생각하건데, 이 남방이 두 경계로 갈라졌으니 나주가 변두리를 들렀고 전주가 그 즈음을 연결하였는데, 어찌 羅州에는 비를 주고 全州만 가물게 하는고? 하늘이 무슨 사가 있어서 그러하랴? 자못 우리들이 정치를 잘못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하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거든 감히 龍王神에게 먼저 빌겠는가? 그러나 하늘의 뜻은 오직 용왕이 주도하는 바라 용왕의 간청이라면 하늘이 어찌 듣지 않으랴? 이때 비를 얻는 것은 관리의 효험이 아니뇨, 바로 용왕의 공입니다. 이 해가 흉년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보답의 제사가 풍부하지 않으리까?」³⁶⁾

(A)는 전라도의 큰 고을인 전주와 나주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려 성종은 982년에 전국을 12목으로 나누고 각 목에 목사를 지방관으로 파견하였는데, 전라도에는 전주와 나주에 목사를 파견한 것이다. 오늘날 전라도는 이때에 탄생된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에 지방관리로 파견되었을때에 전주에 가뭄이 일자 용왕에게 기우제를 올리는 제신문을 지은 것이다. 어찌하여 전주에만 가뭄이 심한 것인가 자문하면서 정치를 잘못하여 생긴 일이라면 하늘의 노여움을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와 어찌 감히 용왕신에게 빌겠는가 하면서 하늘뜻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36) 『東國李相國集』第37卷 哀詞 祭文

「一國之旱則在朝者差一方之旱則守土者罪惟此南方岐爲二界羅帶于陲全襟其會何彼境之得滋獨吾偏之未漚天豈有私而爲是歟殆巨吾輩之政穢天怒不可于詈敢先籲于稱神龍天之潭惟龍所澮龍之請天豈不從在斯時而得兩非吏之效而乃龍之功」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하늘못이라는 이야기이다. 하늘못을 주도하는 용왕에게 비를 내리도록 기우제를 지내겠다는 것이다. 기우제는 지내는 곳을 하늘못(天之潭)이라고 표현해놓고 있다. 하늘못은 '신성한 못'을 의미한다. 하늘못은 물이 웅덩이에 고여 썩은물이 아니라 웅달샘처럼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기에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고 이강오 교수는 덕진연못에 있었던 용궁각을 天門閣이라 불렀다는 자료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이러한 천문각은 전주를 하늘의 선경 세계로 묘사하고 전주로 들어오면 초입에 위치한 덕진연못이 하늘못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하늘못은 백두산의 천지처럼 물이 용출하는 곳이었다. 백두산 천지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비룡폭포로 흘러내리듯이, 전주 덕진연못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북서쪽으로 흘러내렸고, 그 물을 담수하고자 쌓은 제방이 덕진제이다. 제방을 쌓은 이후에 덕진연못 물가에 서 지내던 용왕제(祈雨祭)를 용궁각에서 지내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하늘못의 기록은 덕진연못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하늘못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의 하늘못과 기우제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용왕제가 거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용왕제는 거행한 시절이 사월초파일(4.8)이었다. 사월초파일에 불교의례로서 용왕제를 지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불교의 용왕제가 민속신앙의 대상이었지만,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숭상하던 왕조였기에 사월초파일 용왕제는 불교의례였다. 용왕이 머무는 용궁은 불교의 천상세계인 도솔천 내원궁 밖에 있는 연못으로 도솔천을 호위하는 천룡이 용궁의 용왕으로 주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천상의 용궁이 덕진연못에 그대로 내려왔다고 전주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이다. 천상에서 용왕이 화향의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는 의식을 덕진연못에서 의례적으로 거행한 것이다. 사월초파일 민속은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B) 전주는 사월에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가득하고 연등이 집집마다 걸려있는게 한양과 흡사하다. 佛心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투어 물가에 병풍을 두르고 용왕에게 굿을 하였다. -전주 고을 사월 초파일 풍속에 물위에 병풍처럼 천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서로 유희를 즐겼는데, 이를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것이라고 한다³⁷⁾”

(B)의 기록은 1780년경에 사월초파일에 전주에 내려온 김종정이 전주의 풍경을 보고 『雲溪漫稿』라는 책에 기술한 내용이다. 전주에서 사월초파일에 집집마다 연등을 내걸었는데, 불심을 가진 사람이 덕진연못의 용왕제에 와서 소원을 빌었다는 내용이다. 사월초파일에 덕진연못에서 용왕제를 지내면서 음주가무를 즐겼던 것이다. 이때에 용왕제를 주관한 자가 무당이었고 이러한 관행이 불과 30여 년전까지 용화부인이라는 보살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덕진연못에서 음력 4월초파일에는 용왕제를 지내고 5월 단오날에는 물맞이를 즐기던 민속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덕진연못은 덕진과 연못의 합성어이다. 덕진(德津)은 ‘용왕제를 지내는 나루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천지담으로 ‘하늘못’ 이었다. 하늘못을 주도하는 자가 용왕이었다는 점에서 덕진의 덕은 용왕의 상서로움을 높여서 부르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

37) 金鍾正, 『雲溪漫稿』全州道中

「全州四月雜花香燈火家家似漢陽捨翠佳人爭約伴水頭屏帳賽龍王-州俗四月八日 設屏帳於水上相與飲食遊嬉 以祭龍王云」

하늘뚝이 도솔천의 용궁이 있는 천지요, 그 용왕을 천룡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연못은 '연화장엄한 못'이라는 연지(蓮池)를 뜻한다. 덕진연못의 문에 걸린 현판에 연지문이라고 쓰여있고, 연지의 가운데에 있는 팔각정이 연화정이며, 덕진연못 주변에 위치한 마을이 연화동이다. 연지가 곧 하늘뚝이요, 연화장엄한 불국정토의 세계, 즉 蓮花藏世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용왕제를 지낸 것이 고려시대 용왕제의 관행이었을 것이다.

하늘에 거처하는 용은 천룡(天龍)이다. 하늘의 상제는 6마리의 용을 갈아타고 하늘을 운행한다. 만물의 조화는 하늘의 덕에 있다. 하늘의 덕은 모든 만물에 광명을 비치고 비를 내려 식물과 동물을 생장시킨다. 이는 모두가 만물의 조화를 부리는 '천룡의 덕'이라고 믿어왔다. 그리하여 대체로 용의 그림은 운중발룡(雲中發龍)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건괘는 6단계의 변화과정이 있는데, 용을 등장시켜 식물의 생장을 6단계로 대비하고 있다. 건괘 6단계의 변화과정에 용(龍)이 비유되고 있다.

乾卦는 주역의 八卦 가운데 하나이다. 건(乾)은 하늘의 상징이다. 건은 사괘(乾坤艮巽) 가운데 상형에 속한다. 상형은 천지인의 道 가운데 천(天)에 해당한다. 건괘의 건은 하늘의 형체를 말한다. 하늘은 上帝라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神이라고도 한다. 건괘는 끊임없이 만물을 창조하는 생명력의 근원으로서의 '천도'(天道) 또는 천계(天界)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곤괘(坤卦)는 만물을 포용하고 길러주는 생육자의 땅으로 지도(地道)라고 한다. 덕진연못이 위치하는 곳이 건지산 꼬트머리이다. 전주의 산세가 건방향에 이르러 그쳤다는 말이지만, 또다르게 건지산(乾止山)은 “하늘에 이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건지산 꼬트머리에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문각(天門閣)이 있었고, 그곳을 용궁각(龍宮閣)이라 불렀다. 농사를 짓고나서 벼포기가 우순풍조하여 성장발육을 잘하도록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기우제의 대상은 천룡이며, 천룡은 천상의 세계를 주재하였던 것이다. 운중발룡하는 용의 형상은 불교의 호위신으로 등장하는 용의 모습이다. 도솔천 내원궁의 용궁을 그대로 모사한 곳이 전주 덕진연못인 것이다. 용왕의 덕스러움에 기대어 1,000년동안 살아온 전주 고을사람들은 풍요롭고 살기 좋고 화평한 연화장엄한 전주를 꿈꾸면 살아왔던 것이다.

Ⅲ. 전주 민속문화의 특성

민속은 무형문화재로서 현장성을 매우 중시한다. 현장에서 구비전승 자료는 오랜 세월동안 변화무쌍하게 변모하면서 원형 또는 본질이 왜곡되기도 하고 소멸과 생성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온다. 섯강의 강물이 그대로 흘러가는게 아니라 다른 물줄기를 만나 큰 분류로 향한다. 특히 민속은 쓰여지지 않는 구전의 역사이기에, 그 원형을 찾는 작업은 몇단계의 갈래타기를 시도하거나 원형질의 분류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속자료가 구전이 아닌 문헌기록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해답이다. 전주의 성황제와 용왕제 관련 자료가 고려시대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일이다. 이 역사기록으로 천년 전주의 민속을 파악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원형질을 찾은 것이다. 전주의 민속은 전주라는 그릇속에서 찾아야 한다.

고려시대 전주라는 고을에서 행해진 단오절 성황제와 물맞이 풍

속과 사월초파일 용왕제의 관행은 전주 고을사람들이 추구하였던 이상향과 현실에서의 문화적 능력을 보여주는 관습이요, 관행이라는 점에서 전주의 민속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민속이 혼돈을 겪는 것도 전주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이다. 전주의 진산 문제로 왈가왈부한다. 불과 100여년전에 성황봉에서 승암산으로 바뀌고 다시 치명자산으로 바뀌면서 전주 성황봉의 본질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전주의 민속을 강조해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황제는 민속 이전에 역사다. 역사계승의식이 민속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만들 것이다. 전주에서 현재 도시민속학이라는 관점에서 민속문화를 조사 연구는 할 수 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원형질이 파괴되고 본질이 뒤틀리거나 빛바랜 전통문화에 매달린 채 민속문화를 찾는다는 것은 진정한 전주민속의 탐색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전주사람들이 귀명창이라고 하면서, 대사습놀이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명창을 키우고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소리를 듣고 추임새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인 진정한 전주문화를 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조선후기 전주에서 책을 찍어낸 판본을 '완판본'이라고 불렀다. 완판본은 완산주에서 책을 찍기 위해서 만든 목판본을 말한다. 그런데 완판본은 한양에서 만든 경판본보다 더 우수하고 품질이 좋았다고 한다. 책을 많이 만들어 팔았다는 것은 향유층과 소비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을 뜻한다. 전주에서는 책읽고 글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조선시대 전주 출신의 과거급제자가 많았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책을 많이 찍는다고 공부잘하는 것은 아니다. 붓글씨가 발달하고, 우수한 한지가 만들어지고 한식의 맛이 뛰어난 것도 전주 정서라는 물그릇과 같은 것이

다. 품격높은 사람들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전주고을에서 뿌리깊게 살아오면서 생성시킨 농축시킨 엑기스가 전주 민속이라고 생각한다. 엑기스의 제조 시점은 그 뿌리를 찾아 후백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후백제의 왕도가 조선시대 왕조의 본향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한 도시가 왕도였다가 왕조의 본향을 둔 곳은 전주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후백제시대에 매우 품격높은 왕도문화가 고려시대에 지방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문화적 토양에서 꽃핀 나무에서 결실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규보가 전주시민들에게 물려준 전주 단오절 성황제와 사월초파일 용왕제는 진정한 전주 민속의 원형질일 수 있다. 이러한 민속문화가 비록 자취를 감추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까지 내려온 내려오고 있는 문화를 복원시켜 천년동안 내려온 전주민속이 앞으로 천년동안 물 흐르듯이 흐르게 해야 한다.

IV. 맺음말

천년전주라면 천년전주의 전통문화가 오늘날 생활문화속에 살아 있게 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단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다. 고려시대 민속을 살필 수있는 자료가 국내에는 별로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주에서 관리로 부임하였던 대 문장이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 전주의 성황제신문과 용왕제신문이라는 역사기록을 남겨놓아 전주 민속의 역사를 잊게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런 기록도 없는데 문화를 만드는 판에 얽연한 역사기록을 무시하고 방기한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되살리는데 전주 역사를 부활하는데 전주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천년의 기록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킨다면 어떠한 명분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은 대주제의 명제에 따라 역사기록을 통해서 전주의 민속을 살펴본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문학작품 속의 전주

김병용 || 전주교대 겸임교수, 소설가

〈목 차〉

1. ‘전주의 문학’을 검토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2. 순주의 문학적 공간성
3. 전주의 현대문학
4. 전주 문학의 미래

1. ‘전주의 문학’을 검토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1) 위대한 문학 작품은 동서고금을 초월해 사랑받는다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몇 세대 혹은 다수의 국가나 대륙의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사랑받는 문학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사랑받는 李杜나 <三國志演義> 類의 작품, 대영제국의 식민 지배와 함께 파급된 영어권 작품 일부, 아랍어권 내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나 ‘Rumi’와 작품 등이 제한된 범위 내의 국제적인 작가(품)일 뿐, 작품의 기술 언어권 바깥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작가(품)는 극히 드물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문학의 매체는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정교한 의사 소통의 도구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친족처럼 분류, 배우기 쉬운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어떤 언어든지 외국어는 외국어이다. 모든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자구(字句)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심연이 존재한다.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넘어가는 일(통역이나 번역)의 지난함에 대해 우리 민족만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이들도 없을 것이다. 한자와 일본어, 영어/러시아어의 침탈 앞에 끊임없이 저항을 거듭해온 것이 한국어가 걸어온 험난한 길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언어의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문화적 콘텍스트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절로 학습하지 않았던가.

또, 언어는 그 내부에서 심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고, 의미의 변천 또한 심각하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의 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어가 본격적으로 문자언어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의 한국어와 지금의 한국어 사이에도 심한 의사 불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현대문학의 선두 자리에 있는 이광수나 김동인의 작품을 지금 중고생들이 편하게 읽으려면, 전공 학자들의 정교한 주석 작업 내지 번역(?)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시대·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제 의미를 발휘한다. 신라 향가를 높은 문학성에 대해서는 찬탄할 수 있으나, 신라 향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송강의 <사미인곡>을 읽고 뜨거운 우국충정이 솟아나는 이도 그리 많지 않으리라. 이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혼불>을 통해 '혼불'이란 단어가 알려지면서 이제야 국어사전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아직도 지역간 언어 격차는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모든 문학 작품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며 어떤 문학 작품도 그 작품이 속한 언어 지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 문학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2) 문학은 개인의 소산인가, 집단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외로 쉽지 않다. 전라도가 자랑하는 '판소리'를 두고 생각해보자. 더구나 국악 분야로 가면, 이 질문은 답은 더더욱 곤란해진다. 임방울이나 김소희가 부르는 판소리는 남들과

다른 독특한 개성을 분명히 안고 있다. 결국, 답은 구비문학이 갖는 積層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데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한국문학계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서구문예이론은 한결같이 ‘實名 著者の 個性’을 강조한다. 이같은 대전제에 기반을 두고 서구 문예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특히 산문 분야에서 文·史·哲을 하나로 보고 典故를 중시했던 동아시아 쪽의 문학 전통은 적잖이 입지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헤겔미학과 ‘루카치’의 강한 영향을 받은 한국 내 주류 문예이론이 ‘民族語의 사용’과 ‘個人性的의 발현’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분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학계가 끊임없이 전통 단절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도 당연한지 모른다.³⁸⁾ 문화 수입상의 알박한 논리로 비난을 받곤 하는 임화의 ‘이식문학론’도, 관점을 달리 해서 보면, 그 조준점이 전통과의 단절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배의 어깨 위에 올라 탄 후배’와 같은 ‘전통과 창의적 개성’ 류의 이야기는 우리 문학계에 적용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가 가람 이병기와 신석정 시인을 주목했던 이유가 나는 바로 이같은 사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람은 (설령 효과는 미흡했다 할지라도) 시조 부흥운동을 통해 고전과 격변기의 당대문학의 접목을 시도하였던 안목 높은 문학 거인이었고, 석정은 소월, 백석, 영랑 등과 마찬가지로 평생 자신의 시 작업을 통해 내재적

38) ‘전통의 단절’이란 관점에서 한국문학사가 안고 있는 3대 과제는 ① 漢文學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② 이른바 ‘한국 현대문학’의 기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③ 광복~분단 이후의 문학사에 발생한 몇 개의 斷層(남북한 문학사, 월북-숙청 작가 재평가 문제, 남한 문단 내부 문제)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미를 탐구한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우리가 말하는 ‘전주’ 에게는 두 가지 전주가 함께 들어 있다.

즉,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왕조의 발흥지였으며, ‘전라도’의 首府였으며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으며 당대의 위대한 출판문화도시로서 위상이 찬란했던 ‘全州’가 있고, 현재 인구 60만명을 간신히 상회하는 지방 소도시 ‘전주’가 있다. 편의상 ‘全州’를 문학의 전통적 공간으로 지칭하고 ‘전주’를 현대문학 공간으로 칭하기로 하자.

‘全州’와 ‘전주’의 문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일은 ‘문학은 ‘平地突出’이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논리 전개상 위에서 언급한 한국문학사의 전통 단절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전주의 문학’이란 논지의 글이 가능하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전주이기 때문에’, 아니면 ‘전주에서 먼저’ 이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2. 全州의 문학적 공간성

‘천년 전주’라는 말을 가만히 새겨보면 참으로 가슴 벅찰 때가 있다. 천 년 전에도, 아니 그 천 년 전에도 여기 사람들이 살았다니… 전북의 경우 대부분 오랜 촌락·도시여서 그다지 감동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허허벌판에 우르르 일어서는 수도권의 위성 신도시들을 생각해보면 全州가 지닌 역사적 공간성은 보통의 遺産이 아니다.

藝鄉이나 文鄉을 자처하는 도시들이 많지만, 실제로 한 도시가 상징적으로 보유하고 콘텐츠의 관점에서 보면 全州에 비길만한 도시를 찾기 힘들다.

《〈高麗史〉》三國俗樂 百濟 條를 보면 全州를 꼭지점으로 하는 전라도 권역을 배경으로 탄생한 여러 노래가 등장한다. 무장(고창군 무장면) 사람이 먼 고장으로 부역을 나갔는데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그 사람의 아내가 그를 생각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바라보며 불렀다는 〈선운산가〉, 도적에 잡혀간 양가의 아낙이 지아비가 곧 와서 구해주지 않는 것을 풍자하여 불렀다는 〈방등산가〉, 미모를 탐낸 백제왕이 첩으로 들이려고 하자 죽기를 맹세하고 이 노래를 지어 가난 속에서도 부도를 다했다는 남원 지방의 〈지리산가〉, 행상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산 위에 올라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는 〈정읍사〉 등이 그것이다. 또, 鄉歌중 釋永才가 지은 〈우적가〉의 배경도 지리산이다.

海東文聖 최치원에 관한 일화가 군산 지역에 남아 있고,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金鰲新話》중 〈만복사저포기〉를 남긴 김시습도 이 지역과 인연을 맺었고, 가사문학을 새롭게 개척한 〈상춘곡〉의 작자 정극인이나 부안의 매창과 반계 유형원, 익산의 소세양, 진안의 여류시인 김삼의당 같은 조선조의 문인들까지 全州권역의 문학은 면면히 이어졌다.

그뿐인가, 全州는 근대 이전 가장 중요한 출판문화도시였다. 全州는 판소리 사설을 고전소설로 승화시켜, 한국문학사를 찬란히 빛낸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을 찍어낸 곳이었다. 全州에서 찍어낸 책을 완판본(完板本)이라 부른다. 이는 완산에서 목판이나 활판으로 찍은 책을 일컫는 말이다. 완판본이란 말은 흔히 서울에서 만든 경판

본(京板本)과 대립되어 쓰인다. 당시 全州에서 발간한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을 비롯한 책들과 서울에서 만든 경판본 책들이 우리나라 책의 주류를 이루면서 출판 시장을 석권하였던 것이다.

全州에서는 1803년 한문본 〈구운몽〉을 시작으로 〈전등신화〉와 〈삼국지〉를 출판하였고, 1823년 평화동 원석구 마을에서 〈별월봉기〉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이 당시만 하더라도 全州 인근에서 20여 종류의 주옥같은 한글 고소설이 발간되었다. 〈열여춘향슈절가, 별춘향전, 심청전, 심청가, 홍길동전, 삼국지, 언삼국지, 소대성전, 용문전, 유충열전, 이대봉전, 장경전, 장풍운전, 적성의전, 조웅전, 초한전, 퇴별가, 화룡도, 임진록, 별월봉기, 정수경전, 현수문전, 구운몽〉 등이 그것이다. 이 것들을 합하면 약 50여 종류의 소설이 발간된 셈이다. 1803년부터 1937년까지 소설만 무려 130여 년간 출간되었던 것이다. 출판문화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세운 셈이다. 全州에서 발간된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과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차이점은 아주 두드러진다.

첫째, 경판본(서울본) 한글 고전소설이 양이 매우 빈약하게 출판된 데 비하여, 완판본(전주본)은 동일한 소설이라도 양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야기(소설, 설화)에 대한 감각이 매우 풍요로웠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래서 한글 고전 소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완판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둘째, 안성판과 경판본이 18세기 말에 나왔고, 완판본이 19세기 초에 간행되어 약 30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全州에서는 무려 130여년 간이나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全州의 경제·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서울과 대등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고소설 이외에도 수많은 판매용 책을 찍어서 서울과 다른

지방에 판매망을 두고 판매를 하였다는 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출판 문화가 대단히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읍 태인은 지방에서는 최초로 1664년에 판매용 책을 찍은 고장이다.³⁹⁾

다음, 또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은 세계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판소리’의 본향이 바로 全州라는 것이다. 全州大私習과 앞서 살펴본 출판도시의 면모가 합해져 남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판소리는 문자 문화로 정착되었고,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신재효의 판소리 여섯 바탕 정리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근대 초기까지도 全州가 지닌 문화도시의 위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제 시대 주요 문인들이 대거 이북에서 배출되어(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소월, 백석, 이용악), 상대적으로 각광을 덜 받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게감을 더하고 있으며, 최근 탄생 100주기를 지난 신석정의 문학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조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3. 전주의 현대문학

주마간산격으로 훑어본 全州 시기의 문학도 휘황한 것이지만, 현재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 해방 이후로 한정해 살펴보면, ‘전주’의 문학이 ‘全州’의 그것에 버금가거나 오히려 더 창성한 느낌을 준다.

전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의 문학을 논하려면

39) <더불어 사는 전주> 2003년 6월호 참조.

어쩔 수 없이 행정경계구역을 뛰어넘게 된다. 전주에서 나거나 살았거나 거쳐간 이들이 모두 전주와 인연을 맺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①전주(북) 출신 ② 전주 거주(생활및 학습 이력)자 ③전주(북) 배경 문학 작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많은 문인들이 이 조건들을 복수로 충족시키고 있음은 물론이다.

1) 전주(북) 출신

앞서, 언급한 가람과 신석정과 김해강 시인이 해방 이후 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라면,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문인 중 전주(북) 출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 등지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미당 서정주를 맨 앞에 꼽아야 마땅하다. 그는 우리 한국문학사의 불멸의 존재라 할 수 있다. 그의 문학과 행각만큼 많은 논란과 화제의 대상이 되었던 문인은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 好惡를 떠나 그의 작품은 후배 시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한국 시문학의 영구 텍스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당 서정주 이래 한국시단에는 전주(북) 출신 문인들이 기라성처럼 많이 등장한다.

해방 이전 소설 작가 중 이 지역 출신 거목은 <탁류>의 작가 백룡 채만식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친일 문제로 곤혹을 겪고 있긴 하지만, 특히 군산 지역민들의 채만식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채만식만큼 식민지의 풍경을 적확히 그려낸 작가를 찾기도 힘들다. 군산 하구둑 근처에 ‘채만식문학관’이 문을 열고 있다.

한국문인 중 ‘노벨문학상’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고은

시인은 지금도 활발한 시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문학계의 거목으로 그가 지닌 문학외적 위상 역시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문인회담 제창, 거래말큰사전 편찬 주도 등 그의 발언의 지향점은 문학을 통한 통일에 가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람의 문하에서 배출된 최승범, 구름재, 최진성, 이기반 등은 1960년대 이후 전주의 문단을 풍요롭게 하였다. 이들의 산하에서 또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것 또한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석정의 문하에서 배출된 이병훈, 황길현, 허소라, 김민성, 이운룡 등 또한 마찬가지로 전북문단이 자랑하는 소중한 문학적 자산들이다.

출향문인 중 최원로급에 해당하는 문인으로는 소설가 최일남을 꼽을 수 있다. 1970~80년대 수준 높은 문필 활동과 언론 활동을 병행하였던 최일남은 현재 (사)한국작가회의의 이사장을 맡아, 한국문학의 내실화와 외연 확대에 앞장 서고 있다.

이와 같은 출향 문인들 중 중앙문단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이로는 윤홍길, 박범신, 양귀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주사범-전주여고 등을 졸업한 이들은 원광대 국문과를 거쳐 서울로 진출한 이래 한국문학의 중흥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장마〉, 〈완장〉, 〈에미〉의 작가 윤홍길은 작품 내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한국적 산문 공간을 창조한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나마스 데〉, 〈물의 나라·불의 나라〉 등의 작가 박범신은 1970~80년대 한국문학계의 시장 확대는 물론, 1990년대 이후 심도 깊은 문학 세계를 구축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공히 전주사범에서 문학청년 시절을 보냈으며, 모두 도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에 등단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주여고를 나온 양귀자는 〈원

미동 사람들》, 〈숨은 꽃〉 등의 작품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작가로, 한국 여성작가를 대표하는 문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소녀 시절의 추억이 가득 배인 전주의 홍지서림을 인수해 고향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도 지역민들에게는 유명하다.

양귀자의 뒤를 이어 현재 한국문학계의 가장 저명한 소설가 그룹에 속하는 은희경, 신경숙도 이 고장 출신이다. 이들은 〈새의 선물〉이나 〈외딴 방〉과 같은 대표작들을 통해 전주(북)에서 지낸 학창 시절과 문학 수업기를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또, 한국소설계의 중진인 송하춘이나 최기인, 최인석, 김종록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전북 출신들이다.

시문학계에서는 이가림, 이향아, 김해성, 강인한, 故박정만, 하재봉, 백학기, 남진우, 유하, 유용주, 박형준, 장일문 등을 대표적인 출향 문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독특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한 이들로 현재 한국 시단(혹은 문학 인접 영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평론계에서 활동중인 한기, 김만수 등도 전주에서 나고 공부한 이들이다.

재전 문인들의 수는 훨씬 더 많다. 앞서 언급된 가람, 석정 문학 그룹의 원로 작가들은 물론, 故박항식, 천이두, 홍석영, 정양, 송하선 등은 두터운 전북문학층의 상층부에 위치한 문인들이다. 이들은 공히 대학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외에도 작고한 문인들 중 故정렬, 故이광웅, 故이상렬 등 또한 전주권역을 떠나지 않고 뿌리 깊은 문학 활동을 펼쳐 왔다.

작가 故최명희는 전주에서 나고 교육받았으며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서울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가, 죽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모교인 전북대에 안장된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전주에 ‘최명희문학관’, 남원에는 ‘혼불문학관’이 건립되었다.

김남곤, 이보영, 이시연, 故박종수, 김용택, 이병천, 김익두, 곽병창, 송준호, 김병용, 유강희, 박성우, 최기우 등 전주권역에서 나고, 문학 수업기를 보냈으며, 현재 한국문단의 주역으로 활동 중인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향을 지키며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신의 모교에서 퇴직까지 한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은 한국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전북 지역의 수준 높은 문학성을 한껏 발휘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주(북) 거주(생활 이력)자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전형적인 농도였던 전북은 인구와 자산이 고스란히 유출되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전주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문인들이 있었다.

우선, 교육도시 전주가 갖는 흡인력으로 인해 전주에서 공부한 문인들이 있다. 故신동엽(부여, 전주사범), 오세영(영광, 신흥고-기전여고 교사 역임), 이시영(구례, 영생고), 이영진(광주, 우석대), 박남준(영광, 전주대), 정도상(함양, 전북대), 오봉옥(광주, 전주대) 등을 대표적 문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전북에서 보낸 학창 시절의 문학적 훈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인들이다.

이와는 달리 전주에서 거주하기 위해 이주해온 문인들이 있다. 먼저, 전북 내에 직장이 생기면서 이주해온 문인들로는 서정인(전북대), 이희중(전주대), 강연호(원광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은 이주 이후 완벽하게 이곳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수없이 많은 문

학 제자들을 길러낸 공로만 따져도 매우 소중한 인재들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전주가 좋아서’ 이주해온 문인들을 꼽아보면 대표적으로 故박봉우 시인과 안도현 시인,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인 중 모악산에 오래 거주하였던 박남준 시인이 있다. 많은 기행과 일화를 남겼던 故박봉우 시인은 전주시립도서관(금암동)에 재직하는 동안, 전주의 문학에 건장한 긴장감을 불러 넣었고, 원광대 진학과 함께 이곳에 터를 잡은 안도현 시인은 ‘전주 사람보다 훨씬 더 전주 사람 같다’는 평을 들으며 많은 문학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우석대 문예창작과에 자리를 잡았다. ‘모악산방’의 주인이었던 박남준 시인의 집에 한 번 다녀가지 않은 사람은 전북의 문화예술인이 아니라는 말이 나돌 만큼, 마당발이었던 박남준 시인은 현재 지리산 자락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를 모악산의 시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소설가 이준호나 전주에서 활동 중인 문병학, 문신 시인도 대학 진학과 함께 전북에 자리를 잡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외, 공선옥 작가처럼 전주 문단의 향기에 취해 이주해왔던 경우도 있다.

3) 전주(북) 배경의 문학 작품

해방 이후 작품 중에서 전북이 배경이 된 작품 중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은 조정래의 <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의 작품을 기려 김제시에서는 ‘아리랑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제 시대 동진농조의 간척사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당대 전북의 풍경을 여실히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은 이 지역 작가 임영춘의 <갯들>과 모티브가 흡사하여, 자주 비교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혼불> 또한 전북이 낳은 자랑스러운 문학 작품이 아닐 수 없다. 1930년대 남원과 전주를 배경으로 하는 종부 3대의 이야기는, 작가 특유의 우미한 문체와 만나 한국장편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은 신동엽의 <금강>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양질의 작품이 탄생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다. 굵직굵직한 것만 꼽아봐도 송기숙의 <녹두장군>, 한승원의 <동학제>를 비롯하여 월북한 박태원이 구술로 완성했다는 <갑오농민전쟁> 등의 소설 작품이 있고, 안도현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을 비롯한 시작품들은 시집한 권 분량 이상으로 배출되었다.

한국전쟁 또한 한국문학사가 엄중하게 탐구해온 문학 과제이다. 현재 3도 5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이나 임실 회문산, 무주 덕유산, 진안 운장산 등은 한국전쟁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던 곳으로 각기 이태의 <남부군>, 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에서 깊이 탐구되었다.

4. 전주 문학의 미래

작년 전주에서 열렸던 아시아-아프리카문학페스티벌은 ‘全州’와 ‘전주’가 갖는 문학적 위상을 잘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왜 이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적으로 있을 수 있었으나, 한국 개최가 확정된 이후 개최지 논의에서 ‘전주’에 관한 논란은 거의 없었다. 그때, 전주를 개최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였다.

- ① 전주는 위대한 문학의 도시였다(판소리, 출판문화 등)
- ② 전주는 아시아의 농경문화 특성(특히, 지역 공동체)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도시이다
- ③ 전주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문학 생산지이고, 문학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이다.

①과②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이야기 일테지만 이중 ③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듯 하다. '전주'를 개최지로 선정하게 된 데에는 전주 문인들의 힘도 많이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타지역 문인들의 적극적인 천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구 동성, 1960년대 서울과 1970년대 광주 이후 한국 문학도시의 맥은 전주가 잇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문학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문학과 삶을 함께 공유하는 문학 선후배들의 모습은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전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일본 도쿄 외곽에는 '타바타(田端)문사촌'이라는 문학관이 있다. 전후 일본의 문학가들이 우연히(?) 타바타 지역에 함께 거주했다가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졌다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지극히 일본적인 문학관이다.

전후 서울에서 광주로 현재 전주로 '문학공동체의 정신'이 이동하였다는데 동의한다면, 언젠가 전수도 다른 지역에 문학도시의 이름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역사 속의 '全州'나 현재의 '전주'를 문학도시로 만든 것은 이 지역이 문학도시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독자 대중, 시민층의 기반이 두텁기 때문일 것이다. ‘찾아가는 문학교실’과 같은 문학대중화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호응도에 어느 지역에서는 시들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여전하다.

‘문학도시 전주’는 문인들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주에 거래문학관을 짓자는 논의도 있었다.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치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내가 사는 이곳이 무엇보다도 문화도시, 특히 문학도시로 성망이 높은 것을 기꺼워하는 시민들이 있는 한, 전주는 오래토록 한국현대문학사의 주요한 공간 거점으로 이름을 남길 것이다.

완산지(完山誌)에 나타난 전주

변주승 ||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 교수

〈목 차〉

- | | |
|---------------|-------------|
| 1. 건치연혁(建置沿革) | 8. 누 정(樓亭) |
| 2. 산 천(山川) | 9. 고 사(故事) |
| 3. 풍 속(風俗) | 10. 인 물 |
| 4. 형 승(形勝) | 11. 효 자(孝子) |
| 5. 묘 전(廟殿) | 12. 효 녀(孝女) |
| 6. 단 사(壇祠) | 13. 열 녀(烈女) |
| 7. 학 교(學校) | 14. 효 부(孝婦) |

완산지(完山誌)⁴⁰⁾에 나타난 전주

1.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백제(百濟)의 완산(完山)이다.<일명 비사벌(比斯伐)⁴¹⁾이라고도 하며, 일명 비자화(比自火)라고도 한다.>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 16년(555)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가 26년에 주를 없앴다. 신문왕(神文王) 때 완산주를 다시 설치했다.景德왕(景德王) 16년(757)⁴²⁾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9주(州)⁴³⁾를 갖추었

40) 완산지: 본고에서는 다루는 『완산지』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한 『여지도서(輿地圖書)』 전주부(全州府) 편에 실린 『완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조 33년(1757)에서 41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영조 36년 이후에 전국의 읍지를 수집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지도서』는, 결책(結冊)된 원본 55책에 빠진 부분이 없다. 그런데 당시의 행정구획과 대비해보면, 강원도·황해도·함경도·평안도의 읍지는 완질(完帙)이지만,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일부 읍지는 결책(缺冊)되고 있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한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완산지』는 원본 『여지도서』에 빠진 부분을 보유(補遺)한 것으로서, 고종 32년(1895)에 편찬한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실린 『완산지』를 수록한 것이다.

41) 비사벌: 영인본에는 ‘比新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比斯伐’이라고 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건치연혁’). 『완산지』 「군명(郡名)」 조에도 ‘比斯伐’이라고 되어 있다. 후자를 따라 번역한다.

42)景德왕 16년: 영인본은 ‘景德왕 15년’으로 나오는데, 이는 ‘景德왕 16년’의 오키로 보인다. 9주의 명칭은景德왕 16년(757)에 한식(漢式)으로 크게 한 번 개정되었으며, 혜공왕(惠恭王) 12년(776)에 다시 복구되었다가 9세기 중엽 이후에景德왕대의 개정 지명으로 사용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권9, 129쪽).

43) 9주: 신라시대, 지방 행정 구역의 아홉 주(州)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사벌주(沙伐州)·삼랑주(歙良州)·청주(靑州)·한산주(漢山州)·수약주(首若州)·웅천주(熊川州)·하서주(河西州)·완산주(完山州)·무진주(武珍州) 등의 아홉 주를 두었다.景德왕 16년(757)에 사벌주를 상주(尙州)로, 삼랑주

다. 효공왕(孝恭王) 때,甄萱(甄萱)이 여기에 도읍을 세우고 후백제(後百濟)라 일컬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19년(936) 신검(神劍)을 쳐서 평정하여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바꾸었다가, 23년에 다시 전주(全州)라 했다. 성종(成宗) 11년(992) 승화절도안무사(承化節度安撫使)라 불렀고, 14년에 12주(州)⁴⁴⁾에 절도사(節度使)를 두고 순의군(順義軍)이라 이름하고 강남도(江南道)에 예속시켰다. 현종(顯宗) 9년(1018)에 안남대도호부(安南大都護府)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전주목(全州牧)으로 고쳤다. 공민왕(恭愍王) 4년(1355) 원(元)나라 사신 야사불화(桒思不花)를 가둔 일 때문에 부곡(部曲)으로 강등했다가 5년에 다시 완산부(完山府)라 했다.

조선(朝鮮) 태조(太祖) 1년(1392)에 임금의 고향이라고 하여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시켰다.⁴⁵⁾ 태종(太宗) 3년(1403)에 지금의 이름인 '전주(全州)'로 고쳤다. 세조(世祖) 때에 진(鎭)을 두었다.

진관(鎭管)⁴⁶⁾〈익산(益山), 김제(金堤), 고부(古阜), 금산(錦山),

를 양주(良州:梁山)로, 청주를 강주(康州:晉州)로, 한산주를 한주(漢州:廣州)로, 수악주를 삭주(朔州:春川)로, 웅천주를 웅주(熊州:公州), 하서주를 명주(溟洲:江陵),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무진주를 무주(武州:光州)로 고쳤다. 주에는 군(郡)을 두고, 군 아래에는 현(縣)을 두었다. 주에는 총관(總管), 군에는 태수(太守), 현에는 영(令)을 장관(長官)으로 했다.

44) 십이주: 고려 성종 때 전국 10도(道)에 두었던 지방 행정구역인 열 두 주(州), 곧 양주(楊州)·해주(海州)·광주(廣州)·황주(黃州)·충주(忠州)·청주(淸州)·공주(公州)·전주(全州)·상주(尙州)·진주(晋州)·나주(羅州)·승주(昇州)를 이르는데, 장관으로 절도사(節度使)를 두었다.

45) 조선 태조 1년-승격시켰다: 완산부로 승격시키고, 유구(柳珣)를 부윤으로 삼았다(『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7일(병진)).

46) 진관: 조선시대의 지방 군사 조직인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의 체제를 이르는 말이다. 세조(世祖) 3년(1457)에 군익도(軍翼道) 체제를

진산(珍山), 여산(礪山), 정읍(井邑), 흥덕(興德), 부안(扶安), 만경(萬頃), 옥구(沃溝), 임피(臨陂), 금구(金溝), 용안(龍安), 함열(咸悅), 고산(高山), 태인(泰仁)이다.〉

2. 산 천(山川)

건지산(乾止山)〈진안(鎭安) 마이산(馬耳山)에서 뻗어 나와 고을의 진산(鎭山)⁴⁷⁾을 이룬다.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

완산(完山)〈관아의 남쪽 고덕산(高德山)에서 뻗어 나와 고을의 안산(案山)⁴⁸⁾을 이룬다. 관아의 남쪽 3리에 있다.〉

가련산(可連山)〈관아의 서쪽 10리에 있다. 건지산의 산세가 여기에 와서 끊겼는데, 민간에 전하기를 이어져야 할 만한 곳에서 끊어졌다는 뜻에서 ‘가련산’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웅현(熊峴)〈관아의 동쪽 47리 진안현(鎭安縣)과의 경계에 있다. 정유재란 때에 김제 군수(金堤郡守) 정담(鄭湛)과 해남 현감(海南縣監) 변응정(邊應井)이 의병을 앞장서 이끌고서 고갯길을 차단한 채 하루 종일 크게 싸워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을 죽였다. 날이 저물

개편하여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관할하는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몇 개의 거진을 두고, 그 밑에 절제도위(節制都尉)·만호(萬戶) 등이 관할하는 여러 진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체제를 이루었다.

47) 진산: 도읍이나 성시의 뒤쪽에 있는 큰 산이다. 그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으로 정하여 제사지냈다. 조선시대 때에는 오악(五嶽)이라 하여 나라의 진산으로 동방의 금강산(金剛山), 남방의 지리산(智異山), 서방의 묘향산(妙香山), 북방의 백두산(白頭山), 중심의 삼각산(三角山)을 진산으로 삼았다.

48) 안산: 집터나 못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산이 중첩하여 있을 때에는 내안산(內案山)·외안산(外案山)으로 구별한다. 여기서는 전주부의 진산인 건지산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무렵 화살이 모두 동나자 두 사람은 함께 죽었다. 그 나머지 의병 장사(壯士)들로 따라 죽은 사람들이 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왜적들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모두 모아다가 여러 개의 큰 무덤을 만들고 묻어주었다. 무덤 위에다 나무를 세우고 쓰기를,

“조선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정의로운 담력을 가진 영혼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弔朝鮮國忠肝義膽].” 했다.>

현무지(玄武池)<진북정(鎭北亭)에서 백 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다. 북쪽 성 안팎에는 인가가 없이 단지 텅 비어있었다. 정조 병진년(정조 20년, 1796)에 판관(判官) 윤광수(尹光垂)가 연못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워 그 지세를 보완하여 ‘현무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둘레가 3백 38척이며, 물의 깊이는 3척이다. 민간에서 전하는 말에 따르면, 차씨(車氏) 성을 가진 부자의 옛 집터가 북성(北城) 안에 있었다고 한다. 연못을 파다가 때마침 그 곳에 이르렀지만, 연못 파는 일을 다 마치도록 차 부자 집의 터라는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쇠로 만든 쇠로 만든 철관(鐵冠)⁴⁹⁾ 하나를 얻었는데, 승려가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부처님의 관(冠)이다”고 했다. 또 부서진 벽돌 한 조각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승의사(勝義寺)’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차 부자의 집터와 절에 대해 언급할만한 연혁이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아득한 옛날의 고적인지라 명확히 입증할 길이 없다.>

3. 풍 속(風俗)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주기(州記)에,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이 섞여 있으며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라고

49) 철관: 쇠로 살을 댄 관이다.

했다.>

백성들이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다.<이규보(李奎報)의 기문(記文)에, “사람과 물산이 번성하고 화려하며 가옥이 즐비하여,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기풍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고 모두가 의관을 갖춘 선비와 같다.”라고 했다.>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은 대부분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한다.<이경동(李瓊叄)의 기문⁵⁰⁾에 나오는 글귀이다.>

남부 지방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곳이다.<서거정(徐居正)의 기문⁵¹⁾에 나오는 글귀이다.>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상품을 사고판다.

4. 형 승(形勝)

나라의 발상지이며,⁵²⁾ 산천(山川)의 경치가 빼어나다.<모두 윤곤(尹坤)의 기문(記文)에 나오는 글귀이다.>

주(周)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⁵³⁾과 같은 지역이며, 전라도의

50) 이경동의 기문: 이경동의 진남루(鎭南樓)에 대한 기문(記文)에 나오는 글귀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누정’).

51) 서거정의 기문: 서거정의 전주 향교에 대한 기문에 나오는 글귀로서, ‘전주는 우리 역대 임금님의 고향이며 남부 지방의 인재가 모인 곳이다.’라고 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학교’).

52) 나라의 발상지이며: 영인본은 ‘豊浦’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향 이름이다. 여기서는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전주 이씨(李氏)로서, 그의 선조가 전주에 살았다는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53) 주나라의-일어난 곳: 영인본은 ‘郃爾’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郃)’는 주나라의 선조 후직(后稷)이 처음으로 봉(封)함을 받은 나라이며, ‘빈(爾)’은 주나라 문왕(文王)의 조상 공류(公劉)가 다스린 나라이다. 여기서는 전주가,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조상이 살던 곳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으뜸 고을이다.<모두 서거정의 기문⁵⁴⁾에 나오는 글귀이다.>

안팎으로 산과 강이 휘감아 돈다.<성임(成任)의 시에, “안팎으로 산과 강이 전주의 영역을 휘감아 돈다.”라고 했다.>

5. 묘 전(廟殿)

조경묘(肇慶廟)<관아의 동쪽 성안에 있다. 영조(英祖) 신묘년(1771, 영조 47)에 처음으로 세우고 사공공(司公公)⁵⁵⁾의 위패를 받들어 모셨다.>

영(令)<1명이며, 음관(蔭官) 종5품이다.>

별검(別檢)<1명이다.>

수문장(守門將)<1명이다.>

경기전(慶基展)<관아의 남쪽 성안에 있다. 영락(永樂)⁵⁶⁾ 경인년(1410, 태종 10)에 처음 세우고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초상화를 받들어 모셨다. 임진왜란 때에는 그 초상화를 임금이 임시로 계시는 행재소(行在所)로 옮겨서 모셨는데, 경기전 건물도 역시 뒤이어 불타버렸다. 광해군(光海君) 갑인년(1614, 광해군 6)에 관찰사(觀察使) 이경전(李慶全)이 경기전을 다시 고치고 비로소 초상화를 다시 모셔왔다.>

영(令)<1명이며, 음관(蔭官) 종5품이다.>

54) 서거정의 기문: 서거정의 전주 공북정(拱北亭) 기문에,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선대가 일어난 태빈 땅과 같은 곳이다.” 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누정’).

55) 사공공: 전주 이씨(李氏)의 시조인 이한(李翰)을 가리킨다. 조경묘에는 신라 때 사공(司公) 벼슬을 지낸 이한과 그의 부인 경주(慶州) 김씨(金氏)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이한으로부터 21대 후손이다.

56) 영락: 명(明)나라 성조(成祖)의 연호(1402-1424)이다.

참봉(參奉)〈1명이며, 음관(蔭官) 종9품이다.〉

수문장〈1명이다. 수복(守僕)이 210명이며, 금화(禁火)가 100명이다.〉

○ 노포(老圃) 유순(柳洵)의 시가 전한다.

應斯叶錄靖東韓 시기에 호응하여 예언대로 우리나라 평정하니

塗炭群生就奠安 도탄에 빠진 백성들 평안하게 하였구나.

聖德故應祠百世 임금의 덕 마땅히 오래도록 제사지내 기리리니

千秋廟貌煥丹青 영원토록 그 사당⁵⁷⁾의 단청은 빛나리라.

6. 단 사(壇祠)

사직단(社稷壇)〈관아의 서쪽 3리에 있다.〉

성황당(城隍堂)〈관아의 동쪽 3리 승암(僧巖) 오른쪽에 있다. 예전에는 사당(祠堂)이 기린봉(麒麟峯) 왼쪽에 있었으며, 진흙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 관찰사 이언호(李彦浩)가 이 조각상을 무너뜨리고 대신 위패를 만들어 제사지냈으며, 이곳에 단을 쌓고 옮겨 모셨다고 한다. 예전 사당은 마침내 없어져 부정한 귀신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되었다.〉

여단(勵壇)〈관아의 북쪽 5리에 있다.〉

7. 학 교(學校)

향교(鄉校) 문묘(文廟)〈관아의 남쪽 성 밖 5리 발산(鉢山) 남쪽 기슭에 있다. 예전에는 남쪽 성안에 있었는데, 영락(永樂)⁵⁸⁾ 연간에

57) 사당: 영인본은 ‘廟貌’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당이나 종묘를 가리킨다. 사당에 들어가면 반드시 선조(先祖)의 형모(形貌)를 상상하여 추모하기 때문이다.

58) 영락: 명(明)나라 성조(成祖)의 연호(1403-1424)이다.

화산(華山) 서쪽 기슭으로 옮겨 세웠다. 만력(萬曆)⁵⁹ 계묘년(선조 36년, 1603)에 다시 또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⁶⁰ 동무(東廡)·서무(西廡)는 한결같이 태학(太學)의 제도를 본떠 만들었다. 재장(齋長) 1명, 장의(掌議) 2명, 유사(有司) 2명, 액내 교생(額內校生) 90명, 액외 교생(額外校生) 90명이 있다.〉

명륜당(明倫堂)〈태학 제도를 본떠서 대성전(大成殿)⁶¹ 뒤에 자리하고 있다. 부사(府使) 양극선(梁克選)의 기문이 전한다.〉

8. 누 정(樓亭)

풍남문루(豐南門樓)〈곧 명견루(明見樓)이다.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이 지은 「명견루기(明見樓記)」가 전한다.

패서문루(沛西門樓)〈곧 서문(西門)이다. 관찰사 홍낙인(洪樂仁)이 지은 기문이 전한다.〉

9. 고 사(故事)

○ 풍패기문(豐沛記聞)〈정충(鄭摠)이 지은 「환왕비문(桓王碑文)」에 이르기를,

“임금님의 조상은 본래 전주(全州)의 명망 높은 집안이었다. …”

라고 했다. 무릇 전주 이씨(李氏)의 시조인 사공(司空) 이한(李翰) 이하로부터 목조(穆祖) 이하까지 대대로 완산(完山)에 살면서 왕업의 터를 닦았으니, 흐름을 따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59) 만력: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1572-1620)이다.

60) 만력~옮겼다: 선조 36년(1603)에 관찰사 장만(張晩)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61) 대성전: 공자(孔子)의 위패를 모셔놓은 전각이다.

주는 실로 태조(太祖) 임금님의 조상이 대대로 살던 고향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경기전(慶基殿)을 창건하고 태조 임금의 초상화를 받들어 모시는 일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목조께서 본 고을에 계실 때에 전주성의 동쪽 발산(鉢山)의 남쪽에 있는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세상에 뛰어난 영특하고 호걸스러운 자질을 지니고서도 고을의 으뜸 자리를 아랑곳하지 않고서,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삼척군(三陟郡)으로 피해가서 살았으니, 삼척은 바로 외갓집이 있는 고을이었다고 한다. 삼척에서 다시 덕원(德源) 용주리(湧珠里)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목조께서 전주에서 삼척으로 이사를 간 이유는 전주에서 살 때 꺼려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관동(關東)지방에서 덕원으로 이사하신 일은 마치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할아버지인 태왕(太王)이 기산(岐山)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와 같으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르기를,

“오랑캐와 더불어 지낼 때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기산으로 옮겨갔으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었다.”

라고 했다. 태조께서 전주부(全州府)가 임금의 고향이라고 하여, 전주 출신 젊은이들을 뽑아 들여 궁궐을 지키게 하며 특별히 총애하였다.>

○ 경기전에서 간직하고 있는 책자인 『봉안사적(奉安事蹟)』에서는 언급하기를,

“임진년 5월에 왜적이 전주성을 포위했다. 태인(泰仁)의 선비 손홍록(孫弘祿)⁶²⁾과 안의(安義)가 몸소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곧

바로 경기전 안으로 들어가서, 태조의 초상화와 역대 임금의 『실록(實錄)』을 훑어지고 나와서 정읍(井邑) 내장산(內藏山)에 반들어 모셔두었다가, 그 후 임금이 임시로 머물고 계신 행재소(行在所)로 옮겨 모셨다. 왜적의 기세가 조금 수그러들어 부산(釜山)으로 물러가 웅크려 있자, 임금께서 명령하여 태조의 초상화를 아산현(牙山縣)에 임시로 모셔두게 했다.⁶³⁾

병신년(1596, 선조 29)에 왜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손홍록과 안의 두 사람은 급히 아산으로 가서, 한춘 등과 더불어 태조의 초상화를 훑어지고 강화부(江華府)로 달려갔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왜적이 또 대대적으로 쳐들어오자, 손홍록과 안의 등은 태조의 초상화를 훑어지고 곧장 안주(安州)로 달려갔다. 『실록』도⁶⁴⁾ 해주에서 옮겨와 묘향산(妙香山)으로 모시고 갔다. 이 해 7월에 왜적이 크게 패하여 모조리 떠나가니, 손홍록과 안의는 한춘을 임금이 임시로 머무는 행재소로 보내어 그간의 상황을 모조리 아뢰게 했다. 임금께서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대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태조 임금님의 초상화를 내가

62) 손홍록: 영인본은 ‘孫弘錄’이라고 되어 있는데, ‘孫弘祿’의 오키로 간주하고 번역한다.

63) 임금께서-했다: 계사년 6월에 왜적이 기세를 떨치자, 임금이 명하여 태조의 초상화를 내장산으로부터 의주로 옮겨오게 했다. 손홍록·안의·한춘 등은 초상화를 모시고 떠나 아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적의 기세가 조금 꺾이어 부산(釜山)으로 물러갔던 터라, 임금께서 아산현관(牙山縣館)에 임시로 모셔두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실록(實錄)』은 해주목(海州牧)까지 가서 임시로 보관토록 했다고 한다(『조선시대 사찬읍지』 29, 118-119쪽).

64) 『실록』도: 영인본은 이 부분이 ‘直趨安州自海州移來’라고 되어 있어 뜻이 통하지 않는데, 『사찬읍지』에는 ‘直趨安州實錄亦自海州移來’라고 되어 있다(『조선시대 사찬읍지』 29, 119쪽). 후자를 따라 ‘實錄亦’이란 세 글자를 보완해 번역한다.

다시 뵈 날이 없을 뻔했다.’

하고, 한춘을 경기전 참봉에 임명하였다.” 라고 했다.〉

10. 인 물

[명신(名臣)]

이부영(李富永)〈완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무오년(1618, 광해군 10)에 명(明)나라에서 심하(深河)의 전투가 벌어져, 우리나라에 병력을 요청하였다. 조정에서는 강홍립(姜弘立)을 도원수(都元帥)로 김경서(金景瑞)를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해서 돕게 하였다. 김응하(金應河) 장군⁶⁵⁾도 조방장(助防將)으로서 행군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이부영님에게 격문(檄文)을 보내 참모⁶⁶⁾로 삼았다. 그래서 이부영님도 따라가게 되었다.

부거령(富車嶺)에서 적과 마주쳤는데, 유 도독(劉都督)과 교 유격(喬遊擊)⁶⁷⁾이 잇따라 전투에서 패배하였으며, 강홍립과 김경서도 모두 적에게 투항하였다. 오직 조방장 한 부대만이 홀로 대규모의 적군과 맞섰다. 화살과 돌맹이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껏 싸워 오랑캐 군사를 여러 차례 물리쳤다.

65) 김응하 장군: 영인본은 ‘金將軍’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찬읍지}에는 ‘金應河將軍’이라고 되어 있다({조선시대 사찬읍지} 29, 127쪽). 후자를 따라 보완해 번역한다.

66) 참모: 영인본은 ‘偏裨’라고 되어 있는데, {사찬읍지}에 실린 원문에는 ‘偏裨’라고 되어 있다({조선시대 사찬읍지} 29, 127쪽). 후자를 따라 번역한다.

67) 유 도독과 교 유격: 명나라의 도독 유정(劉綎)과 유격 교일기(喬一琦)를 가리킨다(『광해군일기』 정초본, 광해 138권, 11년 3월 12일(을미); 광해 144권, 11년 9월 3일(임오)).

느닷없이 거센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사방에 구름과 안개가 끼었다. 어느 방향으로 화포를 쏘아야 할지 모르고 활마저도 꺾어져 달리 어찌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다.⁶⁸⁾ 그런데도 오히려 맨몸으로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맨손과 칼로 적과 맞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쳐 죽였다. 오랑캐들이 사람을 보내 항복하라고 꼬드겼으나, 이부영과 김응하 장군은 끊임없이 적에게 욕을 퍼부었다. 오랑캐들마저도 두 분을 의롭게 여겨서 높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버드나무 아래 두 장군은 참으로 충신이다.”

하며, 병사를 모아 두 장군을 사로잡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온몸이 10여개의 창에 찔리고 적의 화살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다. 한충립(韓忠立)·서복남(徐福男)·최득종(崔得宗)이 부대에서 탈출하여 돌아와 두 분에 대한 사실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주었다고 한다. 마침내 위령제를 지내고 시신을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목단동(牧丹洞)에서 장사지냈다.〉

11. 효 자(孝子)

[조선(朝鮮)]

박상순(朴尙純)〈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가 일찍이 심한 병을 앓자, 제 넓적다리 살을 잘라내어 그 피를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려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그 후 어머니가 이질(痢疾)을 앓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다.

68) 느닷없이-상황이었다: 김응하 부대가 재차 진격했다가 재차 후퇴하는 순간 갑자기 서북풍이 불어와 먼지와 모래가 휘날려 천지가 캄캄해지고, 화약이 날아가고 불이 꺼져서 화포를 쏠 수 없었다고 한다(『광해군일기』 정초본, 광해 138권, 11년 3월 12일(을미)).

의사가 말하기를,

“해오라기가 좋은 약이다.”

라고 했는데, 사망으로 구하러 다녀도 얻지 못하였다. 박상순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슬피 울며 하늘에 빌었는데, 잠시 뒤에 해오라기 한 마리가 울타리밖에 떨어졌다. 마침내 그것을 집어다가 어머니에게 드시도록 하니, 그 병이 곧 나았다. 숙종 무진년(1688, 숙종 14)에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이도함(李道涵)<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아버지의 똥을 맛보아 그 병의 상태를 짐쳤으며, 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드려서 나흘 동안 더 살게 했다.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상을 더 치렀다. 영조 임술년(1742, 영조 18)에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려고 했으나, 감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계유년(1753, 영조 29)에 비로소 정문을 세웠다.>

12. 효녀(孝女)

박씨(朴氏)<충의위(忠義衛) 박시인(朴時仁)의 딸이며, 무과에 급제한 송유(宋迺)의 아내이다. 집에 있을 때 효성을 다하였다. 제 아버지가 위중한 병에 걸려 목숨이 끊어지려고 하자, 제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피를 드려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어머니가 일찍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제 넓적다리 살을 베어 그 피를 드려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효성을 칭찬하였다. 숙종 무진년(1688, 숙종 14)에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녀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13. 열녀(烈女)

[고려(高麗)]

임씨(林氏)<낙안군사(樂安郡事) 최극부(崔克孚)의 아내이다. 왜구가 마을에 마구 쳐들어오자, 임씨가 피난하여 달아났다. 뒤쫓아 온 왜구가 그녀를 욕보이려 하자 군세게 항거했다. 왜구가 한쪽 팔을 잘랐는데도 따르지 않았으며, 또다시 다른 팔을 잘라내도 끝내 굴하지 않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그녀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조선(朝鮮)]

이씨(李氏)<최이원(崔以源)의 아내이다. 나이 19세 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친정 부모가 절개를 지키려는 그녀의 뜻을 꺾으려고 하자, 이씨는 밤중에 시부모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결국 친정 부모는 후회하고 개가시킬 것을 포기했으며, 이씨는 생을 마칠 때까지 절개를 지켰다. 세종(世宗) 24년(1442)에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 그녀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14. 효부(孝婦)

증(贈) 영인(令人) 여산(礪山) 송씨(宋氏)<고(故) 효자 증(贈) 동몽교관(童蒙教官) 김익성(金翊誠)의 아내이다. 타고난 효성과 우애를 지니고 부모의 뜻과 몸을 받들며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시부모의 상을 당해서는 진실한 마음에서

서럽게 울며 곡을 하였다. 마치 살아있는 분을 섬기듯이 예법에 따라 제사상을 올렸다. 그녀가 살던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도록 명했다.》

소리에 나타난 전주

유장영 ||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장

〈목 차〉

I. 전주와 판소리

II. 전주를 빛낸 소리꾼들

I. 전주와 판소리

전주를 판소리의 본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판소리의 역사에서 전주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헌을 통해서 판소리의 시작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조선 영조(1724~1776) 때 사람인 유진한(柳振漢)의 문집 「만화집」이다. 이 책에 흔히 「만화본춘향가」라고 불리는 ‘가사 춘향가 200구’가 실려 있다.

1810년경에 씌여진 송만재의 관우회라는 총 50수로 된 한시에는 판소리 열두 바탕이 등장하며 우춘대·권삼득·모홍갑 등의 소리꾼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판소리의 초창기라고 생각되는 영조 전후를 시점으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소리꾼으로는 우춘대, 최선달, 하한담 등이 명성을 날렸는데 이들 중 하한담과 최선달은 무부(巫夫)들의 조직체인 전주 신청(神廳)의 대방(大方)과 도산주(都山主)였다고 한다. 판소리 초창기에 명성을 날린 소리꾼이 전주 신청에 있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이미 전주는 판소리를 매우 즐겨 부르고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판소리사 초창기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8 명창시대’에 들어 판소리는 완전히 열두 바탕으로 완성하고 여러 명의 훌륭한 명창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판소리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8 명창시대’는 판소리의 특성에 따라 다시 ‘전기 8명창시대’와 ‘후기 8명창시대’로 나누는데, 19세기 전반, 순조 무렵에는 권삼득·송홍록·모홍갑·염계달·고수관·김제철·주덕기·황해천·박유전·송광록 등의 명창이 있었는데 이 중 여덟을 골라 ‘전기 팔명창’이라 한다.

위의 전기 8명창중에 드는 사람 중에서 충청도 태생인 김제철과 역시 충청도 해미 태생인 고수관, 그리고 태생 不詳인 황해천을 제외하면, 박유전을 비롯한 나머지 7명창이 모두 전북 출신 혹은 전북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9세기 후반, 철종 무렵에는 박만순·이날치·송우룡·김세종·장자백·정창업·정춘풍·김찬업·김정근·한송학 등이 있는데, 이 중 여덟을 골라 '후기 팔명창'이라 한다. 후기 8명창에 드는 사람 중에서 전남 함평 태생인 정창업, 충청도 儒家 태생인 정춘풍, 충청도 강경 태생인 김정근, 경기도 수원 태생인 한송학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명창이 모두 전북 태생이어서 전라북도가 가히 판소리의 고장임을 입증케 한다.

따라서 판소리사에서 판소리가 꽃피고 중흥을 이루었던 전후기 8명창시대에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당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이곳 전주를 본거지로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1964년 박녹주·김연수·김여란·정광수·김소희·박초월 등이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지정됐는데, 이 중 김여란, 김소희, 박초월이 전북인이며, 박녹주는 남원의 김정문 문하에서 공부하여 소리꾼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주는, 전주대사습놀이를 통해 판소리의 역사를 새로 써간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는 '전주에서 소리하려면 겁부터 난다'라는 소리꾼들의 고백에서처럼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즐길 줄 아는 귀명창이 많은 최고의 소리 도시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1975년에 부활되어 1998년까지 총 24명의 판소리명창 부 장원자를 배출했다. 이 중 전라북도 출신 혹은 전라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이 50%인 12명에 달한다.

Ⅱ. 전주를 빛낸 소리꾼들

권삼득

권삼득(權三得)의 생몰년은 1771(영조 47)~1841(헌종 7)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본명은 권사인(權士仁)이다.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소리꾼인데, 당대 8명창 중 가장 선배격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九憶里) 출생으로 권래언(權來彦)의 둘째아들로 나서 조선 정조·순조 때 활동했으며, 익산시 남산리(南山里) 출생설이 있으나 남산리는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만년에 살았던 곳으로 보인다.

양반 가문에 태어나 집안의 만류를 무릅쓰고 소리 공부를 하여 대명창이 되었다. 하은담(河殷潭)·최선달(崔先達)에게 배웠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서울에 올라와 송흥록(宋興祿)·모흥갑(牟興甲) 등과 활동을 하였다.

권삼득은 鄉班 출신이었으나 어려서부터 글배우기를 싫어하고 소리 공부에만 전념하였다. 그의 부친의 호 二憂의 두가지 근심 중 하나는 바로 권삼득이었다고 하는데서 권삼득이 학문을 마다하고 소리에만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집안의 근심거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부친은 가문의 명예를 위하여 권삼득을 죽이기로 하였으나, 죽음에 당하여 부른 한 곡조의 구슬픈 소리에 감동한 사람들이 죽이 기에는 너무 아깝다하여 족보에서 제명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대신

하였다 한다. 그 후 그는 판소리에 정진하여 마침내 대성하였다.

그는 홍보가를 잘 하였고, 특히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권마성제(勸馬聲制)로 지어내어 널리 알려졌다. 덜렁제는 설렁제, 드렁조, 권마성조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선법으로 홍보가중 놀보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춘향가중 군노 사령이 나가는 대목, 적벽가의 위국자의 노래, 수궁가의 벌떡게가 여쭙는 대목 등 판소리에 널리 쓰이며 높은 음역을 지속하거나,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넓게 뛰어 내리는 음으로 매우 씩씩한 느낌을 주는 남성적인 창법이다. 권삼득은 호쾌한 덜렁제 창법을 도입하여 판소리의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 함으로써 판소리의 예술성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소리제가 높은 소리로 길게 질러 내는 탓에 그랬던지 신재효(申在孝)는 〈광대가(廣大歌)〉에서 그를 평하여 이르기를 ‘권생원(權生員) 사인씨(士仁氏)는 천층절벽(千層絶壁) 불끈 솟아 만장폭포(萬丈瀑布) 월렁월렁 문기팔대(文氣八代) 한퇴지(韓退之)’라 하였다. 그의 소리제는 염계달(廉季達)이 많이 모방하였다 한다.

모흥갑

순조~철종 때에 활동했으며 전기 8명창의 한 사람이다.

전주 출신, 혹은 경기도 진위 또는 경기도 안성군 죽산 출신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권삼득과 더불어 송만철의 관우회에 이름이 등장하는 초기의 소리꾼중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판소리꾼으로서 처음으로 헌종13년(1847) 종2품 동지의 벼슬을 제수받았으며, 평양감사인 김병학의 초청을 받아 능라도에

서 소리하는 모습이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평양감사 부임도’ 라는 병풍에 그려져 있다.

만년은 全州郡 亂田面 貴洞에서 보냈다. 그는 특히 적벽가를 잘 불렀다고 하는데, 그의 더듬으로는 춘향가중 이별가 한 대목의 사설이 『조선창극사』에 전한다.

모홍갑의 특징적인 창법으로는 강산조가 있었다 한다. 이는 한 때 그의 수종 고수였던 주덕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을 보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모홍갑이 이별가 중 여보 도련님 날 다려가오 대목을 불러 주덕기로 하여금 사죄케 한 일화가 있었는데 이 때 부르던 창법을 강산조 혹은 강산제(박유전의 강산제와 구별하기 위해 동강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 한다. 이 강산조는 주덕기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일제 시대의 명창의 음반에 더러 녹음된 것이 남아 있다.

모홍갑의 강산조는 판소리 평조와 그 구성음은 비슷하나 고음역 선율형이 많아서 청아하고 들뜬 느낌을 준다.

주덕기

순종~철종 간에 활동했던 명창으로 전주 출신(혹은 전남 평창)이다.

처음에는 송홍록과 모홍갑의 수종 고수 노릇을 하였으나, 후에 소리 공부하기를 결심하고 깊은 산에 들어가 소나무 밑둥지를 베어 놓고 주야로 제사를 드리며 수련했는데,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었다 하여 ‘伐木丁丁’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주덕기는 모홍갑의 강산조를 널리 전파하였다고 하며, 그의 더듬

은 적벽가중 <자룡 활쏘는 대목>이라 하는데 현대 적벽가에는 모두 이 대목이 들어 있다.

정정렬

전북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음이 장차 명창이 될 소질이 보였으므로 부모의 뜻을 좇아 그와 一門이며 후기 8명창중의 한 사람이 정창업의 문하에 들어가서 소리 공부를 시작하였다.

14세 때 정창업이 세상을 떠나자 역시 후기 8명창 중의 한 사람인 이날치에게 사사하였으나 그마저도 2년후인 16세 때 별세하니 스승의 복이 없음을 한탄하고, 그 때 부터 홀로 수련을 쌓았다고 한다. 태인에 살던 전도성을 가끔 찾아가 지침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는 40세 안팎까지 익산의 神谷寺, 충남 홍산의 無量寺, 공주 甲寺 등지에서 소리를 연마했으며 금강산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오랜 수련 기간이 그의 소리를 독창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후에 마산에 가서 소리 선생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하여 친지들의 권유로 51세 되던 1926년에 상경, 송만갑·이동백·김창룡 등과 교우하면서 1933년 <조선 성악 연구회>를 만들어 상무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정정렬은 이 <조선 성악 연구회>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춘향전(1953년), 심청전(1935년), 흥보전(1936년), 숙영낭자전(1936년), 별주부전(1937년), 배비장전(1938년) 등을 창극화하여

공연하였다.

또한 이 무렵 포리돌, 오케, 빅타 등 레코드 회사에서 이동백·김창룡·조학진·이화중선·김소희·임방울·문연향 등과 함께 적벽가·춘향가·심청가 등을 취입하였다.

정정렬은 춘향가·심청가·적벽가를 잘 불렀는데, 그의 소리는 제자인 김여란과 이기권을 통해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나 완전하게 <정정렬바디>가 전승되고 있는 것은 춘향가 뿐으로 현재 최승희와 박초선이 부르고 있다.

그러나 김연수·김소희·박동진 등의 소리도 춘향가는 <정정렬바디>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실제 정정렬의 춘향가는 현대 춘향가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정렬은 흔히 '30년 앞을 내다보고 소리를 했다'고 하거니와 이는 그가 현대적 감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소리꾼이었음을 뜻한다.

그는 판소리사에서 송만갑·김연수·임방울 등과 함께 판소리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사실 정정렬 판소리의 특징은 그대로 현대 판소리의 특징이 되고 있다.

정정렬 판소리의 특징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침새의 절묘한 구사 둘째, 계면조 창법의 확대이다.

부침새 기교는 정정렬이 자신의 좋지 않는 목(그의 목은 판소리에서 가장 거친 떡목에 해당하였다)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추구되었으며, 계면조의 확대는 당시 일제치하라는 비극적 시대 상황을 음악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청중으로부터 광범한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정정렬의 판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그 예술성이 새삼 빛나고 있다.

박만순

전북 고부 수금리에서 출행하여 중간에 운봉 또는 경상도 안의에서 일시居한 일이 있었고 享年이 68세였다.

현철교 3대간에 있어 일세를 진동한 명창인데, 송홍록의 의발을 받은 直系門人으로 東派의 首領이요 宋牟廉高朴甲金 世所謂 팔명창 이후 근대 창극조의 출중한 대가이다.

그 劇唱의 전재를 擴充發揮하고자 하여 일시 주덕기의 수하에서 지도를 받은 후에 송홍록의 문하에 들어가서 약 10년동안 전공하며 수련의 辛苦한 바 비상하였다.

스승의 실제적 수법을 견문하기 위하여 주야없이 倍道하느라고 霜橋月店에 風餐露宿을 한다만 하였고 혹은 임실군 어느 폭포 밑에 가서 발음의 수련을 적공하느라고 피도 다량으로 토하였거니와 필경은 聲量이 人語難分咫尺間에 聲出千峰萬壑間境遇에 도달하였다.

송씨의 수하에서 특히 춘향가 중 옥중가 일편을 적공한 후 출세간 제일작으로 전주 선화당에서 제일성을 발하였다. 오뉴월 하절에 선화당과 거리가 數 마장인 곳까지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씨 성격이 오만한데 겸하여 기예과 탁출하므로 그 자부와 자만이 일세를 예시(睨視)하였다 한다.

白眼看他世上人은 자기의 심경을 묘사한 詩로 알았는지 모른다. 자기 스스로 흥미가 나지 아니하면 笞杖을 죽도록 맞아 가면서도 권세의 위력에 불복하였고 그 自高的 操守가 買技的 行爲를 不屑히 여기므로 도처에 만인의 稱譽를 받는 동시에 일방으로는 다수인의 증오도 껍 많이 받았다 한다.

그 한 예로 한번은 이조 대원군의 부름을 받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歷路가 충청이라 時任監使 趙秉植이 불러서 판소리 한번 하기를 명하였다. 박씨 “대원군께서 소리를 封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 소리 봉지를 땔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송재현[동편]

송재현은 전북 전주인으로서 송홍록의 친족인만큼 自家의 전통을 답습하여 고종시대에 씩씩하였던 명창인데 風采가 당당하고 성음이 미려하여 광대의 자격을 충분히 구비하였고 춘향가에 長하였다고 한다.

그의 특징치는 춘향가 중 옥중가이다.

장수철[동편]

장수철은 전북 전주인이다. 고종 때 인물로 동파의 본색으로 일세를 울린 명창이었다.

그 더늠은 춘향가 중 군로사령이 춘향부르러 나가는 대목이다.

유공렬[동편]

유공렬은 전북 익산 출생이다.

그는 나이 겨우 8,9세에 가요를 능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4,5세경에 당시 국창으로 명성이 높았던 박만순 門牆에 이르러 수년간 도야를 받아서 판소리에 대한 향방을 깨우쳤다.

그 후로는 독공을 계속하다가 운봉 남원간의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면서 4,5년간 精磨精琢하였다.

30세경에 전주대사습장에서 기량을 발휘하여 비로소 세간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전도성, 송만갑 등과 동배로서 김세중, 이날치, 정창업 등 선배들과 추종하여 실제적 견문을 확충하였다.

이리하여 소리는 원숙하여지고 명성은 원근에 쟁쟁하였다. 40세 전후하여 경성에 올라가서 원각사, 광무대 당년에 김창환, 송만갑과 並肩하여 더욱 명성이 일세에 높았다.

고향에서 한산한 생애를 보내다가 병사하였다. 그는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고 춘향가 중 이별가에 특장하였다 한다. 그의 더늠은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이다.

염덕준[서편]

염덕준은 전북 전주 출생이다.

장자백의 제자였으나 改宗하여 서편의 창법으로 고순 양대간에 쟁쟁하던 명창이다.

서대문내 원각사 당년에 김창환, 송만갑과 함께 춘향전과 심청전을 창극화합에 노력한 바 다대하였다.

송업봉(일명 종렬)[동편]

송업봉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송우룡의 제자이니 高末純初에 올린 명창이다.

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중년에 소리를 정지하였다.

춘향가와 심청가에 장하였으며 가장 잘하는 대목은 춘향가 중 어사또 사은숙배하고 암행출발하여 전라도로 내려가는 대목이다.

이기권

이기권은 전북 옥구군 임피면 영창리 출신으로 정정렬에게 판소리 5바탕과 숙영낭자전을 전수받았으나 지방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해방을 전후해서 군산과 이리 권번에서 소리 선생으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는데, 한때는 ‘남에는 박동실, 북에는 이기권’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전북 출신 명창들로 당시 이기권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전북 판소리계의 대부로서 명망이 높았다.

그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거문고·가야금·대금에도 뛰어났다.

수리성으로 성량은 작았으나 시김새가 좋아서 ‘낮에는 피꼬리가 노래하고, 밤에는 기권이가 노래한다’는 말을 들었다.

제자로는 홍용호(명고수), 홍정택, 강종철, 김원술, 최난수, 이일주 등이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도에 바디를 바꾸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기권의 소리를 전승한 사람은 없으나, 홍정택이 비교적 이기권의 소리제를 많이 전승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전북의 판소리를 대표하는 명창들이 모두 그의 제자들인 만큼 이기권이 전주권의 판소리에 끼친 공적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김준섭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출신으로 처음에는 공창식에게 심청가를 배웠으나, 후에 김정문 문하에서 홍보가, 춘향가, 수궁가, 적벽가를 이수하였다.

목은 수리성인데 성량이 부족하고 상청이 약했지만 복잡한 곡조를 능숙히 표현해내는 기량으로 소리 좌석에서는 능히 대가의 칭호도 들었다.

1953년 상경하여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였으며, <동일창극단>에서 심봉사 역할로 크게 이름을 떨쳤다. 광복 후 <국극사>, <국악사> 등에 참여하여 창극활동을 하였으나 1960년부터는 전주에 살면서 판소리 예도에 정진하였다.

전주 권번과 전주 국악원에서 창악 강사를 지냈으나 별다른 제자는 두지 못하였다. 그의 장기는 심청가중 <심봉사 황성길 대목>이었다.

김원술

김원술은 전북 정읍군 감곡면 대신리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25세 무렵까지 당시 태인에 살고 있던 근대 5명창 중의 한 사람인 전도성 문하에서 홍보가·춘향가·적벽가를 배웠다. 전도성이 죽자, 군산 권번에 있던 이기권을 찾아가 숙영낭자전 등을 배웠으며 한때 박동실에게 소리를 배우기도 하였다.

1942년부터 3년 동안 전주 권번에서 소리 선생을 하였으며 1948년 호남 명창대회에서 신영채, 이기권과 함께 입상함으로써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1953년 부터 13년 동안은 <여성국악단>, <신라국악단>, <대한국극협단>등 창극 단체의 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임방울 일행의 단장을 3년 동안 맡기도 했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는 대한민국 국악협회 부이사장, 1979년부터 1984년까지는 이사장직을 역임하면서 <국악대상>을 제정하

였다.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를 결성하고 그 이사장을 맡아 전주대사습놀이를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현재는 <국창 전도성제 판소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예술 진흥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원술은 전도성의 유일한 생존 제자이나, 판소리를 그만둔 지 오래되어 현재는 부를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으므로 전도성 바디는 전승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홍정택

1921년 부안에서 태어난 홍정택은 열네살 되던 해 당시 부안에 들른 임방울이 이끄는 협률사를 따라 나선 것이 판소리꾼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부모들의 반대에도 명창이 되어보겠다는 꿈을 버릴 수 없어 끝내 협률사를 따라 나선때가 열네살이었다. 협률사생활을 마감하고 고향에 돌아와 있던 38년 전주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판소리를 가꾸고 있던 이기권으로부터 소리를 본격적으로 공부했던 그는 이기권이 작고한 후 김연수의 우리국악단에 들어가 창극을 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소리는 목이 우렁차면서도 고와서 ‘홍방울’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50년대 이후 다시 성대를 버려 본격적인 소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자연히 소리판에 직접 서는 일보다는 소리를 가르치는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었고 이곳 저곳 국악원 선생으로 불려다니다가 아예

전주에 학원을 열고 자리를 잡은 이후 그는 소리 선생으로 눌러앉아 버렸다.

그러나 소리꾼이 소리판을 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서 틈틈히 짧은 소리로 목을 다스려 냈던 그는 수궁가로 지방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을 받았다.

도립국악원단 초창기에 판소리 교수로 있었던 그는 정년 퇴임 이후에도 후진을 양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오정숙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출생으로 14세에 부친과 함께 <국극협단>에 입단, 춘향전의 향단 역과 흥보전의 돌남이 역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 후 <햇님여성국극단>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창극을 그만두고 1956년부터 10년동안 명창 김연수를 사사하여 판소리 다섯마당을 모두 이어받았다.

1972년 춘향가 완창 발표회를 시작으로 5마당 모두 완창함으로써 최고의 여류 명창의 지위를 굳혔다.

1972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발표자 1위, 제1회 전국 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 제1회 남도문화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하였고, 1984년에는 <국악대상>을 수상하였다.

1991년 5월 중요 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20여년동안 몸담고 있던 국립창극단 생활을 청산하고 그의 고향인 전북 완주로 내려와 대둔산 자락에 전수관인 동초각을 짓고 그곳에서 소리공부와 제자 육성에 전념하다가 올해(2008) 작고하였다.

김연수 바디의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전하게 전승하여 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줌으로써 김연수 바디가 현대 판소리의 중추를 이룰 수 있도록 키워 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출신의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전주가 김연수 바디 판소리의 고향으로 성장케 하였다.

오정숙은 일찍부터 창극으로 다듬은 연기력으로 아니리와 발림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판소리 청중을 압도하는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다.

오정숙의 제자로는 이일주·조소녀·민소완·김명신 등 명창들이 즐비하다. 모두 이 지역 판소리계의 중견들로서 그 밖에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김유앵

김유앵은 전라북도 지정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로서, 1931년 김병언의 1남 3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일찍이 익산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그의 재능을 알아 본 김대성의 눈에 들어 판소리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다.

13세가 되었을 때에 부친을 잃고 거주지를 김제로 옮기게 되면서 명창인 이기권을 만나 춘향가를 배우면서 본격적인 판소리 수업을 받게 되었다.

17세가 되어서는 이미 춘향가를 완창하였고, 가야금의 기초를 닦았으며, 민속무용도 배웠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김연수에게 춘향가와 열사가를 사사하고, 그 이후로는 홍두완이 운영하는 선일창극단에 들어가 흥정택과 함께 주연 창우로서 자질을 발휘하여 가장 인기있는 배우로 관객들의

박수를 독차지하였다.

23세가 되었을 때에는 군산 국악원에서 후진양성에 종사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전주의 전동국악원에서 3년동안 창극과 무용을 가르쳤다. 26세에는 이재호로부터 시조, 가곡 등을 사사받았다. 27세 부터는 경북 국악원 창악 강사로 후진 양성에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7세에 전국시조대회 특부 일등상을 수상하였고, 30세 때는 제40회 춘향제전 명창대회에서 일등상을 받았다.

도립국악원 교수를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는 전주시 전동에서 홍정택·김유앵 판소리연구소를 운영하며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일주

이일주의 본명은 옥희이며, 193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아버지 이기중과 어머니 강화자 사이의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부여지만, 그 곳에서는 태어나기만 했을 뿐 성장은 충남 서천에서 했다. 서천으로 옮겨 살던 때부터 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일주의 부친인 이기중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서편제 소리의 대가였던 이날치의 손자로 판소리를 매우 잘 하여 소리꾼으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이일주는 이러한 집안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소리 수업에 나서게 된다. 이일주가 본격적으로 소리 수업에 나선 것은 14세 무렵부터였다. 당시 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대여섯 명과 함께 자기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27세 때 남원으로 출가하여 살다가, 그 다음해 1963년에 서울로 이사하여 박초월 문하에서 1여년 동안 홍보가 한바탕을 사사받았다.

31세 때에는 김소희 문하에 들어가 잠시 동안 심청가 등을 지도 받았다.

1975년 40세가 되던 해부터 10여년간을 줄곧 여류 명창으로선 드물게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을 완창하는 오정숙에게 사사 받아 국창인 동초 김연수제의 소리를 잇는 명창으로서 자질을 닦았다.

이일주는 1979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부분 장원을 하였고, 1981년과 1983년에는 서울국립극장에서 심청가와 춘향가를 완창하였으며, 1982년에는 전북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최채선

1937년 출생한 최채선은 고모를 따라 군산국악원에 놀러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소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래에 자신있었던 그는 국악원 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딸이 소리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던 부친은 군산에 찾아가 그녀를 찾아다 고향집에 데리고 가기를 여러번, 그때마다 집을 몰래 빠져나와 다시 군산을 찾아갔고, 끝내 아버지는 ‘딸하나 없는 셈치겠다’고 선언하였다.

군산국악원에서 처음 소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홍정택이었다. 1955년 그로부터 수궁가를 사사받은 후, 서울로 자리를 옮겨 김여란

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소리를 배웠다.

1981년에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 1984년에는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84년과 1985년에 춘향가 완창 발표, 1990년에는 춘향가 음반을 냈다.

1998년 병환으로 독립국악원 교수직을 사임한 후 현재 가내에서 휴식하면서도 그의 국악 사랑과 소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있다.

조소녀

조소녀는 1944년 충남 온양에서 출생하였다.

조소녀의 춘향가는 김연수 바디인데, 이는 김연수가 종래의 춘향가를 집대성하여 재창조한 것이다.

그는 1960년에 박초월 명창으로부터 판소리를 사사하면서 판소리에 입문하였으며, 1967년에는 홍정택으로부터 판소리 사사, 1968년에는 이일주로부터 판소리 심청가 사사, 1969년에는 오정숙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를 사사하였다.

1982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 민요분과위원장, 1985년에는 남도예술제 대통령상과 도문화상을 수상했다. 1987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를 이수했으며, 1996년에는 KBS국악대상을 받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다.

1996년에는 김연수로부터 오정숙으로 이어지는 동초제 춘향가로 전라북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전북대, 백제예전, 동리국악당 판소리 강사로 활동 중이며, 또한

조소녀 판소리 연구소를 개원하여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병옥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 적벽가는 동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은 주로 박봉술제로 전해 내려 온다.

현재 이 바디를 전승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창으로서는 정병옥(본명 정미옥)이 유일하다. 특히 적벽가는 강대하고 웅장하다는 점에서 명창이 아니면 터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욱 그러하다.

정병옥은 1028년에 출생하였는데, 1943년에 전남 목포에서 오수 암으로부터 3년간 사사를 비롯하여, 1946년에는 광주에서 박동실로부터 2년간 사사, 1948년에는 김연수 창극단에 입단하여 순회공연, 1949년에는 청학루 국악원에서 김연수로부터 판소리 수업, 1965년에는 전남 순천에서 박봉술로부터 적벽가를 사사, 1975년에는 전주 국악연구회 창악강사, 1983년과 1984년에는 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로 지정되고, 1987년에는 적벽가 완창발표회를 하는 등 국악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성준숙

성준숙은 김연수 바디 적벽가를 계승하고 있는데, 김연수 바디 적벽가는 동편제 유성준 바디 적벽가를 기본으로 하여 재창조된 것이다.

1996년에 전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적벽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성준숙은 1944년에 출생하였는데, 1956년에는 홍갑수 단체에서 임방울로부터 수궁가를 사사한 가사를, 1958년에는 주광덕 단체에서 춘향가 사사, 1981년에는 이일주로 부터 심청가 사사하였다.

1986년에는 오정숙으로 부터 판소리 사사를 하였고, 1987년에는 홍보가 완창발표회를 비롯하여, 1988년에는 수궁가 완창발표회, 1991년에는 적벽가 완창발표회를 하였다.

그의 수상경력은 1985년에 남원 춘향제 판소리경연대회에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1986년에는 전국대사습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하였으며, 1991년에는 전라북도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전라판소리연구소, 민소완판소리연구소, 전북국악협회지회장을 역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목원대, 중앙대, 전북예고 소리강사로 활동하면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안숙선

안숙선은 1949년 전북 남원 출생이다. 천성이 예술가로 태어난 그의 성음은 청미하고 애원이 깃들면서 매력이 넘쳐흐른다.

14세 때 남원국악원에서 명창 강도근 문하에 들어가 소리 수업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김소희, 박봉술, 정광수, 정권진, 성우향 선생에게 판소리 5바탕을 사사받고, 박귀희 선생에게 가야금 병창을 이수 받았다.

1967년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판소리 1등상 수상을 시작으로, 남원 춘향제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비롯, KBS국악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1979년 국립창극단에 입단한 그녀는 애원이 깃든 소리와 재치있

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지금까지 여주인공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가야금병창)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후, 1997년 8월 16일에는 기능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안숙선 명창은 현재 국립창극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재직하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을 맡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악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원섭

정원섭은 전주권의 명고수로 대표적인 인물로서 근대 5명창 시절에 활약하였는데 명창 정정렬의 친동생이다.

자세한 이력은 알려진 바가 없으나 1930년대 음반에 반주와 고수를 맡은 것이 많고, 1933년에 결성된 <조선 성악 연구회>에서 공연한 창극 작품에 고수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1939년 이동백은퇴 지방 순회공연에 참가하기도 했다.

1939년 이후로는 정원섭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대체로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죽지 않았나 추측된다.

한양수

가곡은 시조를 관현악 반주에 얹어 화평하고 장중하게 5장 형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고려가요의 맥을 이어오다가 조선후기에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등의 명창들이 나왔다.

지금음 남창으로는 전효준, 홍원기 등이 맥을 잇고 있다. 가곡은 16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것과 10박을 한 장단으로 하는 편장단이 있다.

한양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의 예능보유자인 이주환의 뒤를 이은 정경태의 문하에서 시조와 가곡을 사사 받았으며, 또한 송창섭과 고민순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958년 제9회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시조부 수석을 하였고, 1974년에는 제15회 전라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1990년에는 제9회 전국 고수대회 명고부 대상을 수상하였다.

고 한양수는, 1992년 6월 20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가곡 남창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다.

임산본

임산본은 1932년에 완주군 구이면에서 출생하였는데, 어릴적 서당출입을 하며 마을 어른들의 시조 가락을 곧잘 흥내 내곤 했다.

소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마을 어른들은 물론이고 구이면 주재소 주임순사까지 그를 집으로 데리고가 시조창을 시키기도 했다.

이후 22살때쯤 전북에 단 한군데 밖에 없었던 전주시우회에 정식 가입한 그는 제1회 전주시조경창대회를 인연으로 현 도무형문화재 제8호 가곡 기능보유자인 한양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다.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시조창과 악보집을 보급하던 부안 출신 완제시조의 거목 석암 전경태 문하에서 완제 시조창 및 12가지를 사사하였다.

1982년에는 대한시우회 전주지회 교도, 1985년에는 시조연구소 개설운영, 1986~1987년에는 전북국악협회 시조분과위원장, 1994년부터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부감사 및 전북도립국악원 시조부 교수로 활동했다.

수상경력은 1966년 부산시조경창대회 1등, 1979년 대한시우회 명창부 1등, 전주대사습 시조부 장원, 1985년에는 제31회 백제문화제 시조경창대회 특상, 1988년에는 완주군민의 장 등을 수상하였다.

1996년에는 도무형문화재 제14호 완제 시조창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1998년에는 시조창의 대중화와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시조창 이론서인 <정가창론집>을 발간하였다.

이성근

이성근은 1936년 정읍군 감곡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국악애호가로 새납의 명인이었으며, 어머니가 국악인들과 친분이 있던 관계로 어려서부터 가까이 접하며 살았다.

그가 본격적인 국악 수업을 임하게 된 것은 스무살이 되던 1955년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전주시 전동에 있던 전동국악원에서 판소리를 배우는 광경을 보고 거기에 이끌려서 당시 국악원 소리선생으로 있던 김동준에게 심청가 등을 배우게 되면서 본격적인 국악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듯 그는 본래 판소리로 시작한 사람이다.

고수의 고법은 대개 특별히 사사받지 않고, 판소리를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된다고 하는데, 이성근은 인간문화재 김동준으로부터 고법을 직접 배웠으며, 소리 고법을 익히기 위해 김동수, 박녹수, 강도근, 김연수 등에게서 판소리를 사사받았다.

그는 1961년에는 호남 전국 명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1986년에는 전남 예술제 명창대회 특장부상을, 1986년에는 경북 개천예술제에서 대상을, 1987년에는 남도예술제 특장부 수상을, 1990년에는

전주에서 열린 전국 고수대회에서 대명고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신태인 국악원, 이리국악원에서 판소리 강사를 역임하였고, 1991년부터는 국립창극단 지정고수, 1992년에는 무형문화재 고법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주봉신

주봉신은 1934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났다. 대부분의 고수들이 판소리를 하다가 고수로 전환한 것처럼 주봉신도 처음에는 소리꾼으로 출발했다.

1952년 18세때 군산에서 이만암에게 판소리를 사사한 것을 비롯하여, 1953년에는 박창을로부터 장단을 사사받고, 1957년에는 임방울로부터 판소리 사사, 1964년에는 이정업으로부터 장단 사사, 1964년에는 김연수로부터 판소리를 사사 받았다.

그후 1966년부터 6년동안 군산국악원 창악 강사, 1972년부터 7년 동안 충남 강경국악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78년부터는 명창 박동진의 지정 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이사장, 대사습놀이 보존회 회원, 효도 민속예술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 제12회 전국고수대회 대명고수부 최우수상, 1993년에는 제13회 전국고수대회 명고수부 최우수상, 1994년에는 제14회 전국고수대회 국고부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3월 29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9-2호 고법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 鄭魯湜, 『朝鮮唱劇史』, 서울:朝鮮日報社出版部, 1940.
- 『全羅北道文化財大觀』, 도지정판(상). 전주:全羅北道, 1997.
- 박황, 『판소리 200년사』, 사사연신서11. 서울:사사연, 1987.
- 『全羅北道誌』, 第一卷. 전주:全羅北道, 1989.
- 『全羅北道文化藝術資料集』, 전주:全北愛鄉運動本部, 1990.
- 「全北日報」, 「全州日報」, 「全北道民日報」, 「全羅每日」 기사 스
크랩.
- 김택규·류장영·박용재, 『한국의 농악』, 호남편. 서울:수서원, 1994.
- 류장영, 『益山 農樂』, 전주:대명출판사, 1995.
- 류장영, “전라북도 민족예술무의 바른 평가를 위한 소고”, 『금파의
호적구름 살풀이』 공연 팜플릿, 1992.
- 도문화재전문위원 보고 자료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전라북도청 문
화예술과, 1997.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기념음반 자료
집’,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1997.

한옥마을에 서린 선비문화

함한희 || 전북대 교수

〈목 차〉

1. 전주의 한옥마을과 선비들
2. 조선말·일제 시대의 전주 선비들
3. 선비와 양반
4. 선비문화
5. 21세기에서 바라본 선비정신과 호남유학

1. 전주의 한옥마을과 선비들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토박이들을 만나 마을의 역사를 물으면 나아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최학자·이학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까운 옛날을 회상한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최학자, 이학자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증언하는 최학자는 금재 최병심선생이고, 이학자는 고재 이병은선생을 일컫는다. 혹자는 그들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씨 성을 가진 다른 선비를 가리킬 때도 있다. 마을사람들이 구술로 전하는 역사는 의외로 손쉽게 확인된다. 선비들이 오목대 밑과 발산 아래 자만동·옥류동에서 모여 살면서 강학을 하고, 서당을 열어 교육을 했다는 기록도 이곳 저곳에 많이 남아있다. 선비들 가운데는 1920·30년 무렵 전주 교동으로 이주한 이들이 여럿이다. 이들은 구이, 정읍, 고창, 김제 등에서 세거하던 선비들로서 전주 향교 주변, 발산 아래 자만동, 옥류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자취가 전주 한옥마을 안 곳곳에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옥류동 일대와 향교주변이 바로 선비마을로 불리웠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비마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를 알고계신 분들이 일찍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거나, 세상을 뜨고 나면 기억 속에 있던 역사는 전주라는 공간으로부터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옥류동, 자만동, 교동에 서려있는 선비의 자취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1960,70년대에 출간된 전주, 전북관련 향토사에는 교동선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⁶⁹⁾

최근 부쩍 전주한옥마을이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

지만, 정작 선비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다.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기록해 두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역사로 남을 수 없다. 그래서 역사는 남은자의 역사 또는 승자의 역사라고도 한다.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사실을 꿰어 맞추면, 그것이 그대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 패자들이 말없이 사라진 자리에 승자는 자신들의 언어와 시선으로 역사를 기록해 둔다. 전주의 선비들도 신학문과 신교육에 밀리면서 조용히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회적 역할, 책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은 채 세류에 묻혀버리게 된 것이다.⁷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전주의 선비마을이 사라진 것은 또 다른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옥마을을 둘러싼 각종 보존 내지는 개발정책이 이 마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말 일제초기 전주 교동은 전국적으로도 예외일 만큼 선비들이 운집한 곳이었음에도 패자의 역사는 정책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6년도에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조차 교동을 중심으로 한 선비마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곳에는 상당히 중요한 유적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추사 김정희도 감탄하고 돌아섰다는 명필 이삼만이 바위에 새긴 글씨, 금재 최병심의

69) 이봉섭 편저, 『전북백년』, 1976에는 최병심의 서당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1990년에 나온 전주문화원, 『전주의 향토지』, 전북인물열전 편에도 최학자, 이학자에 관한 글이 자세하게 실려있다.

70) 이 가운데 남안재만이 전통문화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서당터, 그의 묘역과 사우, 성당 박인규의 구강재, 고재 이병은의 남안재 등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한 상태로 운집해 있다. 이러한 선비관련 유형, 무형의 자취들은 지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호남의 유학사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새로 정리·정립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2. 조선말 · 일제 시대의 전주 선비들⁷¹⁾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유교의 백년을 회고한 금장태는 그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백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갑오경장에서 일제강점기까지로 보고 이 시기를 격변·붕괴기라고 하였다. 후반기는 해방이후 오늘날까지로 분류·수습기라고 하였다. 전반기인 격변·붕괴기에 유교지식인들의 중요한 활동들을 수구-저항운동, 개혁-종교운동, 그리고 閉門-潛伏 양상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보기도 했다(금장태 2000).

전주의 선비들의 경우 전반기에 해당하는 수구-저항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두번째 유형인 개혁과 종교운동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일제가 본격적인 탄압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전주의 선비들도 세 번째 유형인 폐문-잠복형으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변천양상의 배경을 금장태의 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한다.

71) 전주의 선비들과 관련된 자료는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금재는 김명엽의 <최학자 금재 최병심>과 유재는 김명엽이 정리한 <강암 송성용선생의 아석재>, 고재는 김동영·이경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향교옆 고재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남안재>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19세기 말 개화정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의 갈등·대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되었다. 유림들은 ‘수구’의 입장에 서서 서양문물의 침투에 항거하였다. 특히 단발령과 신교육제도에 크게 반발하였다. 한말의 유학자들은 일제의 침략과도 맞서서 의병항쟁을 선도하기도 했다.⁷²⁾ 결국 유림들의 의병활동도 강력한 일본의 침략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유림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탄압을 받은 것은 이들의 항거가 지속적으로 식민정부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금장태 2000).

그 이후 일제 식민정부는 유림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탄압을 하였다. 단발령 거부, 서당교육의 지속, 창씨개명 등에 맞서서 유림들은 식민정부와 타협하기를 거부하였다. 유림들이 외부와의 고리들을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유교관습과 가치관을 고수하고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등 스스로 고립·잠복의 길을 선택하였다. 일제가 조선의 교육기관인 향교, 서원 및 서당을 공식 학교제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한문경전 교육은 사실상 사회적인 기능을 잃게 되었다(금장태 2000: 310-314). 더구나 조선의 몰락을 유교에 탓으로 돌리는 지식인들이 늘어나면서 반유교적인 분위기가 시대사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살았던 전주의 선비들 가운데 삼재로 알려진 이들의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봄으로써 마지막 선비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비들 가운데 삼재라고 불리우는 세 학자가 있다.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 고재(顧齋) 이병은(李炳殷) 그리고 유재(裕齋) 송기면

72) 1895년 을미의병을 발단으로 의병항쟁은 계속되었다. 정부의 개화정책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섰던 것이다.

(宋基晷)이 바로 그들이다. 유재는 원래 김제에 살고 있어서 전주선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유재는 고재와 사돈을 맺었고, 금재와도 왕래가 잦았다.⁷³⁾ 아들인 강암 송성용(宋成鏞)대에 교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도 그 연으로 생각된다. 이 세 학자들은 간재 전우의 제자들로 한말 일제시기를 살면서 끝까지 조선의 유학자로서 소임을 다했다. 간재의 학풍을 잇고, 유학의 근본정신과 덕목을 후대에 남기고자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우렸다.

금재와 고재를 비롯해서 전주의 유학자들은 자만동·옥류동으로 불리던 지금의 교동일대에 터를 잡았다. 이들이 살았던 오목대, 이목대 부근은 전주의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손들 가운데는 조상의 터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후손들과 제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각종 기록을 통해서 삼재의 활동과 학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금재선생은 1874년 10월 5일에 전주 교동에서 아버지 碧溪 崔宇洪, 어머니 利川 徐氏의 5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금재의 가계는 고려 때 문하시중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아(阿)⁷⁴⁾를 시조로 하여 중랑장공(中郎將公)→직장공(直長公)→월당공(月塘公)→소윤공(少尹公)으로 이어진다. 월당공 최담(崔澗)(1346-1434)은 고려 말인 1377년 대과에 급제하여 조선 초기에 벼슬을 지냈다. 55세 때인 1398년에 낙향하여 지금의 최씨 종대자리에서 서당을 열고 네 아들을 비롯하여 학동들을 가르쳤다고 한다.⁷⁵⁾ 월당공은 한벽당

73) 유재는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선친의 묘소가 있는 임실 운암호 건너편으로 성묘를 갔다. 김제에서부터 걸어서 임실까지 가려면 유재선생은 고재선생 댁에서 하루 유숙하시고, 또 구이에 있는 사돈집에서 머무시기도 했다(유재후손들의 증언).

74) 완산군(完山君)이라는 존호(尊號)도 받았다.

을 지은 인물로 알려져있고, 금재는 그의 17대손이다.⁷⁶⁾ 금재는 자라면서 부친 벽계공 밑에서 글을 배웠고, 16세가 되던 1889년에 구이로 가서 청하(靑下) 이병우(李炳宇)에게 사사하였다. 청하 밑에서 7년간 글공부를 한 뒤 1896년 봄에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을 찾았다. 연재가 그의 학문에 탄복하고 격려하면서 『근사속록近思續錄』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24세가 되던 정유년(1897) 겨울에는 태안으로 가서 간재(艮齋) 전우(田愚)(1841-1922)를 스승으로 모셨다.⁷⁷⁾ 그 후부터 금재는 간재의 학문을 이었으며, 그의 수제자로 꼽히게 되었다. 간재는 “전주의 금재는 나에 못지않은 학자이며, 그의 학문을 조선에서도 따를 사람이 몇이 되지 않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⁷⁸⁾

고재 이병은선생은 1877년 1월 11일 완주군 구이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흥문관 교리를 역임한 이봉덕이었고 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자승이요 학호가 고재인 이병은은 16세가 되던 임신

75) 최씨 종대는 현재 전주 풍남동(한옥마을)에 위치해 있고, 월당공이 심어서 600여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서있다. 그 일대를 ‘은행나무’길이라고도 부른다.

76) 한벽당의 원래 이름은 월당루(月塘樓)였다. 한벽청연(寒碧晴烟)이라 하여 전주 팔경의 하나로 꼽기도 한다. 승암산(僧岩山)기슭인 발산(鉢山)의 절벽을 깎아 세운 누각이다. 이 주변은 조선왕실이 발생한 터로 명성이 높고, 호남의 명승으로 알려져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그칠 새 없이 찾아들어 제영(題詠)한 시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77) 그 무렵 간재(艮齋)의 나이는 57세였으며, 그는 당시 충청도 태안에서 강학을 하고 있었다. 간재도 1841년 전주 교동에서 출생하였다(1922년 타계함). 14세에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갔으며 21세에 아산의 임헌회와 사제의 의를 맺었다. 간재는 나라가 망하자 제자들과 함께 굴욕의 땅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로 서해안 일대의 섬을 다니면서 강학을 계속했다. 72세인 1912년 9월에 이르러 부안의 계화도(界火島)에 정착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렀다.

78) 전북매일신문사, 『명문의 고향』, 「전주 최병심」, 1970, 183쪽

년(1892년)에 향시인 초시에 장원을 했다. 그러나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그는 한 때 방황하기도 했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준엄하게 야단을 쳤다.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차린 고재는 그 후 두문불출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경자년인 1900년 겨울에 간재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던 계화도를 찾아갔다. 그의 학문됨을 유심히 살피던 간재는 즉석에서 옷깃을 여미고 “선생의 高名은 心과 力이 남보다 絶等하다”고 격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학호를 고재라고 지어주었다(전주향토지 1991: 251). 고재는 구이에서 서당으로 쓰던 남안재를 전주 교동으로 이축하고 자리를 잡았다. 전주로 이사를 오게 된 사연은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다. 항일정신이 투철했던 고재는 늘 감시의 대상이 되었기에 이를 피하고자 전주행을 결정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문묘 제반사가 흐트러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였다고 한다. 고재는 전주 향교의 뒷산인 산비탈에 남안재를 짓고, 문묘를 살피기 시작했다.

유재 송기면(宋基冕)(1882~1956)은 김제군 백산면 상전리 요교마을에서 아버지 송응섭과 전주 최씨의 모친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다. 4남 1녀 가운데 막내인 기면(基冕)은 5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아서 아들들을 위해서 서당을 짓고 독선생을 모셔다가 공부를 시켰다. 네 아들 가운데 유독 기면이 총명해서 석정 이정직선생의 문하생이 되었다. 석정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동안 10 여년 간을 시문, 서화, 의약, 역산을 전수받았다. 석정이 타계한 후 유재는 한 동안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간재선생을 찾아서 계화도로 떠났다. 간재의 밑에서 학문을 익히고, 고향마을로 돌아와서 요교정사를 짓고 후학을 지도하였다. 그는 고종19년(1882) 9월16일에 태어나서 195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절에서는 세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선말 일제시대를 살았던 선비들의 활동과 선비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선비와 선비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선비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선비와 양반

선비와 양반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본 후 선비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선비는 士를 부르는 우리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士는 원래 『漢書』나 『訓蒙字會』 등에 따르면, 벼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약용도 『與猶堂全書』에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를 士라고 하였다(이장희 1986 :3) “士라 함은 학도지인을 가리키는 말로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로 대부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하여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를 위하는 자”라고 말하였다(정약용의 『與猶堂全書』 제 1집 17권; 이장희 1986:4에서 재인용). 사는 말하자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士는 주로 양반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신분 그 자체는 아니었다. 연암 박지원도 士가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진정한 士는 인간의 바탕이고 천자도 그 몸은 士이며 爵과 位에는 고하귀천이 있으나 몸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선비 즉 사는 신분 계급이 아니라는 뜻이다(금장태 1978: 192).

그렇다면 양반과 사는 개념적으로는 다른 실체가 된다. 실제로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였지만, 엄밀하게는 분리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가 신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인(常人) 그리고 천인(賤人)으로 나누어진 신분계층이 사회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면서도 士·農·工·商의 구분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양반은 사대부에, 상인들은 농공상에 종사하였다. 이처럼 신분과 직업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고리가 인도의 카스트제도와 같이 절대적이지는 않았다. 더구나 신분제가 흔들렸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신분과 직업의 고리는 더욱 느슨해졌다. 중인이나 상민들이 양반신분을 사서 벼슬을 하기도 하고, 또 양반들이 몰락해 농사를 짓기도 했다. 특히 벼슬에 나아가는 과거제도가 문란해지면서 의식 있는 선비들은 일부러 과거시험을 치루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도 많아졌다.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조선 말기에 이르면 천민과 노비의 일도 점차 사라지면서 이들이 농·공·상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몰락한 양반들이 생활이 곤란해 지면서 농사 뿐만 아니라 상업이나 어업에도 관여하게도 된다.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서 위장할 수 있게 되자 양반은 더 이상 권위적인 신분이 되지 못했다. 그 자리를 선비들이 메꾸어 주게 되었다. 즉 지배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로서 선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들이 학문을 숭상하고 예를 닦으면서 정신적인 지주들로 향토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양반의 진위를 구별하기는 어려워어도 선비들이 누구가는 분명하였다. 학문을 숭상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의식이 높은 청렴결백한 선비상이 혼란해진 사회 속에서 오롯이 남아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향촌사회에서 양반들이 모두 선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흥미로

운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향촌사회에서는 여전히 선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비들은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서 정치적·경제적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마을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의 이미지가 탐욕, 치부, 수탈 등 부정적으로 흐른 반면에 선비는 여전히 청렴결백한 상으로 남게 되었다.

다음은 선비들이 중요하게 여긴 활동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학문활동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륜을 지키는 일과 육례(詩·書·禮·樂·易·春秋)를 중시하는 일을 말한다. 둘째는 인재양성이었다. 학교를 교화의 본을 삼아 선비를 양성하는 일을 중시했다. 교육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도를 귀하게 여겼다. 셋째 행동규범은 四維인 禮義廉恥를 따랐다. 선비들이 배우는 목적은 자신의 수양(修己)에 있으며 그 방법은 검소한 것을 숭상하는데 있었다. 선비가 도에 뜻을 두었다면 검소하여 좋지 않은 의복이나 음식을 입고 먹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장희 1986:22). 선비의 청렴이 이러한 정신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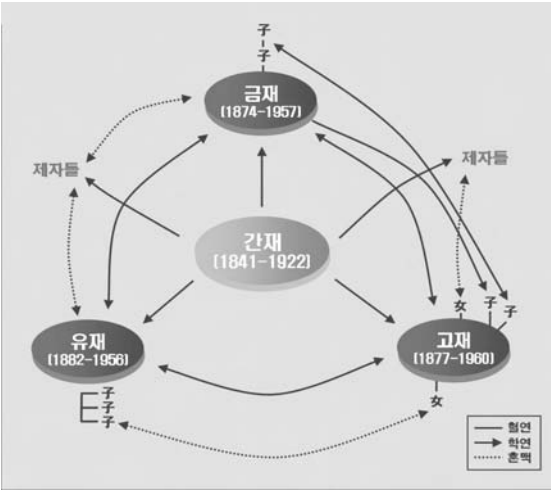
4. 선비문화

전통사회에서 만들어진 선비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신표의 전통문화문법에 대한 통찰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한국의 전통문화는 『음양적 원리에 입각한 대대(對待)적 인지구조』라고 정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대대적 문화문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규정하는 바, “대대(對待)는 相『對』하고 反『對』하

는 對이요, 『待』遇하는 待이다. 어쩌면 시(是)비(非)의 논리의 세계이다. 이는 곧 음과 양의 이분법적 『對』의 개념이요, 음과 양의 『待』의 화합으로 만물을 화생시키는 개념이다. 對待는 다른 아닌 이러한 상보적인 음양의 작용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대의 개념은 한자문화권에서 공유하고 있는 심층구조로부터 나온다. 조선왕조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였고, 그러한 전통이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대대적 인지구조가 전통문화 즉 조선시대 한자문화권이었을 당시의 문화구조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대적 인지구조가 심층구조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그 는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부자의 관계이고, 이 두 개의 짝은 군신, 부부 장유, 봉유의 짝으로 확대되는 기초관계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의 형식이라는 것이다(강신표 2002: 215-254). 이러한 대대적 인지구조는 한국인들이 맺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쌓아놓은 표층적인 구조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다.⁷⁹⁾ 첫째가 집단성이다. 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가족, 당내,

79) 이 이론을 다룬 강신표의 많은 논문과 저서 가운데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신표, 1978, "조선조 전통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십", 『韓國文化人類學』, 10/1, 7-25; 1986 "근대화와 전통문화",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범문사; 1985, "조선전통문화의 연극의례성-‘성은이 망국하옵니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1985, 한국문화인류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92, 『한국문화연구』, 현암사; 1988, "한국의 대대문화문법과 인학", 『韓國文化人類學』, 31/2, 205-233; 2002,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 문화문법", 『계간 사상』, 14/2, 215-254

종파, 문중의 성원으로 귀속하게 된다. 대대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집합을 상징할 있다. 유림들도 학맥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대대적 구조를 지닌 집단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둘째는 급수성이다. 바둑의 급수처럼 인간관계를 등급별로 파악하는 성향을 말한다. 당내나 문중에서도 급수성을 따져서 위·아래/선후관계를 살핀다. 마찬가지로 유림들도 내부에서의 급수성은 매우 중요하다. 스승과 얼마나 가까운가, 누가 수제자인가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셋째로는 연극/의례성이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한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집단성과 급수성을 맥락에 따라서 적당하게 잘 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여 한국인의 행위양식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이 구체적인 선비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행위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맥락으로 다시 풀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림 삼재의 집단적 연결망〉

(1) 학통 지키기

유학자들에게 기본적인 것은 학통이며 이는 집단성과 관련있다. 학통을 세우기 위해서 사제관계는 중요할 뿐 아니라 큰 의미를 지닌다. 유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각자 스승을 찾아다닌다. 일단 특정한 스승의 문하생이 되면 부자처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학통이 이어지면서 사림을 형성하기도 한다. 금재, 고재 그리고 유재는 각기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간재선생을 찾아가서 문하생이 되었다. 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간재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 간재의 문하로 들어갔다. 이들의 학문은 간재의 이기설(理氣說)을 진지하고 착실히 이어받았다고 한다. 간재는 이이, 김장생, 송시열, 김창협, 김원행, 박윤원, 홍직필, 임헌희로 이르는 기호학파의 주요학통을 계승하였다. 성(性)을 이(理)로 파악하고 심(心)을 기(氣)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기호학파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心)을 이(理)로 파악하는 영남학파의 심주리설(心主理說)을 비판하였다. 대신에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 또는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 등의 독특한 학설을 제기하였다.⁸⁰⁾ 금재도 이향로의 심주리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태극과 성명(性命) 태극(太極)과 성명(性命)은 천지와 인물의 자재(自在)하는 이치요, 음양과 오행의 몸과 마음은 천지와 인물의 동정(動靜)하는 기운이므로 이(理)는 조짐이 없어도 기(氣)의 주재가 되고, 기(氣)는 작용을 해도 실상은 언제나 이(理)를 싣고 있다. 만일 전체적으로 논한다면 우주의 천태만상이 모두 태극의 원리

80) 양기정, 간재집 해설 참고.

라는 논리를 예로 들어 심(心)이 태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성은 형이상(形而上)이요, 심은 형이하(形而下)로서 상하의 분별이 있고, 태극과 동정의 구분이 곧 성과 심의 구분이며, 도(道)와 기(器)의 구분이 뚜렷함을 밝히고 있다.”〈금재의 雜著, 華西答金監役書辨〉⁸¹⁾

이러한 그의 변론은 스승인 간재가 제시한 기본 명제인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 즉 성존심비설(性尊心卑說)에 이론적인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재는 공리공론에 머물지 않고 그의 사상을 실천함으로서 학행일치에 힘썼다는 점이 더욱 훌륭하다고 하겠다.

유재도 금재와 마찬가지로 ‘성존심비(性尊心卑)’·‘성사심제(性師心弟)’의 설을 추종하여 계승·발전시켰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유교의 생활규범을 철저하게 지켜가며 전통 유학사상의 토대 위에 근대 유학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기도 했다. 유재가 계화도를 떠날 무렵의 일이었다. 세 친구가 부안 백산의 화호 삼거리에 이르렀다. “어디로 갈 것인가?” 한 친구가 물으니 다른 한 친구가 대답했다. “바야흐로 신문명이 도래하는 시기다. 나는 전주로 가서 외국어학당에 들겠다.” 또 곁의 친구도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도 자네와 뜻을 같이하겠네. 하지만 유재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친구는 젊은 유재한테 물었다. 젊은 유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나는 다시 고향 김제로 돌아가겠네.” “왜?” “그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⁸²⁾

81) 조기대 <금재문집>,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12쪽.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

82) 박권상, 「강암의 인간과 서예」 『강암송성용의 삶과 서 예술』, 도서출판 不二, 1996, 32쪽.

(2) 道의 실천

유학자들이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또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일은 중요하였다. 그러나 과거제도가 점차 문란해지면서 뜻있는 유학자들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거나 관직에 나아가는 것조차 꺼렸다. 선비들은 관직에 나가는 것은 어려워하고, 물러서기를 쉽게 했으며 이는 도를 실천하고 公義를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금장태 1978: 193).

삼재는 전주 인근에서는 모를 사람들이 없을 만큼 유명하였다.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삼재의 존재는 호남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이제 교동에서 조차 최학자·이학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그래도 아직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선비라고 한다. 선비로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분명 존재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나라가 어지러울 때부터 일찌기 벼슬길을 접고, 충효와 의리, 절개를 지키는 일을 하였다. 뒤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금재의 경우도 31세에 1904년 1월에 명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집안이 대대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던 전통을 지키고자 했을 지도 모르고, 당시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을 때여서 국가의 관리가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지도 모른다.

간재의 뒤를 이어서 금재도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판단했다. 그래서 옥류동에 서당을 열고 후학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금재가 교육자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남아있다. 그는 “의리를 밝혀서

자신을 단속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는 도학적인 교육지표를 세웠다. 여기서 의리를 밝힌다는 것은 인륜을 일상 생활화 하는 것으로 어느 때에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일 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실천을 위해서 그의 성당인 염수당에서는 <염수당강규念修堂講規>와 <학규도學規圖> <일용존성도日用存省圖>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⁸³⁾ 먼저 <염수당강규>의 내용을 보면 입학조건·학생대표의 일·기상시의 예절·독서의 자세·필기구의 정리정돈·연장자와 손님에 대한 예절·식사시의 예절·식후의 태도·걸음걸이·언어·의관·친구와의 사귄·밤 시간의 독서·하루일과의 반성·귀가시의 예절·시험에 관한 내규가 적혀있다.

1966년까지도 염수당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재의 손자인 최규만이 서당의 훈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전주시 교동 염수재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칠 새 없이 3백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최학자님 집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글방에서는 지금 훈장 최규만씨가 어린이 15명에게 천자문에서 맹자에 이르는 한문과 붓글씨를 가르치고 있다. (중략) 한 달에 2백 원의 학습비를 내는 어린이들은 『천자문』 (3개월)에서 시작 『사자소학』 (1개월)·『동몽선습』 (1개월)·『명심보감』 (3개월)·『소학』 (5개월)·『대학』 (1개월)·『중용』 (1개월)·『논어』 (1년)를 거쳐 『맹자』 (1년)까지를 배운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1966년 1월7일자 기사)

교육의 산실인 금재의 옥류정사(玉流精舍)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83) 염수당은 그의 서당의 당호였다.

모여들었다. “나라를 빼앗긴 탓으로 몸은 비록 왜정의 식민지 통지를 받아야만 하였으되 정신만은 조선인으로서의 근본을 지키려는 많은 유생과 기성선비들의 집합소가 되었다”고 한다(송준호 연대미상:4). 금재가 길러낸 제자의 수는 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금재선생 문집』에 첨부된 제자들의 명단인 「玉山淵源錄」에 기된 제자는 277명이었다. 그 중에는 조기주·이남안·박인규·박종익(종택)·윤제술·엄명섭·박종호·송준호·나진선·송열·엄명섭·김상기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당은 1957년 금재선생이 작고한 후에도 손자 최규만·제자 박인규·엄명섭 등이 강학을 이어갔다.

고재의 학문은 일찍이 간재선생이 격찬을 한 바 있고, 고향인 두방마을에 돌아와서 南安齋를 짓고 칩거했다. 남안재에는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들어 강학을 하며 지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유학자들에 대한 탄압이 세어지자 이들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신학문의 길을 택하기도 하고, 더 이상 유림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었다. 그러나 고재는 의연하게 고향의 서실과 서당을 지키면서 그의 학문과 사상을 키워갔다. 전주로 옮긴 것은 고재의 나이 60세인 1936년이였다. 일제에 의한 유학과 유림에 대한 탄압이 강해지자 고재는 결단을 내렸다. 문묘제반사가 소홀이 되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전주의 향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주로 나온 것이다. 원래 선비들은 향교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소홀해지는 성현들의 위패를 홀로 정성껏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제 말기부터 본격적인 향교 수난기에 고재는 온 몸을 다해서 이곳을 지켜냈다. 향교에 모셔진 성현들의 위패는 물론이고 장서본의 완전하게 보존이 고재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주향교에 소장되

어 있는 일만 여 목판본과 위패, 제기 등이 그대로 간직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의 아들로 이어진 부자간의 정성과 노력의 결과이다 (전주향토지 1991: 251-252).

유재는 간재선생이 계시던 계화도를 떠나서 고향에 돌아와서는 요교정사(蓼橋精舍)를 열고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선비는 도를 위해 자신을 바치고 신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였으며, 평소에 “좀 더 일찍 간옹을 만났다면 나의 학문의 세계를 더욱 넓히고 공고히 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요교정사’라는 그의 시는 선비들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蓼橋精舍〉 요교정사

構得數椽傍蓼橋 여뀌다리 곁 마을에 몇 개의 서까래를 얹어 집을 지었네
紛紛塵慮此中銷 어수선한 세상걱정을 이곳에서 삭이노라
林間路熟時行遍 익히 아는 길 따라 때로는 숲속을 두루 거닐고
卷裏年深世夢遠 책속에 파묻힌 세월이 길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꿈도 멀어지네.

(3) 의리와 절개

금재는 간재의 운둔-강학의 정신을 이어서 옥류동에 칩거하면서 교육에만 힘썼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의병을 일으키는 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당대에는 일부의 유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창의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병활동을 좌시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금재선

생의 행적을 보다 자세하게 살피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에 대해 의리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기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맺어지자 금재는 단식으로 항거하고 <을사오적 선참격문>을 작성 배포하다 압수당했다. 1910년 국치(國恥)의 소식을 들은 그는 발산(鉢山)에 올라 하루 종일 통곡한 후 상시(傷時)를 읊은 뒤 7일 동안 단식하였다고 한다.⁸⁴⁾

〈傷 時〉 이 시대를 아파하며

年來世事正悲傷 요즈음 세상일은 어느 것 하나 맘 상하지 않는 게 없으니
陰極何時見復陽 어둠은 언제쯤 가고 다시 빛을 볼 꺼나
林間啞啞烏聲亂 수풀사이 까마귀 우는 소리 시끄럽고
海上啾啾鬼語長 세상은 온통 말 같지 않은 말만 하는 무리들로 가득하니
萬里無雲天始定 구름 한 점 없이 온 세상에 갠 날이 오면
千峯月得夜猶光 봉우리마다 달이 떠올라 밤도 오히려 밝으리.
懷緒忽忽難自抑 가슴에 찬 회포 억제하기 어려워
挑燈朗讀下泉章 등잔불 켜고 하천장을 읽네.

이후 금재를 따르는 문하생들, 독립투사들이 옥류동에 운집하였다. 그러다보니 금재의 염수당(念修堂)은 강학을 하는 곳만이 아닌 조국의 독립을 논하는 유생과 선비들의 집합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학자촌이 형성되자 일제는 염수당을 없앨 궁리를 하게 되었다. 마침내 일제는 1911년 옥류동 향교고을 일대에 자리 잡은 학자촌의 학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강제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⁸⁵⁾ 그 이듬해인

84) 『성당문집』 중 「금재선생행장」

85) 전북매일신문사, 『명문의 고향』 「전주 최병심」, 1970, 184쪽.

1912년 호남창의대장(湖南倡義大將) 이석용(李錫庸)이 전남북(全南北) 양도에 걸쳐 일군(日軍)과 항전을 계속하며 독립밀맹단(獨立密盟團)을 조직하고 각 지역을 분담하여 활동할 때 금재는 전주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전주(全州) 지방을 맡아 이석용의 의병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석용이 쓴 『湖南倡義日記』 말미에는 「弗忘錄」이 있어 금재가 이석용을 지원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를 보면 무신년 9월에서 계축년 7월까지 약 5년간의 모금은 전(錢) 3,070냥과 포목 3필, 목화 90근, 모시 1필, 모시두루마기 1벌, 中溺鉤(중낙강) 1개였다. 그 중 금재가 낸 금액은 기유년 10월 전5냥, 경술년 3월 전5냥, 신해년 2월 전20냥, 신해년 12월 전3냥, 임자년 4월 전2냥, 경술 춘 모시두루마기 1벌이다. 여기에서 금재는 전주 동춘 최참봉댁으로 기록된다. 이를 보면 금재는 임자동밀맹단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군자금을 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⁶⁾ 당시 선비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금재선생의 군자금 지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재의 항일정신은 韓田사실로 알려진 토지회복운동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제는 양잠업 장려의 일환으로 원잠증제조소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물색하였다. 식민정부가 선정한 곳이 바로 한벽당과 전주향교 사이에 있는 밭이었다. 바로 이 구역에는 금재 소유의 땅과 집이 포함되어 있었다.⁸⁷⁾ 식민정부에서는 최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옥류동의 대지를 매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재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내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총독부는

86) 이석용, 『정재이석용문집·호남창의일기』, 「의병해산, 임자동밀맹단과 그의 최후」 임실문화원, 열림, 2002, 45-47쪽 참조; 김명엽, <보고서>에서 재인용.

87) 금재선생의 원래 집은 현재 전통문화센터가 있는 자리이다.

토지수용령을 발동하였다. 끝까지 항거하던 금재를 경찰서로 연행한 뒤 가옥을 소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어이 땅을 빼앗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한전사건(韓田事件)이다. 금재의 제자 성당 박인규가 기록한 <한전사실추록韓田事實追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7년 당시 총독부는 소위 은사금이란 것을 내려 잠업을 장려했다. 따라서 지방관서에서는 토지를 사들여 뽕나무밭을 만들기에 바빴다. 전주 향교소유의 땅들도 토지수용령에 맥을 못 추고 별 저항 없이 국유지가 되어갔다. 고집스런 전통유학자의 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 금재의 집 대지가 뽕나무 밭 조성지로 지목되었다. 도지사 이진호(李軫鎬)가 사람을 보내 고가로 매입하겠다고 설득했지만 금재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 땅 대신 양전(良田)을 주겠다고 해도, 세(稅)를 낼 테니 빌려달라고 간청해도 금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금재에게 그 대지는 자신의 것이기 이전에 오백년 가깝게 조상대대로 물려온 가문의 땅이자 내 나라 조국의 땅이었던 것이다. 금재는 “속임수를 써서 우리나라를 빼앗은 무리들이 이제 금전으로 내 집터를 사들이려하니 죽어도 이 땅을 팔수 없다.”고 하였다.

금재가 거절로 일관하자 8월 20일 도지사는 이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하여 ‘토지수용령’을 발동시키고 순경 30여명과 소방서원 90명 등 1백 20여명을 금재의 집으로 보내 집을 강제로 철거하도록 했다.⁸⁸⁾ 항거하던 가족들은 유혈이 낭자하도록 맞았고, 금재의 부인 통천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은 채 모두 경찰서에 연행

88) 당시에는 금재의 집이 잠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토지 안에 있었다. 즉 현재의 남원행 도로의 남쪽에 있었으며, 후에 도로의 북쪽에 있는 언덕 기슭으로 옮겼다.

되어 갔다. 통천김씨는 이때 당한 폭행의 후유증으로 1919년에 세상을 뜨고 만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위에 집에 돌아와 보니 왜경들이 집에 불을 질러 바깥채가 타고 있는 중이었다. 금재는 짚고 다니던 죽장으로 왜경들을 쫓아냈다. 그리고는 죽기를 결심하고 가묘에 하직인사를 올린 뒤 노모에게도 자신의 뜻을 알린 후 불타버린 집터에 누워 단식을 시작했다. 금재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땅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나 스스로 다짐하였는데 결국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구차스럽게 살기를 원하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조선민족은 참으로 불쌍하게 되었다. 나라의 명운이 종말에 이르렀으니 이를 누가 구할 것이며, 누가 살릴 것인가. 법망이 온통 사방을 에워쌌으니 숨통이 끊어질 지경이요, 손발이 뭉뚱 묶어있는 형편이다. 오직 죽음만이 눈앞에 있으니 이를 장차 어찌 할 것인가.” 라고 탄식하였다. 금재가 단식투쟁으로 맞서자 일제는 타협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지수용령을 철회하겠다고는 언약을 주었다. 금재는 단식을 중지하고 식민정부의 약속이행을 기다렸다. 아무런 조치가 없자, 금재는 일본 식민지 정부와 법정투쟁 계속하여 마침내 1941년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선비들이 글과 행동을 통해서 일제에 항거했으며,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힘을 합하여 충효, 의리, 절개를 지키려 했다. 『염재야록念齋野錄』의 「서序」 사건을 또 다른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염재야록은 임실의 선비 조희제가 1895년의 을미사변의 전말과 절의를 세운 의열사, 의병들의 실적과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한 기록이다. 염재야록은 초고는 8권이었으나 원고의

일부와 잡저들을 일본경찰에 압수당해서 6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⁸⁹⁾ 금재와 고재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

이남안 : 한말 유학자인 조희제 선생이 유고집이자 일제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닌 『염재야록』을 만들어 전국의 유림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책의 서문(序文)을 금재 선생이 쓰셨고, 제 조부인 고재 선생이 발문(跋文)을 쓰셨어요. 그 때문에 임실 경찰서에 두 분이 오랫동안 구치되었던 사건도 있었지요. 금재와 고재 두 분은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과 함께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의 제자로서 더불어 금재와 고재는 감방 동기이기도 한 거지요.

조기주 : 조희제(趙熙濟)는 한말에 금재선생하고 친구인데, 호가 염재(念齋)거든요. 그분은 송사(松沙 奇字萬) 문인(門人)이에요. 송사의 할아버지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이고, 그분이 쓴 『염재야록』이란 것이 있어요. 금재와 고재(顧齋 李炳殷) 이렇게 두 분과 무척 다정해서 한 해 겨울에는 선달 그믐날이 되었는데, 임실을 안 오시고 거기서 세 분이 같이 술을 드신 거야. 전주 최금재 댁에서. 그러면서 세 분이 선달그믐에 술을 한잔 먹으면서 시를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토록 다정한 처지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염재야록』 서문을 그때 쓰셨어요. 발문은 고재가 쓰시고요, 우리 큰 아버지나 아버지가 염재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던

89) 성당(誠堂) 박인규(朴仁圭)의 문집인 『성당사고誠堂私稿』 권4, 잡저(雜著)의 통고문에 기록되어 있다. 성당 박인규도 금재의 제자이고, 그의 서실 겸 가옥인 구강재가 옥류동에 남아있다.

제자들이여요. 두 분이 『염재야록』을 서역(書役)을 해서 땅에다 비장을 해놓았었습니다. 또 일부는 날마다 집필을 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일제에]탄로가 나서 전부 압수를 당했어요. 경찰서에서 우마차로 와서 그 많은 서책을 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도 참봉이셨는데 큰아버지 [문집]칠~팔 권과 염재 문집도 칠~팔 권 되었고요. 압수당할 때 전부 쓸어 가버려서 일생동안 한[글을 쓴]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비장(秘藏)해놓았던 독립투사들 기록만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문장필적은 없어졌다 이거지요.

금재는 『염재야록』의 「서」에서 “불행하게도 지난 날 도적 같은 신하들이 임금을 속이고 적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나라를 들어원수에게 주니 우리의 오백년 종묘사직은 무너졌고, 이천만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부림을 받게 되었으며, 신성한 조국 삼천리 정결한 땅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비린내 나는 마당으로 변하였다.”⁹⁰⁾ 또 “저들에 대항하여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기개와 절의가 더욱 모질고 매서워 그야말로 우주와 높이를 겨루고 일월과 빛을 다투었던”⁹¹⁾ 지사들을 칭송하였고, “친우 조희제군이 을미이래로 국가의 변란과 그 전후한 시기의 여러 사람의 충의로운 일 및 행적을 수집하여 <야록>이라고 이름 하였다. 선왕의 유민으로서 이 책을 읽고 감개·격분할 줄 모른다면 어찌 천성과 인심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⁹²⁾

90) 不幸往者賊臣 欺君引敵入室 舉國與讎 既覆我五百年宗社 又奴我二千萬生靈 遂使四十年 神聖之國三千里 乾淨之土一朝變爲侏離腥臊之場矣.

91) 蓋當時禍變之愈酷 而諸公氣節之益烈 直與宇宙抗高日月爭光.

92) 趙友熙濟諸君慨然乎. 是蒐輯乙未以來國變及前後 諸公忠義事行名之曰

금재와 고재 모두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고, 염재는 울분으로 병이 나서 병보석으로 나왔다. 그 후 또 체발(剃髮)을 강요당한 염재는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구차히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의를 지켜 죽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일본에 항거하는 방식이 선비들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항일정신만큼은 누구라고 할 것없이 그 기백이 충천하였다. 유재선생도 단발령의 협박을 이겨낸 절의시(節義詩)에서 선비의 의리와 절개를 잘 보여주고 있다.

祖宗山前口呼 조종산 앞에서
陰雨暗前山 비구름이 앞산을 어둡게 하고
鵝妖出匪意 요망한 기운이 뜻하지 않은데서 나오네
縱他劫以刀 비록 저들이 칼로 협박하지만
詎斷胸中義 어찌 가슴속의 의리를 끊을 수 있으리오

5. 21세기에서 바라본 선비정신과 호남유학

국내에서는 전주의 한옥마을만큼 많은 선비들이 모여서 강학과 교육을 했던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1920·30년대까지 최학자의 서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 들어 한학교육을 받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한문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륜 도덕을 중시하며 전인교육에 힘을 썼다. 뿐만 아니라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으며 유학이 스러져가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던 역사적인 현상이다. 전주 교동은 한국 전통 교육과 학문의 마지막 불씨를 담고 있던

野錄. 先王遺民者 讀此書而 不知感慨 激奮則 豈可謂有天性人心者哉.

곳으로서 그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직도 조선의 선비정신이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다. 되살려낼 불씨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곧 언제 그 불씨가 꺼질지 몰라 초조하기만 하다.

박은식은 일찍이 유교의 미래를 예견하는 글을 다음과 같이 썼다.

“과거 19세기와 현재 20세기는 서양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요, 장래 21·22세기는 동양문명이 크게 발달할 시기니, 우리 孔子의 道가 어찌 끝내 땅에 떨어지리오. 장차 전 세계에 그 光輝를 크게 드러낼 시기가 있을지니..” (『朴殷植전집』 하, 48쪽, 儒敎求新論,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금장태 2000:322에서 재인용.)

이 글은 박은식이 1909년에 썼다. 그의 말대로 19·20세기는 서양 문명이 크게 발달한 시기였다. 그러나 20세기말부터 서양중심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그 조짐이 더 확실해지고 있다. 아울러서 세계는 동양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동양정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교와 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유학에 관한 한 한국은 과거 유학자들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현대로 불러올 수 있는 기반이 잘 닦여 있는 셈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선비들의 학문과 실천을 통해서 보면 유학이 결코 고리타분한 학문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실천을 하기도 하고, 사회정의를 이루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면도 있다. 특히 선비들은 말이나 생각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태도를 더 중시하였다.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하고, 근검절약하며, 청렴하게 살고, 의리와 기개를 지키는 일을

실천했던 이들을 선비라고 불렀다. 이는 선비문화의 진면목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호남유학의 실재를 밝히고 나면 한국유학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앞으로 한국유학에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문집류 및 기타 사료집〉

崔秉心, 『欽齋先生文集』

이병은, 『顧齋集』, 여강출판사, 1988.

송기면, 『裕齋集 : 유재 송기면의 문학과 사상』, 이회, 2000.

朴仁圭, 『誠堂先生文集』

裴聖洙 〈欽齋先生 墓誌銘並書〉

趙熙濟, 『念齋野錄』

李錫庸, 『靜齋李錫庸文集·湖南倡義日記』, 임실문화원, 열림, 2002.

전주최씨 중랑장공파 종중회, 『全州崔氏 中郎將公派 族譜』

〈논문 및 저서〉

강신표, 1978, 「조선조 전통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쉽」 『韓國文化人類學』, 10/1, 7-25.

1985, 「조선전통문화의 연극의례성-‘성은이 망극하옵니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한국문화인류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1986, 「근대화와 전통문화」,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 범문사

1988, 「한국의 대대문화문법과 인학」, 『韓國文化人類學』, 31/2, 205-233

1992, 『한국문화연구』, 현암사

2002, 「퇴계의 〈성학십도〉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 문화문법」, 『계간사상』, 14/2, 215-254

금장태, 1978, 「趙靜庵과 朝鮮朝의 선비精神」, 『韓國學報』, 4/1, 180-194

1993, 「한국유교사 연구의 현황과 방향」, 『宗教學研究』, 12, 1-13

- 1995, 「韓國 儒敎文化 特徵」, 『韓國學論集』, 27, 139-160
- 2000, 「21세기에서 유교의 진로와 과제」, 『불교문화연구』, 1, 309-336
- 금장태·고광식 공저, 1989, 「欽齋 崔秉心」, 『續儒學近百年』 여강출판사.
- 김기현, 「欽(금)齋 崔秉心の 華夷意識과 守道の 精神」, 艮齋學會研究會 발표문.
- 김성우, 2003, 「조선후기의 신분제」, 『역사와 현실』, 48, 3-29
- 문창현, 2008, 「전통문화구역의 관광명소개발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2(1): 31-53.
- 박권상, 1996, 「강암의 인간과 서예」 『강암송성용의 삶과 서 예술』, 도서출판 不二.
- 宋俊浩, 「欽齋 崔秉心 先生の 생애」
- 이선희, 2007, 「전통문화개발지구 주민분화와 갈등: 전주 ‘한옥마을’을 사례로」 『고대와 현대 속에서 전통문화찾기』.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편), 256-284.
- 이장희, 조선시대 선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조기대, 1991, <금재문집>,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12쪽
- 전북매일신문사, 『名門의 故郷』 「全州 崔秉心」, 1970.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全北의 樓亭』, 신아출판사, 2000.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 미발표 보고서>

김명엽 2008 <최학자 금재 최병심>

2008 <강암 송성용선생의 아석재>

김동영·이경진 <향교옆 고재선생의 선비정신이 깃든 남안재>

함한희·문예은 <四代재 내려오는 古色蒼然한 선비의 집-이서우씨택->

